大韓建築士協會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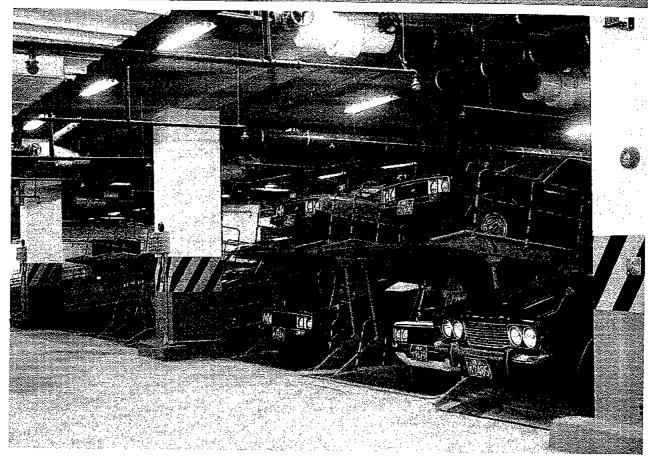
MAY 1982. No. 158

KOREA ASSOCIATION OF REGISTERED ARCHITECTS

1982.5

획기적인 주차방법의 출현.

2 ᄩ 폭 차정, 동



*본사에서 한국외환은행본점 주차장에 시공 설치한 2 단주차장치



- 1. 효율적인 공간 활용으로 주차면적이 극소화 된다.
- 2. 주차설비 투자비가 반감된다.
- 3. 조작과 보수유지가 간편하다.
- 4. 주차시 안정성이 매우 우수하다.
- 5. 설치 시공이 용이하다.

任 (株)弘進機研

本

社:京畿道 富川市 素砂洞 28-11

TEL. (仁川) 62-7411~4

안 내 ●

주차장법 시행규칙(건설부령 제 278호) 제 4 조 제 5 항에 의거 기계식 주차장으로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 2 항에서 정한 구조 및 설비와 동등 이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규정(1980, 11, 7 건설부훈령 제499호)에 적합하게 설치할 경우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서울事務所: 서울ㆍ中区 茶洞87 (유일빌딩703호)

TEL. 777-7943~4

釜山事務所:釜山·釜山鎮区 釜田洞153~3

TEL. (釜山: 802-2703



翔建築士

May 1982, No. 158

U. D. C. 69/72(054-2):0612(519)

発行所: 大韓建築士協会 / 서울特別市 鍾路区 瑞麟洞89 / 郵便番号: 110 光化門郵通局 私志函 第795番/電話 723-9491~2,723-4287,724-1045 会行人 兼 編輯人: 具 玑 會 / 登録番号: 第라-1251/登録:1967.3.23 至行:1982.5.15 / 非売品 / 印刷人:金 允 坤(福祉文化社/265 - 7323)

KOREA ASSOCIATION OF REGISTERED ARCHITECTS

多数数 卷頭詩 建築士 분류번호 노서번호 구입년 월일 대한건축

1982.5 2 우리의 使命 14 教會建築, 그 形態와 様式의 類型 金正秀

韓國기독교敎會建築의 規模	決定에 必要한 研究 李好璡	17
우리나라 都市와 農村의 敎	會分布現況 韓圭榮	22
現代 基督教建築의 動向	鄭時春	28
共同集合住宅의 當面課題	安瑛培	58
持 、輯、會員教會作品。		-35
●馬山聖堂	(주・공간연구소) 金壽根	36
◆압구정동聖堂	(주・엄& 이건축연구소) 李喜泰	38
●소망敎會	(서인건축연구소)金基弘・崔東窯	40
●청파監理敎會	(고려건축합동설계사무소)姜素星	42
●서부제일長老敎會	(동신건축합동설계사무소)羅永均、李光점	43
●天主敎 잠실敎會	(도성건축연구소) 朴在煥	44
●삼봉監理敎會	(건축연구소원건사) 尹鳳鴻	45
● 산성敎會	(임급주건축사무소) 林級層	46
●서강監理敎會	(정주건축)鄭時港	¥ 47
●의정부監理敎會	(차건축연구소) 専東明	48

編纂委員會

委員長 朴商浩 李明浩 姜健熙

朴勇煥

※※※※※※ 이달의話題

海外建設事例

928年11日 海外特選

李榮-

全達根

全基哲

姜哲求

趙東榮



표지설명/馬山塱並내부 設計:金藤根

東南亞 各國의 建築團体를 巡訪하고[Ⅱ]:連載 2000 W訪報告 验验 紀行文

아메리카 20 [I]: 連載

49 安箕泰

朴彦坤・金東旭

金枝泰

54

74

76

34

61

87

V韓國建築의 絶對特殊性에 關む 考察[Ⅱ]:連載 企壽根씨 AIA 명예회원에 추대

KING SAUD UNIVERSITY 新築工事

10 **型列開發海外技術部** 78

A : 강석원, B : 정진수 80

- Riyadh, Saudi Arabia

●回敎文化센터 -UIA 현상공모용모작품

● 聖KNUD LAVARDS교회 - 코펜하겐

● 聖리콜라이교회 – 코펜하겐

'88서울夏季올림픽 有感 (******** 프리즘

12 崔昌奎 33 □ 意識改革運動의 積極展開

□개발도상국의 건축과 설계

□ 特定建築物 整理에 關한 特別措置法 및 同法施行令 解説

89

□ 법개정 내용

□ 건축자재해설

□ 건축행정/질의응답 67

94 □ 회원동정

우리의 使命

오늘 우리들은 建築士라는 사명감과 새 出發을 하는 마음가짐으로

射發點에 선 달리기 선수처럼 發意의 순간이라 생각하고 勇気와 生命力을 가지고 몸과 마음을 가다듬자.

성급히 서둘지도 말고 숨가뼈 달리지도 말자. 느긋한 호흡 속에서 가끔은 쉬어가며 생각하자.

지나간 일들을 反省하면서 옳고 바르게 걸어 왔나를 살펴보자.

오늘의 先決問題는 무엇이며 어떤 것이 根本的인 문제인가를 原點에 선 마음으로 다시한번 생각해 보자.

더러는 길가에 핀 草花도 돌보아 가면서 지나가자.

아스팔트 길만이 길이 아니요 콘크리트 길만이 길이 아니다. 구부러진 뒷골목도 길이요 잔모래로 다진 歩道도 길인데

人道라는 생각으로 순서도 지키고 질서도 지키고 安全은 더욱 지켜야지.

질가의 草花를 아끼는 것처럼 生命의 존엄성을 생각할줄 아는 생활태도를 갖자.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生活觀·社會觀·國家觀 을 定立해야 하지 않을까? 나만 사는 것만이 正道가 아니요 이웃과 사회가 서로 밀고 서로 도우며 협동하고 참여하자.

숨가뼈 서둘지 말고 더러는 이웃과 뒤진 사람들을 돌보며 가자.

우리의 조상들이 恨과 怨의 世流 속에서도 天·地·人을 잇는 自然과의 조화를 잊지 않았음을 명심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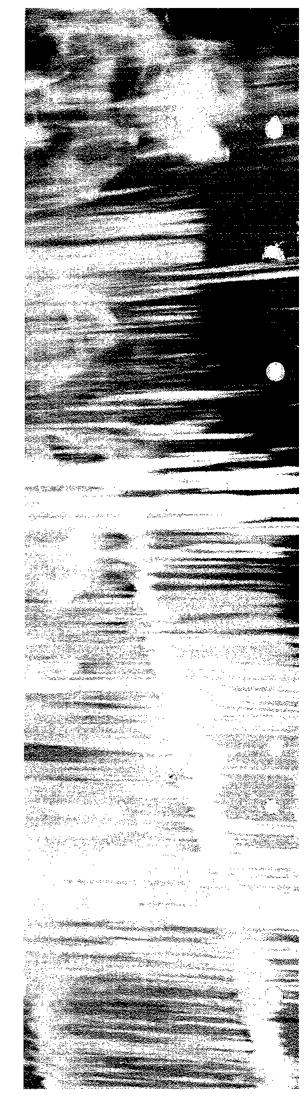
이제는 가슴에 손을 얹고 잠시 생각하면서 행동하자. 建築士의 使命이 무엇이며 愛國·愛族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原點으로 돌아가서 스타트의 선수처럼 勇気와 生命力을 가지고 根本的인 문제들을 풀어나가자.

성급히 서둘지 말고 숨가삐 달리지 말고 七願八起의 정신으로

오늘보다는 내일에 내일보다는 二千年代에 더욱 잘 살 수 있도록 기초적인 일부터 다져 나가자!

〈心象〉



定期理事會 개최

제 5 회 정기 이사회가 지난 4 월28
 일 오후 2 시에 본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具所會회장 주재로 열린 이날 이사 최는업무보고와 부의안건이 논의되었 다.업무보고에는 82년도 추가 갱정 예) 산안에 대한 건설부승인 신청과 7개 분과 위원회 위원위촉, 자문세무사위 촉, 제규정 개정통보, 특정건축물 정 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책자배부, 경북 지부 임시총회개최, 전임 임원에 대한



공로폐전달, 3월말 현재 자금현황 등 이 보고 되었다.

부와 안건으로는 경북지부 임원(간 사 1 명)취임 승인의 건을 비롯,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자격사 제도 연구안 십의, 건축법, 건축사법 시행령안 십 의, 회원작품 순회 전시회, 인천지부 실태조사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다.

제 2 회 支部長會議 淨化推進中央會도

제 2 회 시도지부 지부장회의 및 정 화추진 중앙협외회가 지난날 23일 오 후 2 시부터 본회 회외실에서 열렸다.

具所會회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개회사에 이어 의식개혁을 위한 세부 실천사항이 시달되었으며 이에따른 결의문과 동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건축설계·감리 올바르게"라는 구호도 채택했다. 주요 실천사항에는 부당한 업무수탁 안하기, 타인의 설계도시에 명의대여 안하기, 건축설계·간리 철저히 하기 등이다.

이어서 지부장회의에서는 먼저 주요 업무보고가 있었으며 혐의사항으로는 금년도 추갱예산내역, 건축법, 건축사 법 및 동 시행령, 자격사 제도개선,특 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회 원순회작품전시회 확대 개최 등이 논 외 되었다.

정화추진 중앙 협외회가 채택한 의 식개혁 결외문은 다음과 같다.

□ 우리 대한 건축사 협회 회원 및 직
 원 일동은 국정지표인 정의사회구현을
 위한 외식 개혁 운동을 추진함에 있어



전 회원 및 직원의 솔선수범에 달려 있 음을 깊이 인식하고 어떠한 난관과 고 통이 있더라도 적극 참여하여 나 자신, 내 가족, 내 직장에서 이 운동을 적극 실천하여 의식 개혁 운동이 기필코 성 공되도록 굳게 다짐합니다.

意識改革교육실시

지난달 22일 오전 11시에서 12시까지 본부 및 서울지부 직원들은 본회회 판 4층 회의실에서 의식개혁 교육을 받았다.

전설부에서 제공한 홍보용 슬라이 드와 녹음 테이프를 통해 교육을 받은 이 자리에서 본회 쇼―祭이사는 의 식개혁은 몸소 실천하는 데에서 그 결 실을 보게되는 것이므로 항상 외식개 역 운동의 근본취지를 생활화하고 솔 선하여 밝은 사회를 조성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5월 3일, 오후 2시부터 2시 30분까지 본부 직원 및 서울지부직원



들은 具玧會회장으로부터 외식개혁 교육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具회장은 (의식개혁운 동은 일시적인 운동으로 끝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되며 새로운 차원에서 우리 민족이 전개해 나가야할 민족적운

協会消息

동임〉을 강조하면서〈협회를 구심점으로 하여 전국의 2천여 회원들이외 식개혁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알찬협회, 그리고 밝은 사회를 이룩하자〉고 당부했다.

委員會

編纂委員會열어



会誌의 편찬계획을 수립하는 편찬 위원회(위원장 朴商浩)가 지난 4월30 일 본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울들어 다섯번째 모임인 이날 회의에서는 5월호 회원작품을 교회작품만을 묶어 특집으로 꾸밀것과 이에따른 논문을 동시에 계재키로 의결했다. 따라서 5월호에는 김 수근씨의 경납마산성당을 비롯해서 모두 10개의교회작품과 김정수교수의 교회건축의유형과 양식등 6개 논문이 실리계된다.

傳統建築分科 委員會



전통건축연구분과위원회(위원장 張起仁)도 지난 22일 모임을 갖고우리나라 전통건축에 대한 외식제고를 위한 제반작업을 되기로 합의했다.

同 分科委는 이를 위해 우선 자료를 수집키로하고 사진촬영, 도면수집,実 測圖작성과 문헌목록작성을 하기로했다. 이와 병행해서 시대별로 유적분류도록 작성과 양석분류도록, 구조기본정리 등을 해서 매월 회지를 통해 소개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를 통해 현대건 축에 응용할 수 있는 試案을 준비 작 성하고 나아가 실내장식에의 적응등을 검토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法分科委員會



건축위원화 소속인 法分科 위원회 (위원장 朴城夏)가 지난 4월 15일본 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무처에서 질시하고 있는 각종 자격사제도에 관한 개선 안 연구에 따라 전축사 자격제도의 문 세점 파악과 개선안 등이 논의되었다.

아울러 건축법과 건축사법에 대한 개정 내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設備分科委員會



설비분과위원회(위원장 尹鳳源)는 지도 27일 회의률 열고 앞으로의 연구 사업에 대한 계획 등을 논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與此會회장은 尹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각각 위촉패를 전달하고 分科委員会의 활 동에 박차를 가해 출것을 당부했다.

동위원회는 이날 방재설비, 기계설비, 전기설비 등 각 분야별로 나누어 연구해서 차기 회의사까지 자료 등을 수집 검토하기로 했다.

巡回展示會 확대개최

協會大賞展도 同時에

전설부의 지원으로 당초 5월초에 개최키로 했던 5개도시(서울·부산· 대구·광주·대전) 순회 회원작품전 시회를 확대 개최키로 했다.

본회는 이를 위해 매년 10월경에 개최하는 協會大賞服을 앞당겨 6월부터 7월 사이에 열고 참가 작품도 그목을 넓혀 희망 회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따라서 규모가 커지고, 시상폭도 넓혀 우수작품의 전국 순회 소개를 적 국적으로 펴나가기로 했다. 참가 및 판별제작 요령은 다음과 같다.

□ 출품대상 / 본회 정회원이 설계 한 작품으로 1979년 이후에 준공된 작 품. ① 이미 협회에 출품된 작품. ② 본지 81년 10월호부터 82년 4월호에 개재된 작품.

□ 크 기 / 100cm (가로) × 100cm (새로) 정도(판넬수는 작품규모에 따라 1~2개 정도)

□ 기재 사항 / 설계개요 · 작품명 ·소재지 · 설계자명 ·소속 · 시공자 · 규모 · 구조 · 설비 · 준공임자.

□ 기타시항/배치도 · 평면도 · 작품사진(전경·내부 등) 설계자사진(명합관정도로 우측하단에 부착)

□ 마감/1982. 5. 29일까지 출판 사업부

※ 출품작품 함프렛 제작에 사용할 설계개요와 판넬기재사항 내용, 설계 자 사진, 잉킹된 배치도 및 주요평면 도 1애씩을 5월20일한 미리 제출바라

※ 판별세작 보조비로 1개작품당 5만원씩 보조함.(*)

日 大分大교수 초청간담회

일본 大分大學의 石橋英一, 山崎均 교수 초청 간담회가 지난 4월21일 오)후 7시, 시내「선천」에서 있었다.

이 자리에는 具晩餾회장을 비롯하여 본회 임원진 등여 참석, 이 자리에서 與회장은 이들 교수에게 건축사지와 페넌트 등 기념품을 전달하고 환담을 나누었다.

거리질서 캠페인 벌여



질서외식고취를 통한 외식개혁을위 해 본회는 전 직원의 근무자세확립을 공고히 다진데 이어 거리 질서확립 캡 페인을 빌였다.

지난달 21일 본회 전 직원은 시내광 . 교 로우터리에서 캠페인을 벌여 교통질 서 확립을 통한 새 외식정립을 도모하 는데 한 몫을 다했다.

이날 본회 직원들은 아침 7시30분 에 전원 출근, 러시·아워로 붐비는 로우터리에서 출근길에 바쁜 시민들이 안전하게 건널목을 건널 수 있도록도 와주고 각종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 해 관할 경찰서 교통경찰과 땀을 흘렸 다.

本部・서울支部 체육대회

본부 및 서울자부 체육대회가 지난 : 4 일 오후 잠실 고수부지 체육공원에 서 열렸다.

두분 교수는 본협회 경기도지부 안 양분소 회원들의 초청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것이며 안양분소 회원들과는 오래 전부터 자매결연을 맺어 유대판 계를 가지고 있다.

한편 4월24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렸 덴 대한건축학회 (회장 尹張燮)의 19 82년도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발표회에 서 石橋英一교수는 (에너지 절약에 관 하여〉에 대해, 그리고 山崎均교수는 (建設工學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각 각 특별 강연을 했다.



□ 자료 / 도서기증

" 감사합니다 "

□ 덴마크 大使舘

〈韓國実情에 適合한 融通性있는 住 宅建築〉은 덴마크 건축기술용역단이 덴마크 대사관을 통해 본회에 기증한 것이다.

동 기술용역단은 우리나라 실정애 맞는 주택건축에 대한 여러가지 샤례 연구와 이에 따른 평면도를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다. 주요 목차는 다음과 같다.

附加的 住宅単位・기본주택단위・장 래의 증축 및 개축 · 융통성있는 주택 工法・에너지 절약 - 열관리 · 난방설 비의 개선 - 태양에너지, 주택단지 • 융통성있는 주택설계시 고려 할 사항 둥이다.

□ 魔北工專 論文集

同校 제18집 논문집이 기증되었다. 81년도에 발표된 동교의 人文科學, 自

건축공학 분야의 논문으로는 "住宅」 의 단열설계 小考(1)" (李戊鎭교수)와 함께 기증되었다.

"Slab - Band Floor"의 最適復筋콘크 리트 단면에 관한 연구(1)"(金鍾聲 교 수) 등이 있다

□ 梨花의 뒤안길에서 / 金敬煥 著

본회 추대회원이기도한 저자가 30 여년간 梨花女大에 봉직하면서 건축 가로서 同校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者者는 책머리에서 "집짓고 길을 내 는 일들을 시작에서부터 마무리 짓는 데까지 일일이 손을 내다 보니 기뻤 던 일, 어려웠던 일, 그리고 보람스 러웠던 일들이 많아 이것을 틈틈이 적 어 두었다."고 밝히고 "그러나 누가 시킨 것도 아니건만 후일을 위하여, 후 진을 위하여, 단편적인 것을 하나로 묶어 책자를 만들어야겠다는 의무감 같은 것을 느꼈다."고 적고 있다.

내용에는 캠퍼스에 자리잡고 있는 여러 시설물들이나 이에 따른 건축계 획에 얽힌 사연들을 담담하게 적고 있 으며 저자가 직접 설계한 설계도를비 롯한 각종 도면을 한데 묶은 자료 모 음도 곁들여 있다.

한편 이 책과 함께 저자가 지난 80 然科學관계 논문이 모두 수록 되었다. 년 2월에 퍼낸 학교법인 梨花学堂 "体 育文化施設綜合計劃에 関한 研究"도

본부 및 서울지부 임직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채육대회에 서 具晩會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보다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가기 위 한 기회마련으로 체육주간을 맞아 대

회를 마련했다"고 말하고 협회발전을 위해 앞으로 더욱 분발해 줄 것을 당부

이날 대회에서는 2팀으로 나눠 축 구경기를 벌였다.

東南亞 各國의

建築團体를

巡訪하고[Ⅱ]

金 枝 泰 一 서울特別市支部 支部長

□ 필리핀 / 天惠의 나라

● 비 一行은 짧은 홍콩일청은 끝 내고 CX901편으로 11개의 주요 선과 2천여개나 되는 작은 선으로 이 루어진 세번째 방문국인 필리핀의 수 도 마닐라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예정시간보다 2시간이나 연착된 하오 2시경이었다. 연착된 까닭은 홍콩을 출발한지 1시간쯤에 여격기의 양쪽 엔진에서 하얀 연기 같은 것이 내뿜어져 결국 回航, 다른 항공기로 바꿔 타고 오느라 그렇게 된 것이다.

새삼 여행은 生死를 運命에 맡기는 超然함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되세겨 지는 순간이었고 지급도 그 때를생각 하면 아찔해 진다.

트랩을 내려서니 南國의 열기가 우리나라 초복 날씨같았다. 현대적인 화 신시설을 갖춘 공항건물을 신축하고 있 으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항건물은 흡사 돗때기 시장같이 붐비는 데다가 시끄럽고 불결해서 필리핀의 이미저가 퍽 흐려질 것 같아 이방인인 우리조차 우려가 되었다.

공항을 빠져나온 우리 일행은 안내 인의 차로 호텔을 향해 마닐라만의 연 안 고속도로를 달렸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야자수와 망고나무들은 오후의 무르익은 햇빛과 시원한 바닷바람 춤 추듯 흔들거리고 있어 陶國의 정취가 한결 더했다.

구시가자에 위치한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필리핀은 영어 사용국으로의 사소통에는 별로 불편은 없어 다행이 었다. 끝바로 우리 대사관에 전화를 해서 很參事官 (崔昌奎 前 韓國建築家 協會長의 親弟) 깨 우리 일행의 도착을 알리니 매우 반가워 하면서 이미 협회 에서 보낸 공문을 통해알고 있으며부 탁한 관계단체와의 협조사항도 주선해 놓았다는 것이었다.

오후 6 시경 대사관에서 추천해준 공식통역 검 안내인인 朴炫模(연대출신) 씨를 만나 그와 다음날 있을 필리핀 건축사 단체와의 희합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해 협약를 끝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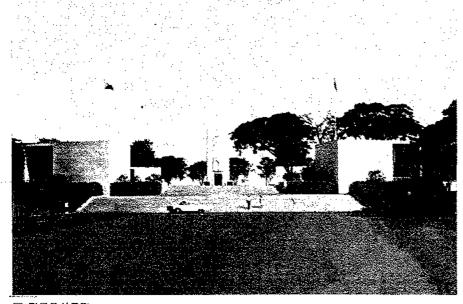
안내인의 말에 의하면 이곳 단체에 서도 대만에서와 같이 대사판으로 수 차에 걸쳐 우리 일행의 도착여부에 판 한 확인전화가 있었다고 한다. 대사판 에서는 나름대로 우리일행의 도착에 차절이 있을까 해서 신경을 쓰지않을 수 없었던 까닭을 알게됐다.

● 리는 피로를 풀겸 저녁노울이물 들어가는 해안도로를 산책하고 돌아오는 권에 필리된 프라자호텔 가 문휴계소를 찾았다. 연안에 정박한 선 박들을 바라다 볼 수 있는 위치에 자 리잡은 이 휴계소는 마닐라에서도 손 꼽히는 곳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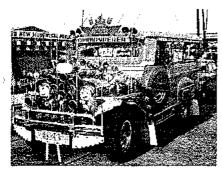
넓직한 정원에는 的國의 각종식물들이 조명동빛과 어울려 찬잔한 물견처럼 일렁이어 한총 분위기를 높혀준다. 젊음을 구가하는 청춘남녀들이 풀장을 누비고 있었으며 우리 일행은 열대 과일을 들며 피로를 풀었다.

각국 순방에 오른지 역세째밤을 마닐라에서 보내며 그간의 일들을 되새 겨 보았다.

다음날 우리는 약속한 시간에 맞춰 대사관을 찾으니 대사님을 비롯해 관 계직원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대사님은 전축에 관한 폭넓은 상식과,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건설부에 서 파견되어 와있는 李建設官은 필



□ 전몰용사묘지



□ 필리핀의 명물 "지프니"

리핀의 건설현황과 이곳에 주재하고있는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의 활동상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특히 이번 심방목적탈성에 많은 수 고를 해주신 최참사관의 필리핀에 관 한 얘기는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될만 한 귀중한 내용들이었다.

상오 10시30분에 이곳 건축단체인 사들이 기타리고 있는 곳으로 향했다. 잘 가꾸어진 정원 속에 필리핀 특유의 傳統様式(스페인풍)으로 된 2층 건물 에 그들이 기타리고 있었다.

현관에 불어있는 현판에는 "ARCH-ITECT CLUB" 이란 글자가 유난히 눈에 띈다. 우리일행이 안내된 곳은 중앙에 15명 가량이 앉을 수 있는 원탁테이블이 놓여있고 차분하고도 안정감있게 꾸며놓은 2층에 있는 회장실이었다.

정중하고도 따뜻한 영접을 받으며 자리를 함께하면서 인사를 나누고 이 어서 상호관심사에 대해 외견을 나눴 다. 참석한 人士들은 모두 8명으로 필리핀의 건축단체를 이끄는 핵심적인 인사들로서 건축사 5명과 대학교수 2명, 그리고 홍일점으로 여류 건축사 가 1명 있었다.

필리된 건축사 연합회 회장인 MR. 멘도자씨는 필리핀 건축계뿐 아니라 동남아 건축계에도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U.A.P (UNITED ARCHITECTS OF THE PHILIPPINES) 필리핀 건축단체도 중전에는 3개 단체가 있었으나 1979년 정부의 권유로 통합되어 지금의 연합최로 발족된 이래 많은 입적을 쌓았을뿐 아니라 국제교류에 있어서도 괄목할 만한 활동을 전개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민간의교의 큰 역할을 하고있다는 것이다. 이루합단체로 발족하는데 약 10년이라는 진통기간이 있었다고 한다. U·A·P가 주관하는 동남아제국

파의 국제회의만 해도 ARCASIA(A-RCHITECTS REGIONAL COUN-CIL ASIA會員國10개국), AAPH(A-SIAN ASSOCIATION FOR PLA-NNING AND HOUSING會員國 5개국)등이고 이밖에 세계적인 국제기구인 UNESCO, U, I, A, A. I. A 동과밀접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 목하U. A. P의 명예총재로는 필리핀정부의 환경청장관이머 마닐라특별시의명에시장인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의영부인 이멜다여사가 맡고 있다.

따라서 A. A. P. H의 국제회의 교류는 이벨다여사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러한 연합회의 활동 상황으로 상당한 지위에 오를 수 있으 때 폭넓은 활약으로 자기업무에 궁지를 갖고 얼마든지 작품활동을 통한 건축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어 우리의 실정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하겠다.

약 1시간30분에 결친 회담내용에서 흥미있는 이야기는 건축사의 품위보전에 관한 내용으로 蓄妾에 따른 건축사의 징제문제로 연합회로서는 골치를 앓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어떻게처리하느냐 하는 따위의 것이었다. 우리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하니 잘이해가 되지 않는지 머리를 갸우뚱하고 있었다. 그곳 사정은 우리네와 다른모양이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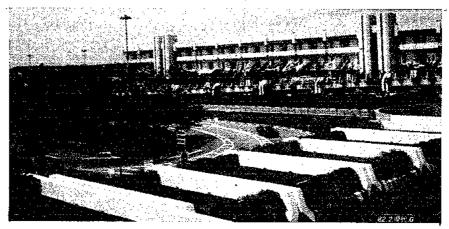
회담이 막바지에 이를 무렵 MR. 멘도자에게 홍콩건축사공화장인 MR. POON을 만나 좋은 의견을 나눴다고 하였더니 무척 반가워 하면서 ARCA-SIA의 회원국인 홍콩에서는 그가 대표적인 인물이라면서 그와는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누럽다고 전하며 성가풀에 가면 SIA(SINGAPORE INSTI-

TUTE OF ARCHITECTS)의 중추 적인 전축사인 MR SIM HONG BO-ON을 만나보고 심방에 따른 여러 가 지 협조를 구하라고 친절을 아끼지 않 있다.

특히 양국 단체간의 유대공고를 위해 ARCASIA나 AAPH가구에 가입 토록 권유를 받았으며, 그는 자기들 단체를 심방해 준데 대해 기쁘기 한량 없다면서 관계자료와 연합회에서 발간 하는 책자들을 기증받았다. 具會長의 환대에 강사한다는 인사말을 건네고 아쉬움을 남긴채 그곳을 떠나 차에 오른 것이 오후 1시30분경이었다. 참석 인사들은 한결같이 다시 올 때는 시간 여유를 많이 갖고 지역건축사회의 관계인사와, 50여명의 여성회원을 포용하고 있는 연합회 여성 위원회의 간부들과도 인사를 나눠 푹넓은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회망한다고 말했다.

고 식 스케쥴을 마치고 2차대전때 산화한 美軍의 전물용사 기념묘지 (THE AMERICAN MEMORIAL CEMETRY)를 찾았다. 넓고 푸른 잔디에는 이름모를 화초들이 불어오는 바람과 함께 살랑이고 보지 입구에우 뚝솟은 記念碑閣의 내부 흘 대리석벽에는 당시의 처절했던 전투기록이 새겨져 있었다.

기념탑에 부자된 人像들의 모습은 넓은 잔디속에 잠들어 있는 1 만 7 천명의 孤魂들을 달래주듯 조용히 기도를 울리는 듯 했다. 시내에 들어서니 2 차대전의 유품인 거리의 무법자같은 "지프니"(JEEPNEY)가 일정한 정류장도 없이 손님을 찾아 거리를 마구 누비고 다닌다. 짚차형 차량을 개조한 유리없는 창틀에다 外樣만을 요란하게 장식한 10인중인 이 자동차를



□ 싱가폴공항

시민들은 즐겨타는 듯 했다.

新市街地와 재개발지구를 다녀보니 근대화된 현대식 건물들이 SKY-LI-NE을 이루고 작건물의 형태 및 외관 은 필리핀 특유의 풍토에 알맞게 소화 되어 개성이 뚜렷한 것 같아 우리 일 행의 시선을 끌었다.

마닐라만 연안을 따라 매립한 넓고 시원스런 푸른 광장에는 필리핀의 현 대건축을 대표할만한 최신의 공공건 물들이 열대수목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어 돋보였다.

대사님과 필리핀의 현대건물에 관한 대화에서 꼭 견학하고라 추천받은 전 물로서 P. I. C. C(PHIL, INTERN-ATIONAL CONFRENCE CENTE-R)도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 건물 규 모는 국제회의는 물론이고 국가적인 옥대행사도 소화할 수 있는 규모로 집회장으로서의 기능과 설비시설을 갖 춘 이건물을 관심있게 견학했다.

3층 정도 밖에 안되는 건물높이에 DESIGN요소가 많지않아 단조로우면 서도 面構成의 비례가 잘맞게 조화된 外觀, 국제회의진행에 불편없도록 기능적으로 처리한 각종회의실과 부속실, 조금도 답답함을 느낄 수 없는 內部의 조용하고도 간결한 공간 처리, 군중들행동 행동 호름에 적합하고도 무리없는 동선처리 등에게 상당한 연구계획 끝에 이만한 작품이 창조되었으리라 느껴졌다. 특히 마감 관계자료는 사치하지 않을 뿐더러 절감 그대로의 소박한 표현수법이 오히려 결조높은 건물로서의 면목을 보여 주고 있었다.

우리나라 세종문화회관과 같은 유사성은 있으나 이 건물과 비교할 때 여러모로 거리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이 건물 이외에도 이 광장근처에 산재하는 건물로 건물형태를 自然換氣 방식을 위주로 하여 다이내막한 構造美를 강조하고 1만여명을 수용할수 있다는 민속극장이 있다.

트 른 전물역시 개성이 뚜렷하고 구조미와 디자인미가 조합된 필리 可文化館과 공업전시센터 등을 돌아보고 석양병인 오후 6 시30분경에 호텔로 돌아왔다.

우리 일행은 필리핀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기 위해 마닐라의 번화가를 찾았다. 우리네 생활감정과는 다른 필 리핀人의 특유의 기질이랄까? 인생 을 옌조이하기 위해 짝을 지어 그들의 정열을 불태우기 위한 장소를 찾아 거 리를 해맨다.

곳곳에 사진만이 걸려있는 HOLDA-Y SHOW GIRL의 油頭粉面의 미소진 얼굴들이 우리 일행의 눈길을 끌었다. 스페인의 지배(380년간)와 미국의 지배(약50년간) 등 오랜 식민지 치하에 있다가 2차대전의 충전으로 완전 녹립국가가된 필리핀의 역사로 미루어다소 落後性이 보였지만 전혜의 지하자원과 낙천적이면서도 성실한 국민성으로 머지않아 선진국으로 탈바꿈이되라 여겨진다. 이곳 건축단체 인사들의 권투를 빌며 필리핀을 떠났다.

□ 싱가폴 / 초원의 도시

12일 이론 아침, 우리 일행은 PR 5 0I 편에 몸을 실고 약 3시간만에 예정된 도착시간대로 상오 11시경에 인구 250 만의 중국계 나라인 섬나라 싱가 풀의 국제공항에 닿았다.

국제적으로 수준급인 공항건물을 알 퍼 보았다. 出入國에서 오는 혼잡성을 피하고자 합리적으로 잘 처리된 動線, 시원스러우면서도 造形, 으로 아름답 게 構成된 内部空間과 사용자 위주의 제반시설들은 우리 전문인으로하여금 관심을 끌게하는데 足한 건물이라 하 겠다. 정가돌은 여러모로 홍콩과비슷 한 바가 많다고 생각된다.나라라고하 기보다는 都市國家라는 표현이 알맞 을지 모르겠다. 부존자원도 없으면서 국제무역면에서 또는 공업화 계획으로 서 아시아에서는 가장 높은 소득수준을 을리고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차이가 있다면 홍콩이 영국의 식민지인 반면 에 싱가풀은 완전한 독립국가(1965. 5월독립-말레이지아로부터)이고 보 면 추권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생을 마 음껏 향유하고 있다고 하겠다.

CHANGI 국제공항에서 잘다듬어진 고속도로를 따라 시내로 들어가는 차 창 밖에는 잘 정리된 도시지설이나 아파트 전불이 마지 공원속을 달리고 있는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했다. 말로만 들던 초원의 도시임을 다시한번 실감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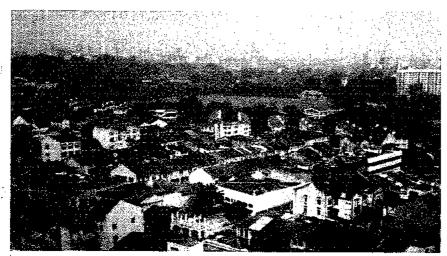
이 일행은 예약된 PRESIDENT MERLIN HOTEL에서 집 보따리를 풀었다. 이곳에 오는 길에 택시 운전사의 말이 강하게 떠오른다.

즉 오늘의 성가풀이 있기까지는 국민들의 준법정신이 일절음이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대사관에 전화를 걸어 우리 일행의 도착을 알리고 하오 3시경 SCOTTS ROAD에 있는 대사관을 심방하였다. 대사님은 출타중이라 유명하서기관을 만나 건축단계와의 협외플과를 알아보니 필리핀의 경우처럼 순조롭지 못한 것 같았으나다행하우리 일행의 심방을 받어줄 수 있는 단채와의 연락이 되어 있다는 말을들고 안심이 되었다.

유서기관의 말에 의하면 협조공문은 이미 받아 보았으나 처리해야할 공관 업무에 쫓기고 또 이곳 건축단체와 전혀 접촉이 없던차에 이를 주선하고



□ 싱가폴의 아파트群



□ 싱가폴의 구시가지

자 사방으로 탐문하느라 힘이 들었다 는 그간의 경위 설명을 듣고 오히려 많은 수고를 해주신데 대해 고마움을 급치 못했다.

다음난 다시 찾기로 하고 시내를 본 아 보기위해 중심가의 인파 속에 휩쓸 텼다. 중국냄새도 풍기는듯 했으나 대체로 서구화된 도사경관이었고 줄비 한 고충건물은 하나같이 독특한 형태 와 개성디를 지닌 현대감각이 충일된 건물들이 각기 높이를 자랑하듯 치솟 아 있었다. 한마디로 건물들이 많았 다. 영어가 공용어인 싱가폴의 시민 들의 표정은 한결같이 밝고 활력에 넘쳐 보였다.

특히 국민들의 75%가 중국계라 그 먼지 異國에 여행온 기분이 들지않을 정도였다.

이 조그마한도시국가가 강력한 공업 국으로서 발전한 요인은 중국인의 상술과 근면성에 있었고 오랜 영국치 하의 축적과 유럽, 중동 그리고 극동 을 연결하는 중간지점이라는 지리적 인 이점을 최대로 활용한테 있다고 생 각되었다.

숙소로 들아오는 길에 색다른 저녁 식사를 들고자 근처에 있는 중국식대 중식당에 들어가 그들이 즐겨먹는 식 사를 시식해 보았으나 구미에 맞지않 아 포기하고 말았다.

송충이는 출잎을 먹어야 한다는 속 담처럼 우리는 한식을 먹어야 되겠다 는 것을 결감했다. 토요일의 햇살은 유난히도 눈부신 것같았다. 약속된 시 '간에 대사관을 찾아 대사님을 만나뵙 고격의없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유 서기관의 안내로 이곳 건축사공회인 S. I. A를 심방했다.

公會의 관계인사로 MR. EOWIN CHOO를 비롯한 5 인이 우리 일행을 환영해 주었다.

우리의 순방목적은 양국 단체의 공동관심사에 대한 협의 및교류를 위한 것이라는 具會長의 인사발로 시작된회담은 약1시간30분가량 화기에 찬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마닐라에서 MR.엔도자가 소개장까지 써준 S. I. A의 국제 담당인 MR. SIM HONG BOON은 해외여행 중이라 만나지 못했다.

를 짐작케 된다.

회담이 끝날무렵 우리 일행이 언고자하는 관계자료와 公會에서 발간된 책자를 기중받고 기념촬영을 마친 후 公會에서 운영한다는 상설건축자재전시관을 들아 보았다. 진열된 자재견본은 대부분 외국에서 생산된 것들이었다. 불론 원자재를 수입해다가 가공한 2차제품도 눈에 띄었다.

'제품류는 주로 내장재와 외장재, 위생기구, 주방기구 기타 전기기구 등다양했다. 우리 협회에서도 이러한 방식의 상설전시장이 마련되야 할 것같다.

앞으로의 교류를 보다 활발히 할 것을 다짐하는 굳은 악수를 나누고 우리 일행은 그곳을 떠나 돌아오는 길에구 시가지의 재개발지구를 들아보았다. 아 파트 건설공사가 한창인 반면에 개발 이 미치지 못한 곳에는 전통적인 중국 풍의 많은 민가들이 초라하게 버티고 있었다. 협소한 국토와 심각한 주택문 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싱가 폴의 주택사업정책은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앞으로의 주택사업 을 위한 단지확보작업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견해를 들었다. 아시아 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풍요한 불질생



□ 재개발사업이 한창인 싱가폴

▶ 가폴에는 건축공학을 공부할 수 있는 대학이 1개뿐이고 교수들의 반수 이상이 외국인이라 한다. 수학년한은 5년이며 건축사가 되자면 국가시험제가 아닌 정부의 자격검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개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건축에 관한 연구또는 면학을 위한 대학원교스는 선진국인 구미제국에서 하고 돌아온다고 한다. 이로 미루어 보면 상가폴의 건축사들의 자질과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활을 누리고 있는 싱가볼을 재확인하고 그들로부터 우리는 무엇인가를 배워야 할 것 같다고 곰곰히 생각해 보았다.

우리 일행은 꽉짜여진 일정에 쫓기다 보니 성가풀의 관광명소 사연은 다음기회로 미루고 다음 순방국인 THA-ILAND의 방콕을 향해하오 2 시15분에 출발하는 SQ68편에 몸을 싣고, 도시국가인 싱가풀의 무한한 발전을 빌며이곳을 떠났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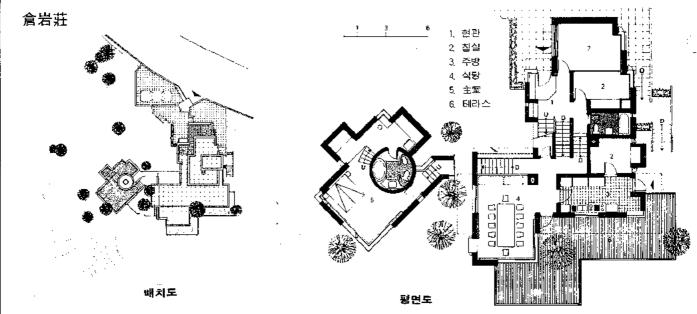
金壽根씨 AIA 명예회원에 추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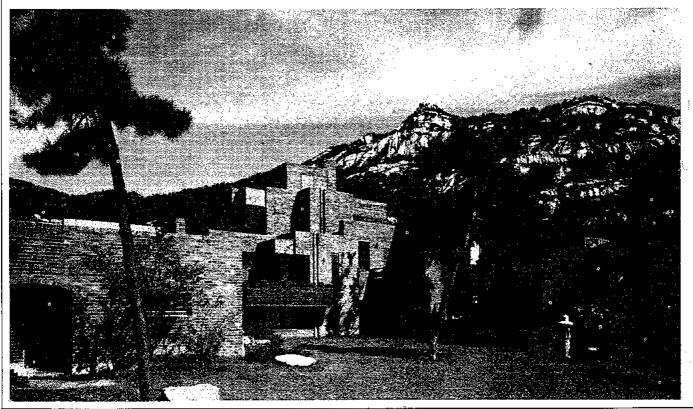
세계 頂上級건축가 10명과 함께

본회 金壽根회원(주·공간연구소대 표)이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AIA(미 국건축가협회)의 명쇄회원으로 추대 되었다.

오는 6월6일부터 10일까지 호놀 루루에서 개최된 AIA年次大會(총회) 에서 명예회원이 되는 金灣根회원은, 125년의 오랜역사를 지닌 미국건국가 협회가 해마다 세계의 건축발전에 크 게 공헌한 외국의 건축가 가운데 10명 을 선정, 이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金灣根회원이 명예회원으로

金壽根회원作品





추대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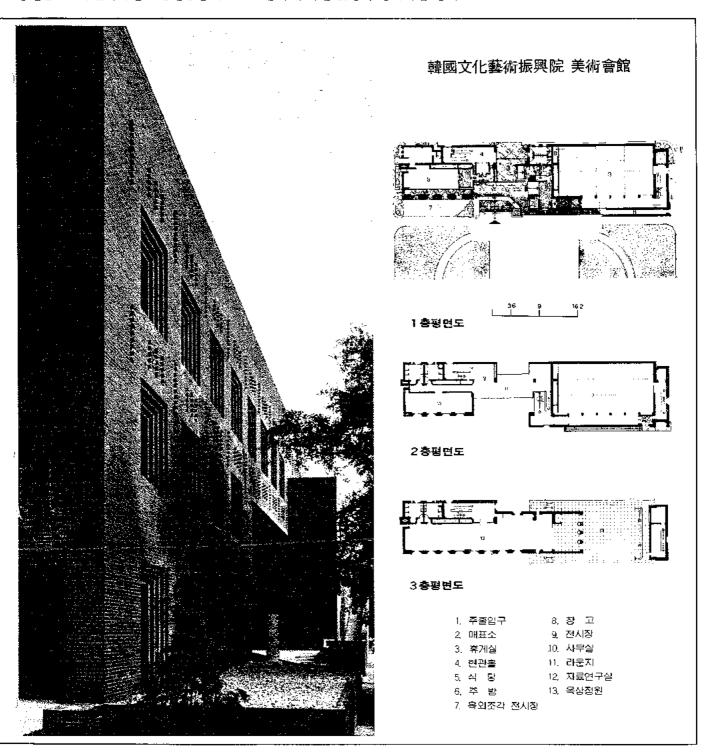
AIA 명예회원의 선정기준은, 현재 AIA 회원인 건축가가 미국에서 활동 중이 아닌, 미국인 이외의 외국인을 추천하여 신청시를 제출하면 AIA 이사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金薪根회원은 필라델피아에서 활동 중인 건축가 Louis de Moll AIA 회원의 추천을 받아 명예회원에 추대되었다.

60년대에 국회의사당 현상공모에서 당선됨으로써 본격적인 작품활동을 시 작한 金ങ根회원은 20여년의 建築生 涯를 통해 우리나라 建築史에 길이 남 을 大作물을 창조해 냈다.

역바탄 '75(이란·75) · 알보즈 '76 (이란·76년) · 서울종합운동장의 주 경기장과 실내체육관(77년) · 마산성 당 및 해외개발공사 사옥(79년) · 강원 도 어린이회관(80년) · 문예진홍원의 전시장 및 공연장(81년).

그외에도 金瓣根회원은 크고 작은 국내외 건축물 250여진을 설계해 냈다. 올해 추대된 10명의 명예회원 중에 는 金壽根회원을 비롯하여 프랑스의 종괴두 센터를 설계한〈렌조피아노〉 씨 등, 세계의 정상급 건축가들이 포 함되어 있으며 金壽根회원은 71년도 에 AIA하와이支部에서 주는 법태평 양건축상을 수상한바 있어 AIA와는 오래 전부터 인연을 맺어오고 있었다.

金壽根회원은 오는 6월조, AIA 年次大會에서 명예회원증을 받기 위해 미국으로 떠난 예정이다.



/프리즘/

'88서울夏季올림픽 有感

崔 昌 奎 — 신진건축 대표

작년 9월말, 서독 라인江 상류의 한적하고도 작은 都市〈바덴바덴〉에서 날아온 速報는 우리 全國民을 열광의 도가니 속으로 물아 넣었다.그것은다 름아닌 제84차 I.O.C. (국제올림픽위 원회) 총회에서 1988년도 하게 근대 올림픽 개최지가 우리서울로 결정되 었다는 소식때문이었다. 그것도 경쟁 상대가 일본의 나고야였고 투표결과 또한 27:52라는 압도적인 득표로 결 정되었다는 것은 세계 각국이 우리의 國力을 인정했기 때문임은 물론, 더욱 통쾌했던 점은 국제 사회에서의 北傀 의 입장에 치명적인 일격을 가한 外交 優位를 확인했다는 점이다. 아울러 늘 상 傲慢不遜하던 일본에게 우리를 다 시 보게한 國民感情의 폭발로서 우리 는 열광했고 쾌재를 불렀으며 거리에 서,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함성 올 올랐던 것이다.

텔리비전에 나타난 會證場에서의 극적인 발표 순간과 환화에 찬 우리 대표단의 의기양양한 모습을 우리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또한 김 포공항에 도착한 대표단의 늠름한 모습을 보고 누구나가 〈참 잘해냈다〉, 〈자랑스럽다〉를 연발했던 것도 기억하고 있다.

대체 〈올림픽〉이란 무엇이기에 이 렇게들 흥분하는 것일까.

두말할 것도 없이 올림픽은 人類平和를 상징하는 지구상의 모든 인류의 대축세이기 때문이며, 그 나라, 그 민족의 力量을 가능하는 저울이고 그 민족의 전통과 문화를 全人類 앞에 진사하는 一大饗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러한 기회를 얻기란 그리쉬운 일이 아니며 특히 세계가 그 나라의 國力의 尺度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도저히 얻어낼 수 없는 기회이기 때문에 더욱 의의가 깊다고 할 수 있다.

하여간 우리는 88년에 올림픽을 개 최해야만 한다. 그리자면 우리는 먼저 올림픽을 이해해야겠고 특히 그 역사 와 정신에 대해 살써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고대 회압은 아테네를 비롯하여 여 러 都市國家로 형성되어 있었으며 철 학·종교·정치·문화면에서 으뜸가 는 국가였다. BC 900년대에서부터 700년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조각 • 전축 · 회화 · 음악 · 문학 · 무용 · 체육 부문 에서 어느 민족이나 국가들 보 다 융성했고, 그들은 진정한 人類文化 란 육체와 정신이 병행하여 발전할 때 만이 이루어 진다고 생각했으며, 특히 전전한 육체에서만이 전전한 정신이 깃든다고 믿고 있었다. 따라서 육체 의 단련이 몹시 重視되었고 壯健한 육 체가 美의 표현이 되어 조각ㆍ회화ㆍ 시 등으로 찬미되어 왔으며, 한편 채 육을 숭상하여 國民体育, 즉 國力으로 간주해 왔다.

각 都市國家들은 BC 770년대부터 交替해 가면시 체육대회를 열어 인간의 채력·지혜·글기를 겨루었으며, 그것을 인류의 평화와 人類文化構築에 이바지하는 일로 삼고 이 대회를 종교적인 神聖事로까지 발전시켜 진정한 화합과 평화를 대회의 정신으로 삼았다.

1776년, 프랑스의 리차드 찬드라가 고대 회합의 올림픽 유적을 발견했고 약 100년 후인 1876년에 프랑스의 主 導로 유적지를 완전 발굴하여 그 전모 를 이해하게 되었다.

1893년에는 프랑스의 피엘 꾸벨당 男爵이 고대 회람의 올림픽 정신에 입각하여 全人類가 연대의식을 가지고한 장소에 모여 채력과 지혜와 술기를 거루는, 소위 근대올림픽의 대축제를 세창, 3년 후인 1896년에 제1회 근대 올림픽 경기가 유서깊은 발상지인 희람의 아테네에서 13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20여회의 올림픽 축제가 개 최되었고 여러가지 사고도 뒤따랐다.

예를 들면 4회·12회·13회가 전쟁 등으로 인해 중단됐었고, 정치ㆍ사상 에 관계없이 전인류의 대향연이라고 했으면서도 인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승부욕이나 국가 사이의 미묘 한 감정들이 노골적으로 나타나 불미 스러운 일들도 많았다. 그러나 상호 협력 아래에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 고 있으며, 도중에서 創始者인프랑스 의 꾸男爵은 1906년〈예술・문학・체 육)이라는 국제회의를 열어올림픽 행 사 때 체육과 관계되는 건축 · 극예술 ·문학·음악·회화·조각 등을 또함 시켜 경연할 것을 제외한으로써 1912 년 제 5회 스톡홀름大會 때부터 실시를 된 예가 있었고 각국마다 그 방법과 様式은 다르긴 하지만 藝術分野를 포 합시켜 진행해 왔다.

그것은 베를린大會 때의 기록영화인 〈民族의 祭典〉마 〈美의 祭典〉이라는 2전의 영화에서 우리는 체육과 예술의 화합된 진행을 볼 수 있다. 그리고 思想的 사고로서는 만한 大會時에이스라엘 선수단 숙소를 습격한〈집은九月団〉 사건을 들 수 있으며 멜버른 大會時의 항가리와 소련 水球시합에서의 난투극을 들 수 있고, 가장 가까운 예로서는 1980년의 모스크바 大會때 자유진영의 많은 국가들이 불참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또 한가지 우리가 올림픽을 이해하 기 위해서는 올림픽 개최가 國家나 民 族別이 아닌, 都市單位라는 것을 알아 야 한다. 울림픽의 발상부터가 그러 했드시 시초는 都的国家間의 경기에서 부터 비롯되었고 그 정신에 따라 정치 ㆍ사상을 초월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민족을 내세우기보다 개최되는 都市會 다 더 비중을 두게했던 것이다. 그러 나 행사의 규모가 너무나도 크고국가 와 민족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는 점 을 잡안하여 國力이 적은 나라는 全國 力을 경주해서 치루고 있는 경향인 것 으로 보이나, 1984년 개최도시인 로 스엔젤리스의 경우만 보더라도 3회의 센트루이스, 10회의 '로스엔젤리스까 지 합치면 세번이나 치루게 될 미국의 입장을 보면, 全國家的이 아닌 한 都 市가 權主가 되어 개최한다는 뜻에서 한 都市의 거대한 力量이 한 국가의

적은 力量과 대통하다는 것을 알 수있 다

여기에서 우리들의 전문분야인 建築 界의 입장에서 본다면, 近代建築史的 촉면으로 생각할 때 근대건축 발전에 획기적인 역할을 한 것은 역시 세계박 람회와 국제올림픽 경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세계박람회는 동일 장소에 각국의 建築技術이나 그 수준을 과시하는 전시장의 역할을 했지만, 올림픽大會는 개최국의 건축수준을 반인 앞에 과시하는 장소가 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오늘날 세계적인 建築物 중에서 체육시설인 경기장 건물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만보아도 이해가 갈 것이다. 특히 경기장 건축은 그 규모가 거대함으로 建築構造의 발전에 커다란 계기가 되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본다.

이상과 같이 충고한 정신과 10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진 근대올림픽大會를 88년에 서울에서 개최하게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흥분할 일이지만 흥분만 하고 있을 때만은 아닌 것 같 다. 왜냐하면 전국민의 지혜를 모아 燧代 어느 올림픽보다 멋지고 內實的 인 대회로 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우려야 하며 또한 建築人으로서 외 견이나 견해가 없을리도 없기 때문이 다

물론 建築人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연대의식을 가지고 성실과 최선을 다한다면 어느 대회 못지않은 한국 특유의 대회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올림픽의 제반 규정에도 행사의 진행·순서 등에 별다른 제약이 없고 자유롭게 개최도시의 재량에 맡기고 있으므로 전국민의 이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하면 기발하고 멋진축제의 순서나 인류 최대의 대향연의 분위기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민는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개최적이 나 폐회식의 案出, 觀火의 奉迎送의 절차나 노선 및 도중의 뜻있는 행사, 그리고 각종의 표어나 슬로건의 기호, 標識板의 도안, 각 진행원과 안내원의 제복이나 복장, 그리고 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의 案과 意見을 널리 공모 하여 선별함이 옳은 것으로 생각된다. 6 년여라는 세월이 이 엄청난 행사준비의 시간으로서 그렇게 긴 것은 아니지만 분담된 각 부문별로 침착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요즈음 올림픽大會와 판계되는 무슨 위원회, 무슨 무슨 후원회 등의 많은 기구가 생겨났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은 그 많은 기구 속에 전문가로서의, 또는 綜 合家로서의 建築家가 과연 몇명이나 참가하고 있는가 하는 집이다.

우선 施設面에서의 建築分野의 참여는 당연하다고 하겠지만 전반적인 계획이나 부분적인 案出 등은 내체 어떤 分野에서 할 것인가. 이려한 걱정이 나만 우리들의 杞憂였으면하는 바람은 어쩔 수 없이 크다.

우리는 萬事에서 時間性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않은 것 같다. 에를 들어 국가대표선수들의 육성훈련에서도 6 년 후라는 時間性을 빠트려서는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선수들의 연령으로 만 보아도 현재의 고교선수들이 대회 당시의 주역이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 실이기 때문이다.

6년 여상의 시간과 함께 박대한 자 · 노력을 쏟아 넣어야만 하는 거대 한 행사이지만 박상 시작하면 15일간 의 행사로서 막을 내리게 된다. 祝宴 이 요란하면 요란할수록 끝난 다음에 는 허탈에 빠지기 쉽다. 때문에 우리 는 폐회 후의 일을 생각치 않을 수 없 다. 체육부가 선설되었으니 폐회 후의 많은 일들을 그곳에서 마땅히 처리할 것으로 믿으나 한가지 바라고 싶은 것 은 서목의 에를 들어 우리도 많은 시 설들을 국민체육발전의 요람으로 활 용학 수 있도록 國立體育大學의 창선 올 주장하고 싶다. 그것은 모든 시설 올 체육대학의 소판으로 하여 관리ㆍ 운영시키자는 것이며 이용은 체육대 학뿐만 아니라 全國民에게공개하자는 것이다. 때문에 아직 建設되지 않은 시설은 폐회 후에도 영구히 이용할 수 있는 계획 아래에서 15일 동안은 약간 의 불편이 있더라도 국가의 장래를 꼬 려하여 設計建設하자는 뜻이다.

이더한 생각은, 현재 공고 중에 있는 올림픽組織委員會 건물의 현상설

제 내용을 보면 조직위와 제육회가 포함되어 있으나 조직위의 규모가 더 크고 체육회는 마치 부수져인 인상을 주교 있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데, 처음부터 체육회 건물로 挑設 하여 대회가 끝날 때까지는 조직위가 사용하고 그 후에는 체육회 건물이 되는 방향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며만 일 체육대학을 가상한다면 體育大學 縮으로 설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 을까 하는 느낌이 돈다. 또는 선수촌 이나 프레스 센터, 기자촌 등등을 고 려하여 폐회 후의 이용가치에 대해서 도 신중을 기해 기획되어야 마땅하다 고 본다.

이상 개괄적으로 순서없이 분득 문 득 떠오르는 생각들을 나열해 보았다. 전반적으로 요약해 보면 6 년여의 투 자와 노력은 단 15일간의 행사를 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절대로 과장이나 우리의 분수에 넘치는 무리가 있어서 는 안될 것이다.

각 해당부서에서는 專門家들의 참여가 요구된다. 모든 기획이나 案出 중,全 國民에게서 공모할 수 있는 것은 공모 하여 선택했으면 한다. 문제해결에 時 間性을 영두에 두자. 폐회 후의 장기 利用計劃을 세워 전반적인 추진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행히도 84년의 로스엔젤리스大會 는 좋은 참고가 될 것이며, 86년의 아 세안 게임은 적절한 예행연습이 됨과 동시에 우리에게 자신감을 갖게할 것 이다.

하여간 우리는 88년엔 인류의 大稅 祭를 치뤄야 할 숙명적인 입장에 놓여 있다. 때문에 전국민은 힘과 즐기와 정성을 다해 歷代 어느 대회 보다도 훌륭한 대회로 성숙시켜야만 한다. 그 럼으로써 세계는 우리를 다시 인식케 될 것이며 세계 속의 韓國, 인류 속의 韓民族이라는 궁지와 자신과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올림픽精神은 인류평화와 화합,그리고 인류문화의 창달에 있다. 따라서 韓民族이 얼마나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인가를, 얼마나 文化民族인가를 과시할 수 있는 역사상 일짜기 없었던 절대적인 기회라는 것을 꿈에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教会建築、ユ 形態와 様式의 類型

金 正 秀 - 延世大學校 教授

CHURCH AS FORM AND STYLE

Kim, Jung Soo - College of Engineering YONSEL University Professor

■ 教會建築의 史的考察

로마帝國에서의 초기 기독교는 심한 박해로 인하여 분묘로 사용되던지하의 카타콤 (Catacomb) 이라는 토굴속에서 선교사업을 하여 왔다. 서기 313년, 로마의 황제 몬스탄틴(Constantine)에 외하여 기독교 신앙이 허가됨으로써 기독교는 지상으로 나와 敎會建築이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③ 初期의 基督教教會樣式 (Early Christian Style) ——4~12世紀

기독교가 공인된 후 敎會建物로서 당시 로마都市의 바실리카(Basilica) 를 敎會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進 一步하여 中庭을 둔 敎會建築이 나오 기에 이르렀다. 舊 聖페터寺院(St. Peter. Rome AD 330)이 그 좋은 예 이다.

⑤ 비잔틴敎會樣式(Byzantine Style)—— 324년~15世紀

구교인 회합正教會(Greek Orthodox Church)의 建築樣式이라고 할 수 있으며, 正方形 혹은 등변 십자가(Greek Cross)의 평면에 도움(Dome)을 올려놓은 형식으로서 도움 하부는 펜던티브(Pendentive)의 曲面形이 받치고 있다. 예로서는 산타 소피아教會(Santa Sophia Istanbul, AD 532~557)를 둘 수 있다.

ⓒ로마네스크敎會樣式 (Romanesque Style)—— 8~12世紀

로마를 중심으로한 西方 天主教會의 建築樣式은 각종의 繪画·彫刻 등을 敎會內部에 사용하려는 노력을 하여 天障도 아치 (Arch) 形으로 꾸미게하는 樣式을 낳게 하였다. 平面에 있어서도 바실리카樣式에서 라틴 십자가 (Latin Cross) 形의 트란셉 (Trancept)이 딸린 敎會가 시작되었다.

또한 스테인드 글라스(Stained Glass)가 創案되었다. 外形에 있어서도

연속 아치로 裝飾하였으며 입구 上部에 圓形窓이 유행이 되었고, 이러한로마네스크樣式이 고딕 Style의 初創 脚라는 감을 여실히 주고 있다. 피사 (Pisa) 寺院과 성 미켈레寺院(St. Michele)이 그 예이다.

① 고 引教會樣式 (Gothic Style) —-12~16世紀

로마네스크樣式의 매우 세련되 것 이라 할 수 있으며 아치의 形態가 半圓刑에서 三角形의 포인티드 아치 (Pointed Arch)로 변하여 裝飾됨으 로써 수직을 강조하게 되었다. 의 분위기에서 上部의 하늘을 우러려 보는 엄숙한 분위기는 Pointed Arch 불 이용한 리보(Rib) 볼트(Vault)를 천장에 응용하고 壁이 外部로 벌러지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버트레스와 후 라잉 버트레스 (Flying Buttress)를 사용함으로써 마음껏 垂直方向으로 높 일 수 있었다. 또한 스테인드 글라 스를 상당히 많이 이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고딕의 樣式은 基督敎의 制度 ㆍ樣式 등에 이르기까지 정리되어 감 으로해서 基督敎敎會를 대표할 수 있 는 全盛時代의 建築여기도 한 것이다. 各國의 주요 고딕敎會는 노틀담교회 (Notre Dame, Paris 1196~1214). 랭스교회 (Rhein's Cathedral, 佛 1212 ~1241), 웨스트민스터교회 (Westminster Abbey. 英 1055~1512), 괴른 대교회(Köln, 獨 1278~1880) 등이 있

@ 르네상스敎會樣式(Renaissance Style) ---- 15~17世紀

古典을 연구하려는 文藝復興運動에 힘입어 오랜동안의 教會制度와 고딕 建築樣式의 不自由한 制限에서 벗어나 古代 로마 회합 時代를 동경하고 그 裝飾의 再規과 비잔틴樣式에서 사용해온 도움을 그 中央部分에 올려 全

體的인 웅장한 균형을 이루었다. 고딕의 수직에 반하여 水平線을 강조하게 함으로써 敎會建築의 번혁을 가져온 것이다. 이는 宗敎界에서도 마틴 루터의 一大 改革運動이 일어남으로써 새로운 新敎의 작종 敎派가 생기계 되어 르네상스의 樣式은 바로 루터의 宗敎改革運動을 전후한 시기에 발생한 建築樣式이기도 한 것이다. 그 예로는 로마 법왕청으로 쓰이는 聖베드로 敎會(St. Peter)가 대표적이다.

①바로크教會樣式(Baroque Style) 各國의 時代的인 차이는 있으나 대 체로 1600~1700年代의 르네상스樣式 의 延長이라 하겠다. 壯大하고 화려하 게 되며 內部에 彫刻과 장식이 유난히 많다

그 예로는 로마 觀베드로教會의 네이브(伊. 1607~1615), 聖파울대교회당(St. Paul London 1675~1710)이었다.

⑧로코코教會樣式(Rococo Style) 르네상스와 바로크樣式의 延長이라 할 수 있으며 바로크樣式을 加一層 優 美, 심세히 만든 裝飾第一主義의 建 築樣式이라 할 수 있다. 時代도 各國의 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대체로 1700~ 1800年代 建築이다.

古典主義 教會様式 (Classicism) 7700~1870年

古典主義의 再生이라고도 부르며, 바로크・로코코의 許多한 裝飾에 대한 反動으로 純이집트와 로마의 正直한 古典式의 再生樣式이라 하겠다. 프랑 스 파리의 마데 랜敎會(Made Lein, Paris 1762~1820)는 純로마 建築樣 式의 敎會이다.

① 呈 吐主義 教會樣式 (Romanticism) — 1800~1900年

나폴레옹의 暴政에 반대하여 일어 난 自由主義·國民主義 등과 아울려 革命 후의 厭世的인 感像主義를 同伴 한 일종의 고딕 Style의 再生이다.

産業革命에 의한 現代建築의 새로운 樣式을 발견 못하고 곤궁에 빠진 建築樣式이며 古今東西의 각종 樣式을 任意星 混合한 것으로서 런던의 웨스트인스터敎會(Westminster Cathedral·London 1895~1903)가 이에 축한다.

® 近代教會樣式(1900~ 第二次大職前)

마틴 루터의 宗敎改革 이후 각종 基 督敎派가 생기고 20世紀의 科學的 발 달은 基督敎의 迷信的 요소를 제거하 7 ユ 社會事業・福音傳導・ 宣教事業의 성과를 올리게 되었다. 敎會建築도 鐵 ·유리·콘크리트 등 新材料에 의한 新建築構造法의 發達과 윌리암 모리 스(William Morris) 를 위시한 각종 新 工藝 美術運動의 영향과 民主主義者 지향하는 社會要求에 보조를 맞추어 中世의 敎會 至上主義로부터 차츰 人 間生活의 精神的 求援의 場所呈科 役 割을 하는 方向으로 轉換을 보게 되었 다. 에로는 Otto Wagner의 Steinhof 教會(獨), A&G Perret Notre-Dame de Raincey 등이 있다.

① 現代教會樣式(第二次大戰이후~) 고도의 科學이 급속도로 발전함으로써 敎會의 建築에도 차츰 構造力學的 新工法·新材料를 응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敎會建築史는 新舊敎를 통하여 敎會建築의 일정한 樣式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建築家는 機能과 各數派에 의한 儀式上의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創意性을 발휘할 수있게 되었다. 과저의 觀念에서 벗어나 敎會의 機能과 이에 적합한 構造,材料의 선택과 美學의 理論的 근거에 입각한 經濟的인 現代建築樣式의 觀念이 確立되게 되었다.

이러한 現代的인 관점에서 敎會建築 은 새로운 감각의 空間을 창출하였다. 이는 儀式的인 흐름에 의한 것으로 서 과거의 平面을 이용하여 높은 天 障과 Basilica式 平面을 가진 종적인 (Longitudinal), 황적인(Transversal) 空間과 사제와 교인과의 관계, 제단을 향한 求心的인 儀式行事를 위한 집중 적인 (Centralized) 空間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다양한 平面構想에서 神 올 향한 仰天的인 信仰心은 조형적인 建物 속에서 자연의 신비로운 빚을 도 입함으로써 내부의 장식을 엄숙하게 이 끌어 내었다. 內部空間의 다양함과 마 찬가지로 外的인 要素 역시 추구하는 形態가 추상적인 (Abstract), 기하학 적인(Geometric), 초과학적인(Ultra Scientific) 美의 創出에 관심이 깊어 졌 다. 이의 대표적인 예로는 Le Corbusier의 Ronchamp教僧, Tenge Genzos St. Marys Cathedral, Timo & Tuomo Suomalainen Pl Taivallahti 教會, Philip Johnson의 Garden Grove Community Church 등이 있다.

■ 教會建築의 代表的인 類型

④ 노틀甘寺院(Notre Dame, Paris 1163~1214)

파리의 노틀답은 고딕建築으로는 最 古의 것으로 1163 ~ 1214年 사이에 완성되었으나 追命時 화괴되었으며 1849~1879年 비오레 르 듀크(Violet Le Duc)가 현재의 建物로 복구한 것 平面을 살펴보면 폭 47m, 길이 128m, 中 央의네이브 높이는 약35m가 되며 Transept의 돌출이 적어 아임과 거의 一直線이 되어 있다. 3개의 현관 출 입구에는 Pointed Arch로 입체감있게 들여 쌓았으며 중앙 上部에는 직경 약 9m의 Rose Window가 있고 좌우 두 개의 큰 탑 위에는 과거에 Spier가 있 었었다. 측면의 후라잉 버트레스(F~ lying Buttress)가 돌출하여 있으며 그 下部에 예배실이 위치하고 있다.

⑤ 聖괴**터寺院(St. Peter. Rome** 1667)

가장 유명한 르네상스樣式의 敎會로 서 現 교황청으로 사용되고 있는 로마 의 聖피터寺院은 起工後 120年만에 완 성을 보게 되었다.

建物은 길이 120m, 폭 180 m, 천장 높이 45m이며 最高部의 높이는 실로 어마어마한 120m의 大教會 건물이며 前面은 타원형의 柱廊으로 둘러 막은 大庭園에 싸여 있다. 이 건물은 오랜 세월을 두고 建築된 관계로 르네상스 様式에서 출발하여 후에 오는 바로크 様式에 걸친 建築樣式이라고도 할 수 있다.



上틀담寺院(Notre Dame, Paris 1163~1214)



聖피터寺院(St. Peter, Rome 16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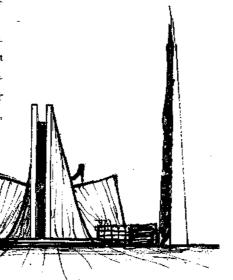
노물담 듀 오오

ⓒ)노톨담 듀 오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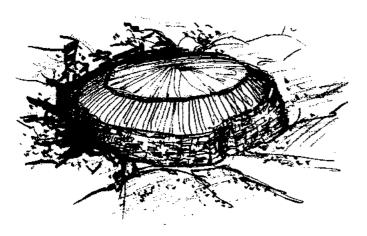
론상(Ronchamp)에 있는 이 순례 예배당은 한개의 조각같은 인상을 주며, 같은 시기에 전립된 프랑크 로이드 라이트(Flank Llyod Wright)의 나선형이 적용된 구젠하임 미술관과 같이 시공을 하는데는 부적당하다고 생각되지만, 이 유기적인 形態에는 모든 디테일에 걸쳐 새로운 構想이 내포되어 그 結果로서 완전히 다른 外觀이 創出된 것이다.

형 (Form)과 크기 (Mass)는 서로 균형되어 있고 표면은 Rough-Cast Concrete이며 전체內部는 曲線으로 되어 있다. 또한 두꺼운 벽의 창문을 통하여 들어오는 빛에 대한 고려와, 불규칙적인 형과 크기의 창문은 Coloured Glass로 되어 있다. 그리고 平而·立而 및 空間의 다양한 변화는 史的인 의미에서 現代建築 의 추상적인(Abstract) 敎會로서의하나의 출발점이 된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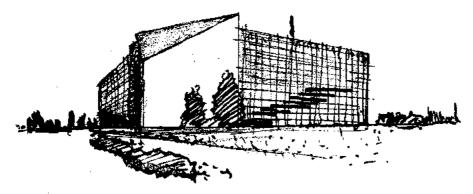
④ 聖매리寺院(Tokyo 1967~1969) 현재 일본에서 활동 중인 Tange Kenzo의 作品으로 俗地의 조건에서 영향을 받은 平面形으로서, 長斜方形 의 8개 기하학적인 콘크리트 Shell



聖메리寺院(Tokyo 1967~1969)



EFO[발라티敎會(Taivallahti Church, Heisinki 1961~1969)



가든 그로브 코뮤니티敎會(Garden Grove)

로 이루어졌다.

서로 교차되는 지붕선은 십자가를 상징하며 Shell의 교차부에 天障窓을 둠으로써 빛을 실내로 끌어 들였다. 몬크리트 Shell의 内部 벽체에는 마감이 없으며 외부는 고급 철재 Sheet로서 처리되었다. 수용인원은 800석으로 2,000명까지 서서 에배를 볼 수가 있다.

이러한 기하학적인 형상은 초파학 적인 (Ultra-Scientific) 기술을 밑바 탕으로 하여 순수한 美을 나타낸 양식 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이발라티教會(Taivallahti Church, Helsinki 1961~1969)

Timo and Tuomo Suomalainen의 作品으로 아파트지역 내의 암반을 파내서 인위적인 벽체와 더불어 평평한 도움(dome)으로 씌워졌다. 채광도 도움과 벽제를 잇는 리본(Ribbon) 사이로 빚을 드리우며 제단과 세례반은 같은 계통의 몰로 만들어 졌다. 내부의 圆形空間은 지하로 들어감에 따라 엄숙한 분위기가 초기 基督教 신앙십을 回想케 하는 新古典主義的(Neo Premetive)인 樣式이라 하겠다.

① 가든 그로브 코뮤니티教會(Garden Grove)Community Church 1981 California)

Philip Johnson과 Burgee의 作品 으로 입체구조 Space-frame을 유리 로 內外部를 구성하여 투명하게 내다 보이며、會歌들이 자연과 같은 무한 한 空間이 創造된 분위기 속에서 예 배를 볼 수 있게 한 것이다. 平面은 십자가(Cruciform) 형태의 진 네이브 와 짧은 Transept를 뒤집어 오하려 긴 Transept와 짧은 네이브로 만들었다

그리고 대칭적이고 방대한 평면은 설교단을 향한 최충들로 하여금 매우 친근감을 갖게 하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主平面과 3개의 Balcony에 3천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3백명의 승용차 속에 앉은 Drive-in 教人을 위한 空間이 마련되어 있다.

이처럼 투명하고 장엄한 敎會空間 은 미국에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초 현대적이며 추상적인(Abstract)敎會 로서 발달한 構造技術의 극치를 이루 고 있다.

韓國 기독교 教會建築의 規模決定에 必要한 研究

李 好 碰 — 建国大學校 建築工學科 副教授

A STUDY ON INFLUENTIAL FACTORS FOR FACILITY SIZES OF KOREAN CHURCH BUILDING

Lee, Ho Chin Konkuk University Architecture prof.

- 1. 緒 論
- 2. 教会內에서 発生되는 行為考察
- (1) 敦会使命
- (2) 教会内 行為와 必要空間
- 3. 規模 決定에 必要한 因子考察
- 🎚 (1) 敎会勢力圖 決定에 따른 적정規模
 - (2) 敎 会運営상에 따른 規模
 - (3) 機能別 人口분포와 空間利用
 - (4) 空間利用과 상호관계성
- 4. 結論

1. 緒 論

韓国에 政新教가 전례된 것이 100여年이 되고 있고 이러한 歷史의 호흡속에서 많은 形態의 教会建築이 지어졌고 또한 지어지고 있다. 그런데 기존의 많은 건축의 機能이나 形態는 거의 비슷하며 상이한 것은 그 크기에만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천편일률적인 空間性이 교회의 원래 使命에 부합된 必要空間으로되었다면 그 문제점이 없겠으나 教会가 요구하는 行為에 따른 必要空間이다양하게 많은 것이다. 그런데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空間구성비를본다면 거외가 예배만을 위한 建築이되고 만듯하다. 이는 教会의 원 機能에

일치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教会使命을 다하는 教会가 되기 위하여 建築空間을 어떻게 決定지어야 할 것인가가 重要하다고 본다. 이러한 해결을 위해서는 教会建築 空間을 決定할 수 있는 因子를 분석하여 이 因子들을 상호관계시켜서 그 規模計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本 論文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독교 教会의 神学的 측면으로보는 教会의 使命을 理論的으로 분석하고 이를 教会 建築空間 형성의 기본원리로 설정할 수 있게 그 관계성을검토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教会內教人들의 活動종류와 범위를 考察하고 社会에 대한 教会의 태도에 따른교회行為를 考察하여 規模計劃의 結定因子를 얻어 要求되는 空間의 種類와 참여 人口와 空間利用 상태를 各연관시키며 또한 융통성을 가미시켜 걱정規模를 얻을 수 있게 하는데본 연구가 갖는범위와 방법이라고 할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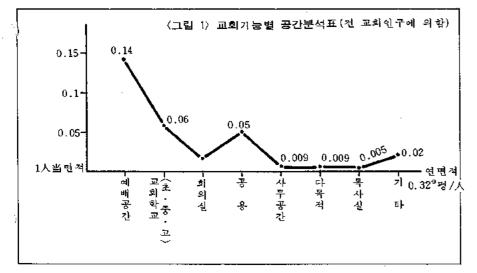
이렇게 하여 언어지는 결과는 가독 교 교계의 教会 建築計劃을 위한 방향 을 설정하고 建築人들이 이들 建築형 성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으며 건축계획 방법론적인 접근 체 계의 하나를 제언할 수 있는데 本 연 구의 의의라고 본다.

그 범위는 기독교內 改新教와 서울에 있는 규모별 教소를 그 연구 대상으로하여 분석함으로써 자료를 얻을 수 있고 또한 서울을 중심으로 적용가능하게 그 범위를 가졌다.

2. 教会內에서 発生되는 行為考察 建築空間을 形成하기 위하여 어때 한 種類의 空間과 環境내지는 規模는 그 project가 가지고 있는 理論的근 거에 의한 要求條件을 만족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구성하여야반 될 것 이다. 교회 내의 活動패턴은 教会가해 야할 使命에 의해서 決定되며 또한 그 内의 空間의 要求는 이活動패턴에 의 하여 決定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 리므로 本章에서는 教会의 神学的인 근거에 의한 建築空間 形成을 가능케 할 수 있는 理論的인 접근을 하려 하는 것이다.

(1) 教会使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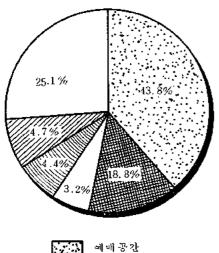
근간에는 敎界뿐만 아니라 社会 一 般界에서까지 教会의 使命에 対한 원 칙(神学的근거에 의한)과 現実教会가 運営되어자는 상태와의 상호관계성을 가지고 분석할 때 그 問題点이 많다 고 생각한다. 이를 다시 언급한다면 현재 기독교의 한면이 진실된 敎金의 원래사명을 다 못하고 있다는 것을의 미한다. 그 建築이 가지고 있는 空間의 種類나 規模를 분석하면 그 建築内의 活動상태나 運営패턴을 알 수 있을 것 이다. 그래서 현재 教会들의 建築空 間의 구성상태를 분석하고 運営상태 를 재정구성 상태와 상호관계시킴으로 써 問題点을 찾고 神学的인 教会使命 의 理論으로 教会建築空間의 決定因 子를 찾을 수 있는 이론을 전개할 수



있다.

① 教会建築空間의 분포상태

기존 教会의 空間 분류는 1주일에 2~3 回의 전교인이 예배볼 수 있는 大예배 空間과 教会教育을 담당할 수 있는 教会学校(이것도 1주일에 2~3 回 정도의 사용율을 가지고 있다), 또한 회의, 사무를 볼 수 있는 OF-FICE와 회의장 공간과 지역사회인과 교인을 위한 다목적 空間, 기타공용부분(복도, 홀, 기타) 부분으로나눌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____ 지역사회공간

〈그림 2〉교회 건축의 공간분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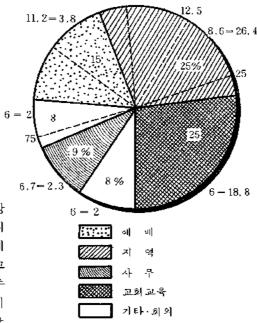
회의·기타 공용공간

이 분석에서 나타난 空間의 분포상 태가 現在 教会의 空間利用 상태를 의 미하며 教会内의 活動패턴과 敎会에 서의 使命까지를 설명할 수가 있다고 본다. 즉 교회 전체의 43.8%가 1주 일에 몇시간 사용치 않는 예배공간이 므로 교회의 사명에서 가장 큰 역할 은 예배행위이며 공간 이용율은 1.7 %(<u>3-4시간</u>)의 효율성 밖에 없다. 그리고 공용부분(기계실, 복도등)을 강한 나머지는 전체면적의 31.1%이 므로 敎会內의 행위 가능성에 따른 타 使命을 정취하기 위한 空間은 극히 제 한되어 있다. 운집되어 있는 초·중ㆍ 고·청·장년들의 교육공간(18.8%) 도 전체 분포에 비해 적게 나타나 있 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역사회를 위 한 봉사活動을 위한 SPACE는 4.7 %이므로 이는 거의 이를 위한 行為.

使命이 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즉 現在 教会의 建築空間 분포 상태를 미루어 보면 教人(자체식구)들이하나님에 対한 예배외식의 場으로서그 空間利用율도 극히 저하되고 비효율적인 SPACE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특히 문제이다. 이러한 問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空間을 구성하기 위하여 教会內에서의 必要 환경을 얻을 수 있는 원칙적인 理論정립이 重要하다. 이것이 바로 教会의 사명이무엇인가를 설정하는 것이다.

② 使命의 理論性 考察

教会의 使命은 神学이나 教会行政学 등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神에 대한 예배사명과 神에 対한 지식을 알기위한,즉 Bible을 中心으로한 教育的行為와 教人간의 친교와 이웃(지역주민)을 위한 봉사와 친정행위, 教会運営을 中心으로 한 行為、学文的연구 등이 다음과 같은 대략적인 분포상태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그림 3〉교회사명에 따른 기능분포도

教会에서의 各 使命의 분포比를 대 라으로 표시한 것이머 이는 教会內에 서의 Activity와 직접 관계성이 있다.

그림 2, 그림 3을 비교한다면 다음 과 같은 問題点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神学에서 意味하는 현존교회들의 内的行為에는 問題가 있음을 意味한다. 그러므로 教会使命에 대하여 이를 충실히 가할수 있는 教会空間 形成을 위한 教会使命의 理論的 전개는 철저히 이뤄져야할 것이며 이것이 空間計劃시에 반영되어야할 것이다.

(2) 教会内 行為와 必要空間

空間內에서의 행위는 그 광간이 사용되어야 할 目的을 달성키 위한 근거에 두어야 한다. 그런데 그 공간의目的 확정은 그 대상 建築의 원래의使用原則의 理論的 接近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教会의 이原則은 教会使命에 의하여 目的과 行為가 설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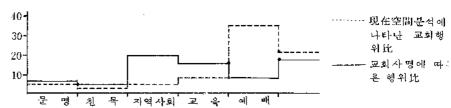
本章에서는 上論에서 고찰된 使命 의 분석에 의라여 各各의 行為와 目的을 규정 지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이에 의하여 各各의 必要空間의 種類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표 1) 교회사명·목적의 상호관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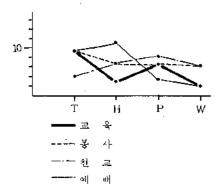
티的 사명	믿유 (T)	₩에영광 (Ⅱ)	선교 (P)	グ 타事業 (₩)	졔
에 배 (Y ₁)	5	7	2	1	15
친 교 (Yz)	3	3	6	6.	17
변 사 (Y3)	5	3	5	5	18
æ ♣ (Y.)	ā	l	5	3	14
계	18	13	18	15	64

예배 (Y₁) = 5 T+ 7 H+ 2 P+ 1 W 친교(Y₂) = 3 T+ 2 H+ 6 P+ 6 W 봉사(Y₃) - 5 T+ 3 H+ 5 P+ 5 W 교육(Y₄) = 5 T+ 1 H+ 5 P+ 3 W

上記(表-1) (그림-5)의 분석결과 教会시의 行為는 선교·봉사가 서로 유사한 상호 관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요도도 또한 크다. 이것은 그 行, 為 요구에 따른 變間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봉사의 行為, 친교의 行為에 의한 요구에 중점적인배리가 필요하며 이들로 인하여 유사한 行為와 空間의 융통성도 도모할 수 있다. (그림 참조)



〈그림 4〉건축공간에 나타난 현재와 신학적인 교회사명에 의한 교회행위의 비교분석



(그림 5) 교회행위 분석도

다음(表 - 2)은 가 使命에 따른 行 為와 요구 Space의 상호연관성에 対 한 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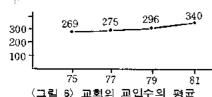
3. 規模決定에 必要한 因子考察

(1) 教숲의 세력권 결정에 따른 조정인구 計劃

한국의 교회규모 결정 원인 : 各 教 会別 목회자의 능력(개인능력)이 原因이다. 그러므로 이는 항상 변함 수 있는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短 期間에는 변수로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으나 그 목회자의 능력에 따라, 시 대의 변화(한국인의 외식구조)에 따 라(변수이므로) 그 규모는 변화할 것 이다. 이는 원래 教会의 使命에 어긋 나는 원인과 결과라고 할 수 있다. 敎 会는 한 지역내의 教人들의 求心点이 될 수 있어야 하며 一般 社会人에게 도 혜택파 요구충족의 Community Facilities의 하나로 되어야할 것이므 로 이 두가지의 요구분석에 의한 규 모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① 한지역의 教人수와 근린 이용권 에 따른 決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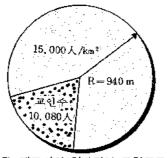
) 韓国 기독교인의 변화 상태는 1980 年에 급증을 하여 全國的으로 천만명 에 달하고 있고 또한 교회수도 2만 7 첫여개소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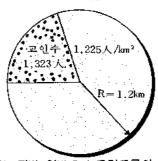
그리고 1教会당 교인수의 평균은 약 340명인데 그 지역 분포상태는 불규칙적이다. 그런데 教人의 수는 韓国 全人니의 24%에 달하므로 근린이)권에 따른 분석은 전국 인구분포도에 준하여 教人수를 측정하여야 할것이다.

(표 2) 사명 - 행위 ~ 공간

- 1			
		Space	
	神 찬양←─성가, 기도, 의식	예배실, 설교단	神을 찬양할 수 있는
Υ,	기도 ←— 신 영광 속좌. 구 원열망	예배慈識의올바른 고착이 가능한 예 배실	엄숙하고 意識에 맞게
의 베	신앙교양←—설 교	성가대실	
	対 話 ← 茶斗声、 言 과 言	対話 Space	융통성 고려한 大, 中,小
Yı	회 의 ←─ 새로운 IDEA발전	회의장 大,中,小	seminar겸 회의, 강연
	의 터		가능
	식 사←— 음식과 晋	식당실	
친 교	오 락친목과스트레스해소	오라실	
,,	지역인을 위한 Space세공, 강	각종 Seminar실	사회에 개방되며, 이
Υ,	연,회의,친교,오락,식사,놀이,	유회장, 경로장, 각	용자에게 친근감 갖
	경로, 노동, 외료, 마음의봉사	회의실, 오락, 의	도록
봉 사		료, 노동	
v	知識 전달 可	각종 Seminar실	각종 강의실
Y ₄	知의 보존과 제공	각 회의장	시청자교육 가능케
교육	기역사회를 위한 교육		



(그림 7) 대도시의 일반지역 근립주구의 평균교인수(Type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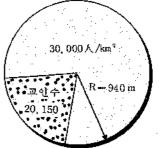
〈그림 9〉 지방 일반도시 근립주구의 평균수(TypeⅢ)

上図에서 나타난 教会人口를 다시 대도시·지방도시·농촌에서 충파의 수를 가정하여 1 교회당 교인수의 평 균을 求한다면 다음 表와 같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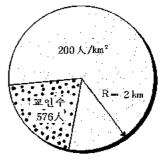
〈표 3〉 1 個敎会의 교인수의 평균

지역	종파수	추정 평균 교인수 (교 회 당)
Τı	10	1,008
T _{II}	10	2,016
Τ _{II}	6	220
Tıv	3	192

(이 숫자는 전국교단을 20여개로하여 한 근립주구에 설립가능 총파수를 859로 가정한 것임)



(그림 8) 대도시의 고밀근린주구의 평균(Type Ⅱ)



〈그림 10〉 농촌지역의 평균 (Type N)

② 지역인을 위한 근립시설에 따른 決定

지역설정을 근린주구로 決定한다면 이 지역 내의 각종 Community Facilities가 있어야 하므로 그중 하나의시 설로 고려하여 지역인들이 사용 가능한 것으로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사명 중 봉사+친교 부분에서의 行為에 必要한 空間 使用 대상人口量 후정해야 할 것이다. 이 대상人口에 따른 이용율이나 必要空間은 本論(1)에서 教会人口內에 存在할 수 있다고 가정하기로 한다. 그러나 이것은 후 더 세밀한 조사・분석결과에 의하여 확정하여 (1)에서의 결과와 상호관

련시켜 보아야 할 연구대상으로 제시 하는 바이다.

(2) 교회 운영상에 따른 규모

현재 教会의 운영상태로 본 교인수의 최소 규모는 어떻게 되어야 할 것 인가는 배우 중요한 것이다. 教会의 교인수에 따라 1年 예산의 규모가 다 트지만 이것과 比例하여 教会의 使命 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림 7에서 나타난 재성의 분포 상태와 教会의 使命에 따른 行為순위 도(그림 4)를 비교하여 보면 現在 教 숲의 문제점을 찾을 수가 있다고 본 다. 이는 교회의 운영비(인건비)가 다 른 使命에 비해 높다할 수 있는 것이 다. 그러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는 教会가 유지되는데 필요한 최소한 의 교역자로 최대 감소 가능시점이어 단가가 그 重要결정점이라고 볼 수 있 다. 이는 더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겠 지만 現在로는 600人~1,200人 교인 수의 규모가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그 러므로 이 숫자는 大도시의 근린추구 에 따른 교인수(그림 7.8)와도 일치 되는 숫자이므로 이를 그 적정으로생 각할 수 있다.

(3) 기능별 人口분포와 空間利用상 태 고찰

教会內人口 분포상태는 다음과 같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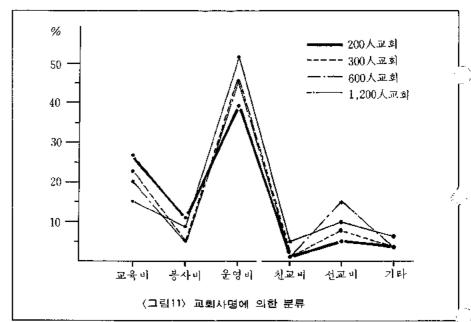
그림 12에 의하여 各 空間 사용人口 를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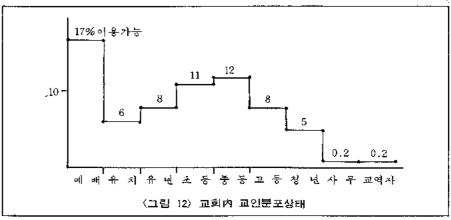
(表-4) 教会內 使用人口 가능수를 조사 분석하면 教人 1,200名~1,500名 정도의 재적교인수일 경우이들이 기능에 따라 사용하고 동시에 지역사회를 위한 사용가능한 인원은 1주 10화로 8,016人이다. 이를 근린주구 人口를 대상으로 考察한다면 이들이(3만명, 가장 고밀주거인 경우)모두 사용가능하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

(4) 空間利用과 상호관계성

① 이용율

教会使命과 行為와 教会人口를 상호 관련시켜 必要空間 및 規模와 空間 利用상태를 決定하여 그 크기를 최종적으로 決定지을 수 있다. 이러한 몇 가지의 요인은 前章에서 고찰하였고 空間利用상태 決定은 教会内 各 기능부서의 人口에 따른 공간 이용율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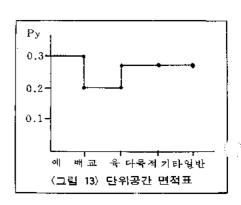
〈표 4〉教会內 사용人口의 면적

		비윤	인구수	= 교 인 이용율 사회인이용상태 '		이용율	사용가능	人口
예	нH	7	204(600	3~5	특별한경우 예식, 장례 : 3回/주	8 시간	4 回/주	816
<u></u>	٦	6	72	1~2	4回/주	40시간	20回 / 주	1,440
Ĥ	냰	8	96	**	"	"	"	1,440
3.	둥	1 1	132	1~3	"	"	"	"
Ţ	卡	12	144	"	"	11	"	"
청	년	8	96	"	"	"	"	"
사	무	0. 2	3	5/7			0.010	. ,
교	용	0. 2	3 5/7				8,016	
	1,200人		사회봉사 space가능			,		
	으로가정							

(공간이용율은 100%로 함)로 계산하여야 지역인이 사용할 수 있는 人口에 따른 空間利用율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 그래서「必要 空間이용율= 1」로 결정할 수 있다.

② 単位空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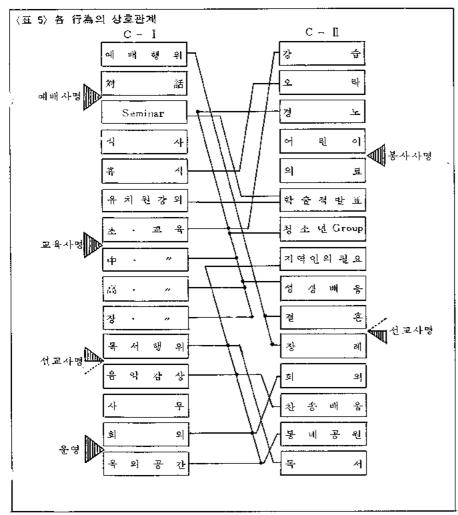
다음은 단위 사용인구当 소요 단위 면적을 실제조사와 각론에 의하여 고 찰한 結果이다.



③ 空間의 상호관계성

教会의 行為 분포상태를 분석한 결과 各 行為 발생시간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 行為에 따른 空間 이용상태에도 상호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물 考察한다면 教会空間에는 융통성을 부여하며 절감된 空間규모를 산출할 수 있는 요인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다음 온 各 行為의 상호관계성을 의미한다.이에서 空間의 용통성을 찾을 수 있다.

이 결과 분석은 〈C-I〉에서의 행위는 教会의 참여 人口분포에서 나타난 이용자들을 수용 가능한 면적으로 충촉될 수 있으면〈C-II〉의 行為의요구는 충족할 수 있다고 본다.〈참고3-3〉그러므로 그 적정규모의 결정은〈표-4〉에서 제시된 참여人以比를 근거로 단위면적을 관계시키면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이는교회사명을 원칙으로한 教会行為에대한 空間의 종류와 규모를 말합이다.



4. 結 論

저금까지의 연구는 韓国의 기독교 교회 건축의 규모 결정에 必要한 因子 를 神学에서 意味하는 教会의目的, 즉 使命을 다하여야 한다는 理論을 가지 고 전개하여 여기서 決定 因子들을 찾 아 이 因子들이 상호 어떠한 관련이 있나를 考察하여 이를 기본으로 하였 다. 그 결과는 敎会의 使命을 다하는 教会만이 참다운 神의 뜻에 부합되는 教金일진데 이를 다할 수 있는 空間 을 얻어야 한다. 그려므로 이 使命을 神에 대한 예배, 敎人간의 친교, 숲의 봉사 선교의 사명을 다.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 使命을 이룩하기 위한 작각의 使命을 위한 행위를 그 직접적인 空間 규모결정의 因子로 삼 을 수 있으며 더우기 다른 인자로는 행위 참여人口 비율을 조사 방법에 의 하여 얻고 이들 교회가 그 지역의 Community의 역할을 하므로 봉사의 行 為는 이를 통하여 할 수 있다고 보고 참여 가정人!!와 참여율을 상관관계 시켜 그 결과와 各 행위간의 상호 연 ·관성을 분석하여 空間규모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과정과 各 서子가 敎会 建築의 규모계획을 하는데 중요점이 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지금까지 의 연구는 규모계획을 함에 있어 하나 의 방법 제시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좀더 세밀하고 제량적인 채계성이 必 要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번에 논 - 의되지 않은 因子는 敎人과 社会人의 의식구조에 대한 심리적인 면에서의 연구이다. 이 또한 앞으로의 연구과 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종합 계통화시키면 教会建築의 적정규모를 얼을 수 있다고 본다.

會員作品 巡回展示會 開催 〈1982. 6. 14일~7. 17일〉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출품을 바랍니다."

우리나라 都市와 農村의 敎會分布現況

韓 圭 榮 — 忠北大学校 建築工学科 専任講師

DISTRIBUTION OF CHURCH FACILITIES IN KOREA

Han, Kyu Young - Department of Architecture Changbak National University

I. 序

우리나라의 改新教 歷史는 울들어 100년이 된다. 그동안 韓国改新教会 의 발전은 세계적으로도 注目받을만 큼 量的인 急成長을 이룩한 것만은 사 실이나 教会施設側面에서 볼 때 반드 시 熟考해야 할 여러가지 문제를 안 고 있다.

고 중 두드러진 것으로서 地域間 교회규모의 심한 隔差와 교회분포의 都市性 偏在傾向을 例據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간단한 実例를 들자면 서울 강남에 공사 중인 C 교회당은 건평으로 볼 때 4.50평 크기 개최교회의 200 배에 달하며 건축비로 따지자면 일천만원 전세교회를 일천교회 세울 수 있는 『매머드』 규모이다.

또 이에 近接해 있는 은마 상가 4 총 건물에는 열하나의 교회가 들어 있 어 교회밀접성의 심각성을 나타내 주 고 있다.

本稿는 地域 - 施設의 対応関係를 파 악하여 농촌교회시설의 배치계획을 위 한 지침을 얻기 위하여 우선 농촌지 역의 교회분포현황을 調査分析하려는 제한된 목적을 갖고 있다.

사용된 자료는 1981년말 현재의 전국 교회의 주소록과 文公部発刊「宗教団体現況 및 各種 統計資料」이다. 단여기서는 凡教団的으로 改新教会로 여겨지는 교회에 국한하였다.

여기서는 『農村教会』라는 용어를 단순한 行政区域上의 市・邑을 제외한 농촌지역에 위치하는 교회로서 지역 적인 개념으로 使用하였다.

Ⅱ、地域別分布

전국교회를 분석한 결과 도시교회 : 농촌교회의 구성비율은 표 1에서 大 略 53%와 47 %로 분류되었다.

표1 시도별 도시 및 농촌교회 분포 비율(%)

시·토	도시교회	농춘교회
서 울	100	
부 산	100	,
대 구	100	•
인 천	100	•
경 기	43	57
강 원	41	59
충북	29	71
충 남	33	. 67
전 북	33	67
전 남	30	70
경 북	24	76
경 남	34	66
제 주	60	40
저 국	53	47

이들 도시교회는 대부분 서울,부산,대구. 인천의 4개 대도시에 偏在되어 있어 그 集中率은 全都市教会中약 29%를 차지하고 있다.〈표 2 와 그림 1 参照〉

이것은 우리나라 도시교회가 大都 市 指向的 偏在性을 갖고 있음을 잘 나타면 구성비인 것이다.

이러한 교회시설의 大都市 偏在傾一 向은 다른 教育, 문화, 慰楽施設,등의 공공시설에 똑같이 적용되는 공통성 이다. 이런 현상은 현황의 단면만으 로서는 그 원인을 상세히 해명할 수 없으나 인구의 都市転入과 村落転出 에 의해 조성된 것만은 확실하다. 다 음의 표 3은 우리나라의 都市過密規 象을 통계적으로 입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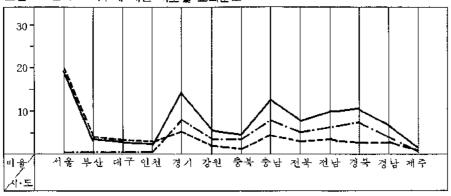
여기에 1980년말 都市人口率은 거의 70%로 더욱 늘어났다.

특히 우리나라 농촌지역와 상대적인 過疎化 性向은 『経済社会的 中心地에서 멀리 떨어진 곳일수록 人口滅少率이 커지는』사회・경제적 過疎概念을 나타내고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의 人口流出은 농촌지역사회의 기능마비→주민생활의 不安定』으로 이어지는 상태가 되며 심한 경우 『廃村의 危機』까지 몰고 잘 수 있는 것이다.

표 2 전국 교회수에 대한 시·도별 교회분포 비율(%)

Γ	시	· 도	도별교회비율	도시교회비율	농촌교회비율	비 고.
-	 서	 울	19.7	19.7	a ====1 , =	서울, 부산,대구,
						· · · · · · · · · · · · · · · · · · ·
<u> </u>	부	산	4.0	4.0		인천의 全교회 수
L	대	ᅲ	2. 7	2.7		는 전국교회의 28.
	શુ	쳈	2. 5	2.5		9%이며 도시교회
_	경	기	14.0	6, 1	7. 9	中 약 54%를 차지 한다.
	강	원	5, 4	2, 2	3, 2	ሢዣ.
	壹	북	4.5	1.3	3, 2	
	충	남	11.4	3.8	7.6	
	전	북	8. 0	2.7	5, 3	
	전	낲	9.7	2.9	6.8	
	경	바	10.5	2. 5	8.0	
	경	남	6.6	2.3	4, 3	
	제	주	1.0	0.6	0.4	
	전	र	100, 0	53. 3	46. 7	

그림 1. 전국 교회수에 대한 시도별 교회분포



五3 韓国(南韓)의 都市数変化의 都 市人口率

	都市数	市	邑	都市人口率(%)
1955	96	25	71	32, 6
1960	109	27	82	39.6
1966	123	32	91	42.6
1970	123	3 2	91	50.2
1975	157	35	122	59,4
1979	208	39	169	67.4

그러나 아직 例로 든 네(4) 大都市를 제외한 각도에 있어서 도시교회: 농촌교회의 비율은 제주도만을 例外 (60:40)로 하여 일반적으로 농촌교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 参照〉그 중 농촌교회가 도시교회보다 약 2배 이상 많은 지역은 忠南北, 全南北, 慶南北의 이론바 三南地方이다.

제주도에 있어서는 都市面積比率이 道別로 가장 높아 29%에 이르며 이 것이 도시교회보다 농촌교회가 많은 각도의 일반적 교회분포에 대한 例外 를 뒷받침하는 要因인 것으로 생각된 다.

全国教会数에 대한 시·도벌 교회 수는 먼저의 표 2화 그림 1에 비교되 었다.

Ⅲ. 教団別分布

조사된 改新教会의 教団数는 90餘 派에 이르렀다. 이는 우리나라 프로 테스탄트 교회의 한 단면이다. 그 원 인 중의하나는 교회의 分類에 있다. 특 히 장로교회의 분열이 주목된다.

教団別 교회분포에 있어 우선 教派順位로 볼 때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침례교회, 하나님의 성회 順이며 열(10) 大教団中 장로교회에 속한교단이 여섯이나 된다. 이 열(10) 大教団에 속한 교회는 전국교회의 약 86%를 차지하고 있다.

표4는 教団別 도시교회와 농촌교 회의 도별 構成比를 나타낸 것이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열 (10) 大教団内의 도시교회: 농촌교회의 비율은 약 59%와 41%로서 도시교회의 의 우세한 분포를 나타낸다. 이것은 全教団, 全国教会를 도시교회와 농촌 교회로 구분한 53%와 47%보다 높은 都市化率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 표를 도별로 도시교회는 농촌교회는 70% 이상되는 分布率을 나타내는 地域만을 그림 2와 같이 표 시해 볼 때 大教団일수록 농촌교회 분 포율이 우세한 지역이 많으며 그보다 적은 教団일수록 都市教会 分布率이 우세한 지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1教会 1教団』에서도 뚜렷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조사된 94教団中『1教会 1教団』은 29教団에 달하여 全教会数에는 불과0.2%에 지나지 않으나 全教団数에 비하면약 1/3이나 되는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背景解明은 教会施設利用側面에서도 고찬할 많은 문제를 内包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표 5와 그림 3은 이들『1教会 1教団』이 道別로 분포되어 있는 상 황을 나타낸 것이다.

教会分布의 都市性 偏在傾向이 全 教会的으로나 部分的으로 볼 때 똑같이 나타나는 現象임을 파악했고 그것 이 『1教会 1教団』에서 絶頂에 이르 고 있다는 것이 현재 한국 改新教会 의 분포에서 가장 심각하게 여겨지는 문제점이다. 또 施設側面에서 뿐만이 *「1教会 1教団」이란 한 教団이 하나의 教会로 이루어진 특이한 教派樣相운 나타 내가 위한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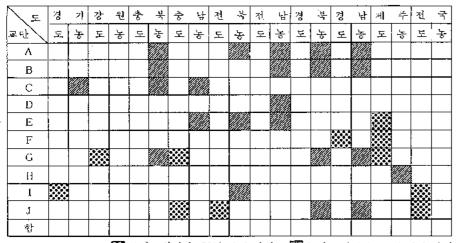
丑5 「1教会1教団」数의 地域別分布

		都市	農 村	備考
서	울	14		48%
釜	山	1	1,111,111,111	
大	Χ	. 1		
仁	Ж	1		
京	畿	3	1	
江	原	2	1	
忠	南	1		
全	北	1	2	
慶	南	1		
ā	†	25	4	29
比	率	86%	14%	

표 4 교단별 도시 및 농촌교회 구성비

(%)

ᆂ	경	<i>7</i> 1	강	원	쿵	북	*	남	전	북	전	남	경	7	경	놥	제	주	전	幸	전국교회에
교단	토	유	푯	용	또	후	占	농	토	용	দ	농	Ĭ.	뇽	도	<u>우</u>	토	₹	토	\}	대한 비율
A	37	63	48	52	23	77	32	68	22	78	26	74	21	79	25	75	63	37	43	57	22
В	46	54	38	62	15	85	37	63	37	63	29	71	16	84	26	74	50	50	52	48	19
С	30	70	38	62	24	76	26	74	43	57	50	50	32	68	67	33	46	54	46	54	16
D	31	69	43	57	31	69	38	62	40	60	24	76	43	57	63	37	50	50	56	44	7
E	47	53	50	50	32	68	23	77	29	71	25	75	44	56	45	55	72	28	44	56	6
F	61	39	61	39	55	45	31	69	39	61	60	40	31	69	71	29	100		62	38	6
G	٠	٠	100		29	71	77	23	50	50	52	48	28	72	27	73	100		35	65	4
Н	48	52	58	42	37	63	55	45	41	59	56	44	69	31	44	56	٠.	100	68	32	3
[100			T - '						100			- "	·	44	56			97	3	2
J	55	45	67	33	· ·	 	100		75	25			17	83	14	86			82	18	1
10교단 합 제	46	40	50	40	25	55	42	48	38	62	32	48	30	60	43	57	48	32	59	41	86



🎇 도시교회비율 70% 이상 지역 - 🎆 농촌교회바율 70% 이상 지역

48 %

나라 教理的이라든지 教会成長史的으 로, 또 지역사회적인 면에서도 좀 더 深層分析되어야 할 것이다.

Ⅳ. 教会分布密度

교회의 分布密度는 教人数나 교회 시설 면적, 즉 교회규모를 変数로 하 여 교화분포의 指標로 사용할 수있는 개념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단순히 교 회가 존재하는 지역의 全面積에 대한 構成比斗 教会의 分類別(都市 및 農 村教会) 構成比 사이의 相関関係만을 도서 및 농촌의 対位概念으로만 파악 하려고 한다.

어느 지역과 그 地域内의施設数(公 共施設)로서 密度概念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시설의 利用圈 設定에 있 어 利用者 - 施設 関係에서의 変数로 서 거리를 문제 삼고자 할 때 채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密度概念을 나타내기 위해 편의상 다음과 같은 간단한 관계식을 사용하 기로 한다. 즉 지역의 面積比率과 教 会分布比率을 서로 比較시켜 都市密 集指標를 구하려는 것이다.

*本稿에서 처음 시도해 본 用語이다.

이것은 아래에서

都市面積比率:A 農村面積比率:B 都市教会分布率:C

農村教会分布率:D 都市密集指標:E

라고 할 때 E를 C와 A의 差로 各地 域마다 比較해본 것이다.

여기서 E가 陽(+)으로 나타나면 도시분포 우세性向을、陰(--)으로 나

타나면 농촌분포 우세性向을 나타낸 다고 推定한다. 이는 地域別(道 또는 郡単位) 로 分布性向을 相關関係로 나 타내려는 의도를 가질 뿐 어떤 過密 또는 過疎에 대한 絶対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 음과 같다.

그림 4 E 값의 유형

E 값	구 별	병난 법
陽(+)		100 - (D + A) > 0
0		100 - (D + A) = 0
陰(一)		100- (D+A) < 0

도시 면적비 윤(A)

왕촌교회 분포비율(D)

먼저 각도의 시 읍부가 차지하는 面積比에 비하여 도시교회분포비율이 相対的으로 높게 나타났음이 파악된 다. 이것도 역시 教会分布密度에 있 어 도시지역의 過密化 性向을 나타내

는 것이다.

표 6 에서 요값이 큰 道의 순서, 즉 도시분포 우세의 順位를 나타내면 다 음과 같다.

1. 제주도

2. 경기도

3. 전라북도

4. 충청남도

5. 경상남도

6. 강원도

7. 전라남도

8. 충청북도

9. 경상북도

여것은 앞의 地域別分布에서 연급 하고 표1에서 비교한 道別 도시교회 수 : 농촌교회수의 構成比와는 약간다 른 樣相會 보여준다.

즉 강원도와 경상남도의 都市性 偏 在傾向이 전라부도, 충청남도보다 상 대적으로 낮아진 것이다. 이것을 다음 그림 5와 같이 비교한다.

이 그림 5에서 제주도와 경상북도 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주도 는 都市面積比가 높지만 都市教会分 > 布率이 월등히 높게 나타난 결과 部 市 中心性 教会分布性向을 나타내는 것

표 6 地域의 面積比率과 教会分布比率 都市奢集 面器比率 教会分布比率 直 農 村 (B) | 都市教会(C) | 農村教会(D) | 指 標 (E) 郡 市(A) 15 85 京 畿 道 21 79 41 59 汇 原 道 29 71 18 JŁ. 11 89 11 89 67 22 忠 33 抲 33 67 23 北 10 90 全 11 89 30 70 19 南 JŁ. 14 76 10 幁 13 34 66 29 71 60 40 31 濟 州 道 15 85 64 国

그림 5 教会分布密度(都市密集指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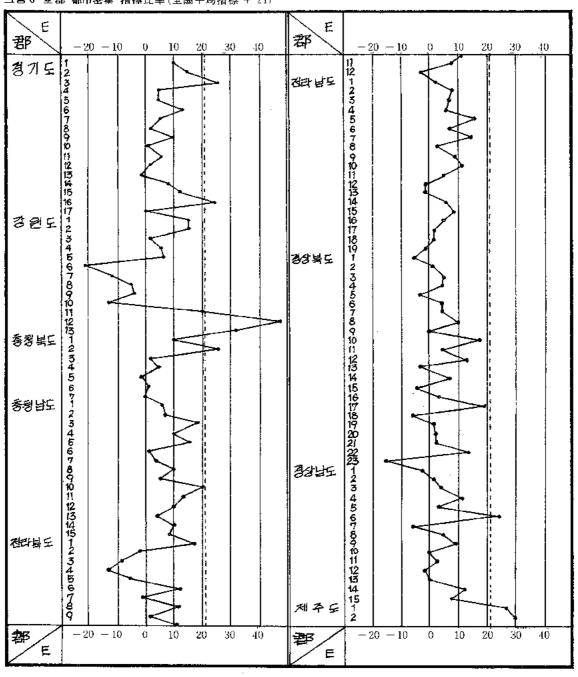
上车		·			- -		· · · · · · · · · · · · · · · · · · ·	(%)	\neg
道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京畿道									
江原道									
忠北道									
忠南道									
全北道									
全南道									
慶北道									
慶南道									
濟州道			T]					
全 國									

都市面積比率 (A)

都市密集指標(E>0의 경우)

農村教会分布比率(D)

그림 6 全郡 都市密集 指標比率(全国平均指標 + 21)



이다.

이것을 네개의 大都市를 제외한 全 道에 걸쳐 볼때 面積比率上 도시: 농 촌이 15%와 85%로 構成된데 비해 教 会分布比率은 도시: 농촌이 36%와 64 %로 되어 있어 全国 平均都市密集指標 E 값은(4個 大都市 除外) + 21로 나타난다. 都市面積比가 월통히 적음 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교회가 몰려 있음을 立証하는 것이다. 都市密集指標는 아래와 같이 세가지 Group으로 구분된다.

全國比*보다 높은 道:제주, 경기 전복, 충남

全国比와 같은 道 : 경남 全国比보다 낮은 道 : 강원, 전남, 충 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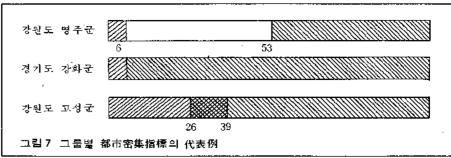
(*전국비는+21로서 4個 大都市 除外한 E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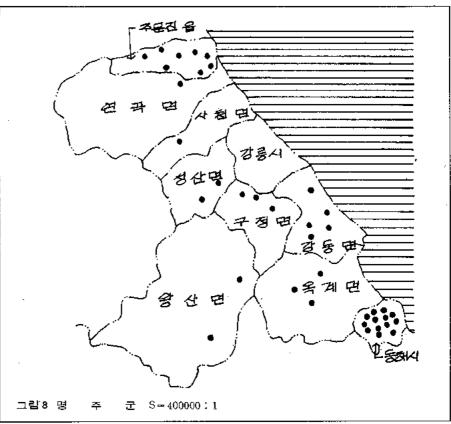
道別 교회분포의 都市密集性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은 그 指標가 陰(一)으로 나타난 도가 없다는 것이다. 같은 방법에 의해 全郡에 대해 나타낸 E 값의 Graph는 그림 6 과 같다. 이들 全郡에서 E 값의 크기를 陽(+)과 0 그리고 陰(一)으로 分類하여가장 무드러진 郡들을 추출하면 나음표 7 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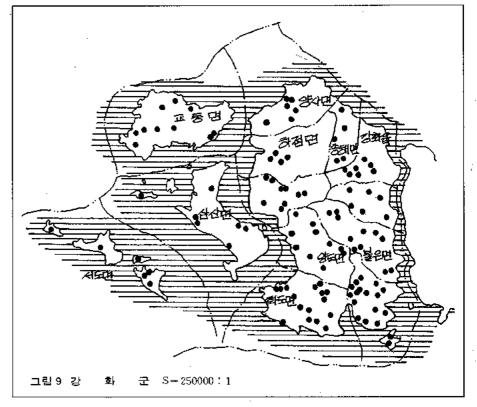
五7 都市密集指標의 Gro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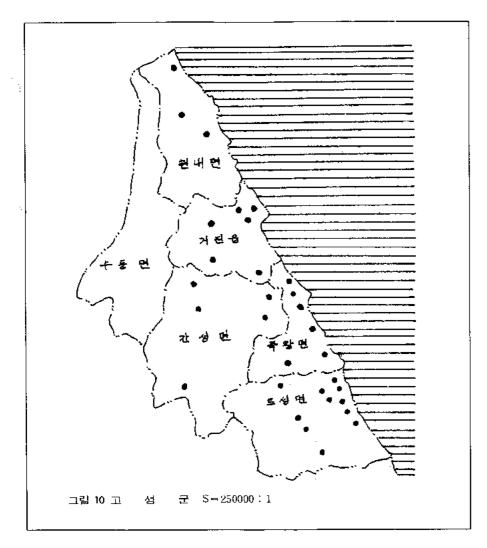
도	군		면적비윤 (%)		교회분조 비율(%)		비고
			도시	농촌	도시	농촌	
강원	명	주	6	94	53	47	+47
강원	삼	潮	36	64	68	32	+32
재주	남채	주	22	78	52	48	+30
제주	북제	주	12	88	38	62	+26
충북	4	첹	7	93	33	67	+26
경남	김	해	20	80	:14	56	÷24
경기	김	<u>¥</u>	10	90	34	66	-24
경기	강	<u>\$</u>].	6	94	6	94	O
쿵뿍	단	ᇮ	10	90	10	90 -	0
경부	월	생	25	75	25	75	0
경남	촭	οŁ	10	90	10	90	0
경남	남	ठी	6	94	6	94	0
강원	철	원	43	57	22	78	-21
경북	울릉	ጟ	30	70	14	86	16
강원	꼬	성	39	61	26	74	-13
강원	화	천	26	74	14	86	-12

또 각 Group의 代表例를 강원도 명주군(+), 경기도 강화군(0) 강원도 고성군(-)으로 선정하고 다음 그림7과 같이 나타냈다.









단, E값의 最小値는 강원도 철원 군(-21), 경상북도 울릉군(-16),강 원도 고성군(-13)의 順으로 나타났 으나 調査上의 問題를 고려하여 강원 도 고성군으로 택한 것이다.

이들 代表例에 대한 分布密度実態 를 지도에 나타내보면 面積比率과 教 会分布比率 사이에 맺어지는 각각 특 이한 様相을 비교 파악한 수 있는 것 이다.

위의 지도는 각 代表例의 教会分布 図이다.

Ⅴ. 結

韓国改新教会의 분포실태는 4個 大 都市를 제외하면 教会史的으로 復興 時期라는 관점에서 初代教会 이후 아 직도 농촌교회에 기반을 두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그러나 전국이나 大教団을 분석해 볼 때 이미 都市教会分布率이 우세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群小教団, 특 히『1教会 1教団』이라는 側面에서 볼 때는 都市集中率이 압도적으로 나 타났다.

이것은 教会分布密度라는 개념에서 전국. 道別, 全郡에 절쳐 都市密集指標를 구해 본 결과 우리나라 政新教 숲의 分布性格은 都市指向性임이 분 명히 들어났다.

経済社会的인 與象과 똑같은 이 추세가 加速化된다면 都市教会過密化와 농촌교회시설의 利用面에서 문제의 悪化는 심각해질 것이 예상된다. 序頭에서 제시한 간단한 実例와 같은 문제들이 점점 커질 것이다.

이 조사가 교회수라는 単一因子에 限定되었다는 점에서는 再考할 필요 가 있으나 그러나 本 調査로부터 교 회의 都市密集性에 문제를 발견하고 앞으로 教会堂面積이나 教人数등의교 회규모뿐만 아니라 교회시설 利用側 廊에서 地域 — 施設의 대응관계를 파 악, 교회시설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 하는 연구가 기대된다.

아울러 도시와 농촌의 지역사회적 문제가 교회분포에 끼친 영향이나 교 단별 교회분포의 배경을 教会史的으 로 고찰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現代 基督教建築의 動向

鄭 時 春 — 정추건축 / 건축사

MODERN MOVEMENT IN CHRISTIAN ARCHITECTURE

Joung, Si Choon - Joung Joo Architect & Associates / Architect

1. 고딕양식으로부터의 탈피

현대신학의 태동과 함께 기독교의 에큐메니칼 운동, 2차 바티칸공의회, 예배운동 등은 기독교의 역할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기독교의 혁신 속에서 교회전축도 점진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움직임의 초기에는 사회주의나 공학기술의 태동과 같은 새로운 힘을 인정하지 않고, 중세 고딕양식의 부활에 의해 출발되었다. 따라서 최초의 콘크리트조교회건물인 파리의 성-몽마르뜨(사진 1)가 고딕형태를 취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20c에 들어서면서 현대건축의 출발 과 함께 교회건축은 고딕양식과의 투쟁을 시작하게 되었다. 1922년 르 — 랑시에 세워진 아우구스트 페레의 노들담(사진 2, 3)은 고딕양식과의 잘등을 잘 나타내고 있다. 1927년 칼모세르의 인토니우스교회(사진 4, 5)는 완전히 고딕형태를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과거의 기념비적으로 고립되어서워진 교회들과는 달리 주거군 속에서 주위 사화와의 연관성을 가심으로써 20c 교회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1909년 빨기에에서 시작된 예배운 동은 1차대전 후 교회의 예배기능과 형태에 대한 논의를 일으켰고 이는 교회건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하였다. 특히 도미니쿠스 뵘,루들프 슈바르츠,오토 바트닝 등의 교회건축가들은 교회건축의 단순성,입채적 형태, 구조의 명료성을 주장했으며 특히 교회의 세속화 이후로는 긴화중석과 주랑을 예배에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도미나쿠스 뵘은 교회 내부평면을 중앙집중 형태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형태를 추구함으로써 성단과 회중석 의 적극적인 관계를 시도하였다. 오토 바트닝은 예배운동의 이념을 표현주의적 형태로 나타냉으로써 스타교화당(그림 1, 사진 6)에서 첨탑형 아치로 된 7개의 격납교 형태의 지붕으로 하고 원형극장 형태의 회중석을 배치했다. 그러나 이러한 이념들의 초기 효과는 매우 미약해서 성직자들이나 교인들의 반응은 거의 무강각하였으며, 또한 교회건축에는 많은 다른요인들이 작용함으로써 몇몇 건축가나 신학자들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널리보급되지는 못하였다.이즈음 건축디자인의 지역 특성화의 영향으로 교회건축이 지역적인 디자인의 경향을나타내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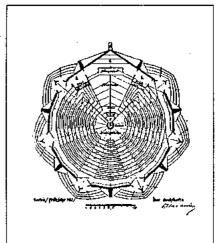


그림1) Starchurch, 1919, Project; Architect: Otto Bartning



사진 1) Saint- Jean-de-Montmarte, Paris, 1894

Architect: Anatole de Baudot

2. 현대 기독교건축의 형성

1950년대에 들어서서 현대건축의 거장들의 교회들은 50년대 교회건축을 대표하는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과 다양성을 교회건축에 제시하였다.

라이트의 유니테리안교회당(그림2)은 그의 유기적 건축의 대표적인 예이며, 최근 경향과 비교해 볼 때, 이건물은 사회활동을 위한 부속공간들

이 예배당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라이트 이전에 이러한 시도를 한 전축가로 예젠다와 부르크 하트를 들 수 있다. 이들은 1936년 바슬에 있는 요한교회를 위충은 예배당으로 쓰고 아래층은 교구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한 2층의 철 골구조로 설계하였다. 이 건물은 미학적인 기준보다는 사회학적기준으로 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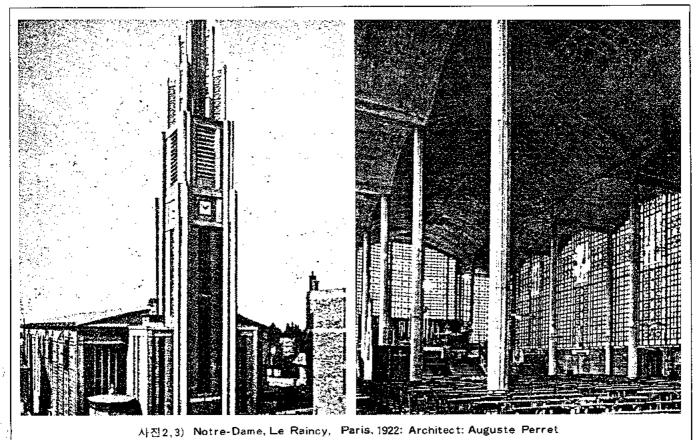
가되어야 할 최초의 교회 중의 하나이다. 오토 센도 이러한 시도를,하였다. 그는 갤럿교회(그림3)에서 5각형 평면의 건물을 교구활동과 직접 연결될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당시 교회건축계획은 일상생활과 분리되어 특수한 장소, 특수한 건물 및 공간이 되어야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이 교회는 당시로서는 상당히 진보적이었다.

교트뷰제의 순례자교화(그림4)는 기 독교 교회건축에 상당한 영향을 준독 특한 해결방법이었다. 당시 대부분의 교회는 장방형의 평면이었으며 일부 육각형, 팔각형, 또는 원형 등의 평면 과 3차원적인 형태가 시도되기 시작 : 하였으며, 제단도 무대형태로 되어 회 중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도록 설계 되고 있었다. 교로뷰께는 이 교회에서 곡면을 사용하여 동굴같은 공간을 창 출한으로써 자연의 힘으로부터 인간 에 대한 보호를 암시하고 동시에 그 것은 어린아이같은 믿음, 기호, 상징, 의미 등에 대한 신뢰감을 느낄 수 있 게 하였다. 그 단순하면서도 부정형, 기하학적인 형태, 조각적인 형태는 새 로운 재료가 감정에 중속되어야 합을 나타냈으며 동시에 고립된 단일건물 로서의 교회를 암시하기도 하였다. 결 론적으로 이 교회는 고딕양식에 대한 최종 승리이며 교회건축에 낭만적, 표 현적 형태 도입의 시초로 평가되고있다.

미이스의 일리노이 공대 채플(그림

5)은 현대 교회건축의 단순화, 구조 및 공학기술과 기능의 결합에 큰 영향을 준 교회이다. 단순한 장방형 입방 체는 아름다운 비례와 공학기술의 일 관된 표현에 의하여 순수한 기념성을 표현하였다. 또한 벽돌, 철골,유리의 교묘한 사용은 개신교 교회건축에 많 은 영향을 주었다.

알바 알토의 교회(그림 6)는 예배 공간이 세부분으로 나누어 쓸 수 있도 록 자유스러운 형태로 구성되고 각부 분은 독립된 출입구를 가짐으로써 서 로 다른 규모의 회중들이 모여 예배 와 교구활동 및 사교모임을 갖도록 계획되었다



3. 기독교건축의 현재와 미래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변천해 온교회 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중요한 경향 을 나타내고 있다.

가. 예배실 평변의 중앙집중화

루터의 종교개혁 후 말씀과 성체성 사가 동격화됨으로써 화중석이 제단 을 중심으로 집중되고 성가대와 오르 간이 제단 가까이에 위치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개신교의 경우 특히 말 씀을 중요시함으로써 희중석으로부 더의 시각적, 음향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방형의 긴 평면대신 정방형, 원형, 타원형, 다각형의 평면들이 사용되었다.

나, 형태의 민주화

이 현상은 민주정신의 기본요소인 창조적 자유라는 명제가 교회건축에 구체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교회건축 형태를 건축가의 창조성에 의존하여 자유롭게 표현함으로써 무의미한 파 거의 양식에서 탈피하는 것을 의미한 다. 특히 현대신학은 교회에 대하여 그 시대, 그 지역의 분화발전에 선구 적이며, 예술문화 창조의 자유를 허 락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 영향은 개 신교의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하다가 꼬르뷰제의 론상교회를 기꼭제로 정점 을 이루었다.

다. 기능의 사회화

교회가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됨에 따라 회중의 모든 다른 활동, 즉 다양한 기능을 수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교회는 더이상 하나님의 집만 이 아닌 너와 나의 만남의 장소로 전 환되었으며, 이러한 새로운 요구는 교 회를 지역사회활동의 중심이 되게 하 였다.

교회는 예배당과 함께 유치원, 주일 학교, 청소년 시설, 도서관, 양로원, 운동장 등을 포함하게 되었으며, 청소 년과 성인교육, 지역사회와의 문화행 사들은 교회의 중요한 기능이 되었다. 그러나 20c 초까지는 이러한 다양한 기능들을 교회가 주용하더라도 신성 한 예배장소와 지역사회활동 공간을 엄격히 구분하였다. 2차대전 후 교회 가 권위중심에서 교구중심으로 탈바 꿈함에 따라 교회는 교구의 집이 되었 고, 교구내의 모든 활동은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교회 내부 공간들은 예배 이외에도 최중의 다른 활동을 고려하여 융통성있게 다용도 화되었다.

라. 스케일의 인간화

과거 고딕양식의 교회가 가지던 위 세와 초인간적인 스케일은 이제 더 이 상 받아들여질 수 없게 되었다. 이러 한 스케일은 너무 비인간적인 것으로, 더우기 교회가 주일에만 예배에 필요 하던 장소로부터 지역사회의 중심이 됨에 따라 수정될 수 밖에 없었다. 여 기서 교회의 주거화, 인간화 현상이 필연적으로 나타나 이웃파의 조화를 꾀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곧 환경과 의 조화를 의미하며, 교회가 위치한 지역사회의 경관을 압도하는 것이 아 니라 인접건물과의 조화를 의미하며, 교회는 교인들의 생활의 연장의 장소 로서 주거의 스케일, 즉 인간적인 스 케일을 갖는 건물이어야 한다.

4. 한국의 기독교건축

가, 선교 후의 교회건축

1892년에 착공된 한국 최초의 교회 인 충현성당과 약현성당은 당시의 상 황과 천주교의 특성에 따라 자연히 건축양식도 고딕양식의 모방으로 시작되었다. 또한 당시는 현대건축사상이 싹트기 시작할 무렵으로 양식건축이 지배하던 시기였다. 이 두 개의 천주교 성당은 이후 한국 교회건축의 모 벨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많은 영향을 주는 전물이 되었다. 천주교와는 달리미국 교파의 선교사들에 의해 19c 말에 전래된 개신교는 성경과 개인의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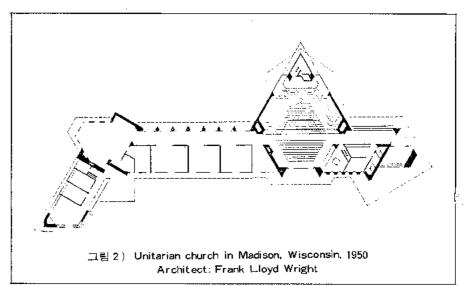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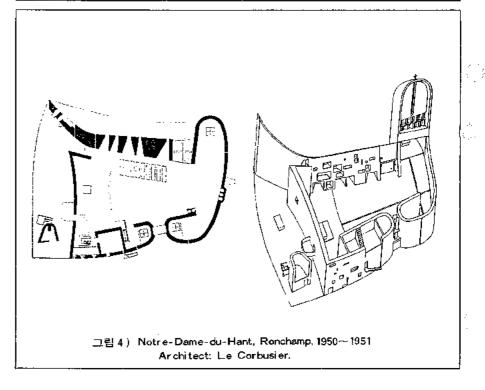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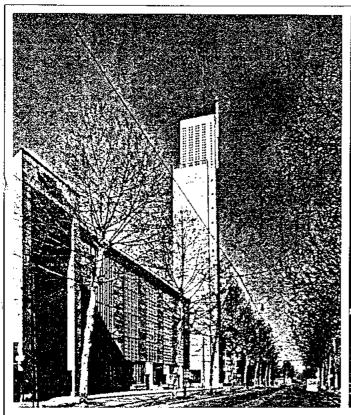


그림 3) Thomaskirche, Geliertsiedlung, Basle, 1951, Project Architect: Otto H. Sen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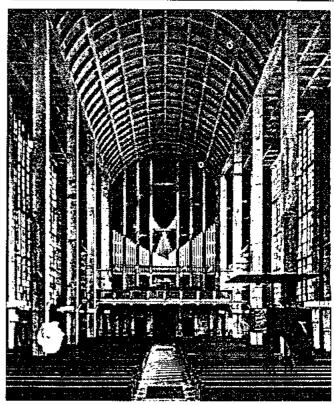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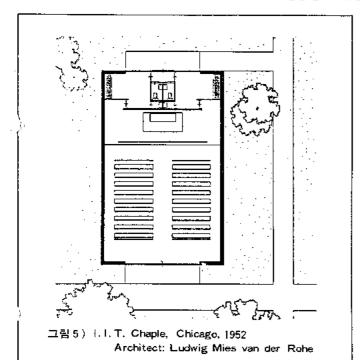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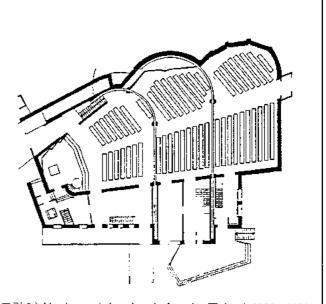
사진4,5) Antonivskirche, Baste, 1926; Architect: Karl Moser

전한 신앙생활에 비중을 두었으며, 지역사회와의 관계는 등한시되고 따라서 진축양식 또한 선교사들에 의해 소개되는 신고덕양식 또는 소위 선교사양식이 지배적이었다. 예배실 내부는 실교단을 희중석 중앙축상에 두고 제단을 설교단 뒷벽 앞에 설치하였고, 서구와는 달리 교육기능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후 한국의 기독교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크게 부흥되었으나 신앙은 깊 이 내변화하고, 일제하에서 현실기되 적 신비주의 경향을 나타냈으며 민족 독립과 구원을 추구하는 민족주의와 기독교의 토착화가 시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독교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여 건의 결핍은 교회건축의 발전을 정지 시켰으므로 특별히 다른 변화가 나타 나지 않았다. 다만 투기할 만한 교회 건축물로 영국의 성공회 성당(1922~ 1926)을 들 수 있다. 이 건물은 다른 대부분의 교회가 고딕양식의 모방이 었던데 반해 유일한 로마네스크양식 의 건물로서 외국인에 의해 설계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적 풍토에 잘적 응한 점에서 교회건축사의 큰 외미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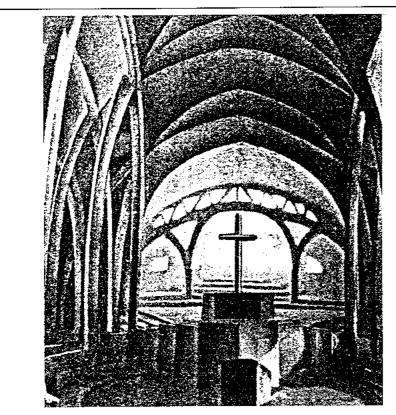


사진 6) Star church, 1919, Project Architect; Otto Bartning

갖는다.

해방후 6·25 동란을 겪고 난 교회는 근본적인 신앙형태에는 변함이 없었으나 과거의 신비주의적이고 종말론적인 신앙은 초기에 교리와 교회조적에 대해 무관심하게 함으로써 사회와의 격리현상까지 초래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해방후 지어진 교회들은 새로운 가능성을 배제하고 선교사들에 의해 전해졌던 교회양식을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교파를 막론하고 고딕양식의 임의 변형으로 일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이 시기에 신학적 연구나 서구교회전축의 소개가 없었고, 경제적 여건이 나빴으며, 전축에의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나, 한국 교회전축의 현재

한국 교회는 1960년대를 큰 전환점으로 볼 수 있다. 60년대 이후 교회와 신학의 토착화가 진지하게 체계적으로 다루어졌으며 신앙의 개인적 내면화, 신비주의로부터 사회, 정치, 경제문제에까지 관심이 커져 교파 상호간의 유대가 활발해지고 성서의 공동번역, 찬송가의 통일화 작업, 신·구교간의 대화, 연합에배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한국기목교의 대부흥은 사회, 경제적 여건의 향상과 더불어 교회의 대량 건축을 유발시켰으

며, 해방 후 부족하고 미숙한 상태에서 지어진 교회건물들이 이미 그 기능을 다할 수 없으므로 대부분 헐려 재건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의 교회건축들이 나타내고 있는 특징들을 살펴보면,

 -, 교세확장 및 경제성장에 따라 교회가 점차 거대회하여 가고 있으며 따라서 교회건물은 주위 환경과 심 각한 부조화를 나타내고 있다.

--, 형태의 양식주의에서 탈피하여 상징주의, 표현주의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

-, 형태의 토착화가 일부 시도되어 왔다.

--, 종탑은 그 기능을 상실하고, 다 만 상징성을 가진 주요 의장요소가 되 었다. 따라서 일부 종탑이 없는 교회 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 평면은 대부분 장방형이지만 70 년대 이후 정방형, 능형, 원형, 부채 꼴 등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어 최중석 과 설교단의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하 고 있다.

-, 교육이 강조됨으로써 주일학교 가 중요한 교회기능으로 건축에 반영 되기 시작하였다.

-, 교회가 지역사회를 의식하기 시 작함으로써 사회화 현상이 나타나고 따라서 일부 교회들이 지역사회 활동 기능을 포함하기 시작하였다.

一, 도시 교회의 대부분이 필요시 설면적에 비해 대지가 영세하기 때문 에 교육기능과 예배기능을 수직으로 중첩시킴으로써, 교회건물을 높고 응 장하게 하려는 고딕양식적 사고방식 과 영합해서, 이웃과 스케일의 부조 화를 야기시키고 있다. 더우기 건축 디자인의 결핍은 이 문제를 더욱 십자 하게 만들고 있다.

· . 일부 교회는 아직도 관습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고딕양식에 대한 막 연한 동경때문에 무분별한 모방이 이 루어지고 있다.

이제 한국에 기독교 교회건축이 시작된지 100년이 되는 시점에서 교회 건축에 대한 신학적, 건축적 입장이 재검토 됨으로써 새로운 교회건축의 방향을 설정해야 할 때라고 본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봄이다. 이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십으로 진실되고 거묵하여야 하며 동시에 인간이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과 만나고 대화하는 곳이어야 한다. 따라서 교회공간은 위계적 구분이 배제되어야 하며, 말씀을 중심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오직 기능적 구분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공동체로서 교회생활은 인간생활의 중심으로 의식되어야 하 며, 교회의 지역적 사명은 교회로 하 여금 지역사회 환동을 포함하게 함으 로써 지역사회에 개방되기 위한 준비 를 갖출 것을 요구한다.

형태와 공간은 이제 과거의 화려하고 웅장함의 추구가 아닌하나님의 신성이 진실되고 거룩하게 표현되고, 의식을 담는 그릇으로서 만이 아닌 그런 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장소로서 표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서구 중세 신앙의 상징인 고딕 양식의 모방으로부터 벗어나 인간에게 주어진 창조적 자유의지에 의한 형태의 창출이 필요하다. 교회는 이미 고립된 피안의 성소로서 만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활의 중심이며 지역사회의 중심의장이 됨으로써 지역과의 조화, 즉 인간화가 요구된다.

意識改革運動의 積極展開

宋鶴祚

〈본회 이사·남성건축설계사무소〉

"自己反省을 통한 非理를 제거해야 할 때"

우리 社会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不正意識을 추방하고 正直·秩 序·創造의 새 가치관을 國民意識 속에 심어주기 위한 意識改革운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새 시대에 들어서면서 지난날의 누적된 極疾的 비리와 폐습에 대한 단호한 剔抉과, 작중 불합리한 제 도의 改善 등으로 町視的이고 外形 的인 비리와 부정이 많이 사라진 것 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治 檢률 위한 법국민적인 意識改革이 이루어지지 않아 곪아 있는 患部 위 에 머어큐리크롬이나 발라두는 그 라한 식에 불과했었다.

한 나라가 變遷하는 역사의 호름을 관찰해 보면, 어떤 國民은 오랜역사와 전통을 가진 나라의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짧은 역사를 가진나라의 국민보다도 文化的으로 生活面에서나 精神意識構造面에서나 뒤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前者의 경우는, 오늘을 사는 世代가 後世에 대한 責任意識을 기피하고 또의무를 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풀이된다.

이제 우리 国民, 우리의 民族史도 과거를 반성하고 後世代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져야할 시기에 와 있다고 본다. 우리가 져야할 後世代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우리 세대에 민주적이며 풍요로운 社会改革을 이룩함으로써 결실을 맺게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가 正直・秩序・創造라는 새 가치과 수립을 위한 国民意識改革이 급선무라는 것은 너무나도 自明한 사실이다.

이처럼 重要地点에 서 있는 우리 는, 과연 우리 社會가 누구에 의해 改革이 추진되고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나아가서는 그 改革의 물결 속에서 나 自身이 해야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物質萬能의 風潮가 팽대하여 物量主義的 가치관이 사회를 지배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이 경시되고, 共同社会運營의 기본원리인 社会的 規範들이 파괴되어 사회석 倫理基 盤이 약화될 때 그 사회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한 社会의 충말을 인류의 역사적 경험으로써 우리는 많이 보아 왔다. 때문에 우리는 이번 기회에 意識改革의 의지로서 국민적 連帶意識을 저해하는 사회적 病理形態인이기적 個人主義意識, 무책임한 過渡期意識, 부정적인 敗北意識, 용준하고 편협한 派閥意識, 무분별한文化的 事大意識, 터무너없는 權威意識, 내용보다 절차를 우선으로하는 意識主義 등을 하루속히 改革하고, 自己反省을 통하여 지금까지의 非理를 과각하게 제거해야 한 것이다.

社会改革은 可視的 효과와 더불어 国民意識의 構造的改革으로 단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痼疾的인 病理意識에서 탈피하여 共同社会의 운영에 전전한 精神을 가지고 참여하는 적극적인 意識改革의자세가 요구되는 것이다.

특히 正義社会具現을 위한 社会 改革의 과정에서 共同社会를 구성 하는 構成員 모두를 위한 配分的 正 義에 관심을 가지고 매사를 풀어 나 가야 한다.

本協会에서도 社会非理 및 弊習 除去를 위하여 국민의 생활과 직결 되는 建築設計의 監理業務 수행에 따른 公信力있는 태도로 社会故革과 建築文化 창조의 주역이 되고자최선을 다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社会浄化運動을 통한 意識改革을 위해 스스로의 方向設定과 体系化로 장기적인 目標意識 속에서 쉬운 것부터 개혁해 나가는 것이 우리 모두가 추구하고 있는 意識改革의 捷径임을 자각하고 主人意識과 더불어 몸소 실천해 나갈 것을 다 집한다.

모든 生活이 正道에 원리를 두고 행하여져 울바른 価値観이 定立될 때 不信風潮는 스스로 추방되어 人 間的인, 그리고 道德的인 사회는 기 필코 형성되리라고 믿는다. 또한 生 活의 基礎를 秩序에 두고 그것을 体 質化한다면, 전전하고 소화있는 산 소秩序의 유지는 물론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사회에서는 예의바른 生 活銀과 청력하고 책임감있는 職場 生活이 이루어질 것이다.

自己本分의 책임과 의무를 충분히 다하여 분수에 맞는 생활자세와 民主市民으로서의 主人意識, 非理,無秩序에 대한 건전한 고발정신으로 확고한 自主精神을 기를 때, 国民和습의 基盤은 조성될 것이며 생활주변의 잡다한 낭비요소, 이기주의와 파벌의식 등은 말끔히 제거되리라 믿는다.

意識改革의 実践要綱의 生活化에 적극 注力하여 결실을 맺을 때 우리 사회는 '88올림픽을 대비한 一等 國으로서 자부심을 갖게될 것이다. 이러한 意識改革만이 사회와 인간을 淨化시키는 첩정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두고 싶다. 〈*〉

개발도상국의 건축과 설계

다음은 지난 2월11일 우리나라 를 방문한 서독의 저명한 건축공학 교수인 「아르놀드 괴르테」(Arnold Körte)교수(다름슈타트工科大學)가 행한 강연내용율 옮긴 것이다.

강연의 주제는 '개발도상국의 건 축과 설계' (Planning and Build – ing in Developing Countries – the Darmstadt Concept)로 주요 내용을 간추려 소개 한다./편집자/

개발도상국의 건축 및 설계에 관해 내 견해를 제시하기 전에 몇가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 있다. 첫째는 사람이란 자기가 위치해 있는 곳으로부터 세상을 바라보듯이 내 견해가 서구적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독일은소의 제 3세계로 "건축전문涯를 수출"하고 있다는 논쟁이 일고 있는 곳이어서 단순히 공업의 수출뿐 아니라보다 중요하게 건축학의 관념, 건축물의 디자인, 선계에 대한 유행과 그동향의 전달 등에도 관계하고 있다.

우리가 세계적으로 관념을 전달하는 그 역할을 즐기면, 또는 그 사실을 알건 모르건 상관없이 세상사람들은 전세계 개발의 모델로서 채택된실에들(건물이나 출판물)에 대해 예리한 눈길을 보내고 있고, 역사적으로 산업화된 서구세계를 지향하는 나라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 또한 개발 도상국이란 무엇이며 실예로 개발의의미는 어떤 것이고, 어떤 나라들을 개발도상국이라 하는지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개발국과 피개발국의 한계가 모호하여 상당히 상대적인 말이되고 있다.

건축에 있어서도 그 말의 근원적의 미를 참되게 말하기란 어렵다.

마르틴 하이벡거처럼 건축 - 거주지 - 존재의 3부작이라고 할지 또는 기 존부분, 만들어지고 있는 것, 전혀 지방적 건축전통이 없이 외부에서 흘 려 들어온 것인지를 정의하기가 곤란 하다. 지구상의 모든 인간의 문화를 철저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으며 개 발국을 철저히 잘 알고 있는 이도 없 다. 그러므로 제 3 세계의 문제를 해 결하는데는 이 모든 여건이 충분치 못 하므로 이점에 관해 두가지, 푹 첫째 는 개발에 관한 연구의 내용과 둘째 는 그 접근방법으로 한계를 두었다.

1960년대 미국 캠브리지 대학의 Walter Gropius의 TAC 사무실에서 제 3세계의 광대한 계획에 대해, 또 카나다의 마니토바대학에서 "취락연구의 중추"에 대해 과학자, 건축가와 함께 연구하였다. 여기서 북극과 사하라 사막의 주거에 대해 둘다 극한지역에 정착했다는 것과 풍부한 자원에 대한 인간의 극한적 도전이란 점에서 큰 차이점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1970년대에나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인간주거의 原型에 대해 심취해 있었다. 원시주거에 관한 연구는 우 리자신의 발전을 되돌려 생각케하며 개발사업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준 다

예술 건축의 역사와 문화역사 사이에 엄격한 기능적 구분이 전통적으로 존재해 왔고 종교·문화에 깊이 뿌리박힌 건축은 좁은 의미에서의 건축학적 역사에는 맞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는 개발도상에서 저질러진 많은 실수, 즉 실질적 도움, 적당한 공학, 스스로 돕는 것을 진전시키는 대신 그들의 목전에 요구하지도 않은 산업주의를 밀어넣음으로 해서 생겨난 많은 실수들을 알고 있다.

자기류의 전축이나 공학에 관한 집 동사니 기술에 흥분하지 말며 우리자신의 파거, 주택건축의 수천년에 이른 인간의 경험으로 형성된 ·업적 중무엇이 더 미래지향적인가를 생각해야 개발의 정근방법에 있어 우리가 그러리라 상상했던 것과 실계와는 커다란 틈(gap)이 있다. 시간과 공간에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문명의 내면적 가치와 정당성을 무조건 인식하여학식있는 사람이 아닌 경험있는 사람이 개발에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다.

불신, 상한 자존심, 수세기 동안의 총지못한 경험, 백인들의 약속 불이 행 등이 개발국가 사이에 야기되는 문제의 핵심이다. 토착민에 대한 신 뢰, 그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감성,자 발성이 개발에 근본이 되는 것이다. 유럽에서는 커미션을 바라고 돈을 빌 려 근동, 아프리카로 가는 것이 오늘 반의 개발사업의 현실이 되고 있다 자국의 형편이 펼 때 되돌아 가는 조 건으로 제 3세계로 옮아가는 건축가 를 훈련하는 것이 우리의 교육목적이 될 수 없다. "Darmstadt 案"의 목적 과 내용을 알아보자. 이 '쏬의 첫번째' 의무는 세계의 가장 부유한 나라로서 소위 개발국가를 돕는 것이다. 측 우 리가 얻은 이론과 실제에 대한 지역 을 가졌다는 이점과 공업에서의 선구, 자라는 입장만을 고수할 것이 아니다, 이 寫를 나누어 털 특혜를 입은 나라 에 양도하는 도덕적 의무인 것이다.

두번째로는 개발국을 돕는 것은 바로 自國의 건축과 설계방법에 직접적이익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개발사업의 부산물이 곧 우리의 건축관습에 새로운 감각, 디자인의 새로운 장수가되다는 것이다.

세번째는 도시계획의 새로운 관점이다. 많은 개발국가의 취락형태는 유럽중심의 그리스 -로마형 격자모양의 구조에 갇혀 지내면 우리에게 신선한설계관념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Grand Circle' 광대한 원이라는 여설계는 여러 아프리카 나라에서 촌락형태를 통해 그 정당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단순한 교통소통의 형태이상의 독특한 생성력있는 설계관이다. 단순히 사물의 이동방법으로서의도로망에 익숙해 있던 우리에게 'G-rand Circle'은 거대한 공간 구조에원의 결합에 의한 강력한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Aldo van Eyck의 말을 인용하여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인간은 수천 년 천부터 이 지구성에 존재해 왔다. 만약 우리가 장구한 과거를 현재에 투사시키지 않는다면 풍부한 환경적 경험이 우리의 현재 속에 직용될 수 없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역사 속에 살고 있는 것도, 과거에 대한 향수져 열망도 아닌 오히려 현재에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며 계획된 현재의 방편으로 과거를 미래에 투사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야 말로 감상적 역사주의나 현실주의, 이상주의에 대한 유일한 처방이다.

과거·현재·미래는 인간의 성신내 면에 영속적으로 작용한다. 그렇지 않 다면 우리의 건축은 역사가 없는, 약속 된 장래가 없는 건축이 되고만다.

會員教會作品

馬山聖堂

金雲根一季・콩ご연구소

MASAN CATHEDRAL

Kim, Swoo Geun-Space Group of Korea

압구정동聖堂

李喜泰 - 주・엄 & 이건축연구소

CATHOLIC CHURCH AP KU JUNG DONG

Lee, Hi Tai-Aum & Lee Architect. Associates CO., LTD.

소망敎會

金基弘・崔東奎一서인건축연구소

SO MANG CHURCH

Kim. Ki Hong - Choi, Dong Kyu- Secium Design Group

청파監理敎會

要泰星ー고려건축합동설계사무소

CHUNG PA METHODIST CHURCH

Kang, Tai Sung-KOREA Architects & Engineers

서부제일長老敎會

羅永均 李光容 - 동신건축합동설계사무소

SUE BOO JEIL PRESBYTERIAN CHURCH

Rha, Young Kyun - Lee, Kwang Yong - Dong Sin Architects & Engineers

天主教 ひ 실教會

朴在煥 - 도성건축연구소

ZAMSIL CATHOLIC CHURCH

Park, Jae Hwan-Dosung Architects & Associates

삼봉監理敎會

尹鳳源一건축연구소 원건사

SAM BONG METHODIST CHURCH

Youn, Bong Won-Won Kun Sa Architects & Engineers

산성敎會

林級周一임급주건축사무소

SAN SUNG CHURCH

Lim, Gup Joo-LIM & Associates Architects

서강監理教會

鄭時春一정주건축

SEO KANG METHODIST CHURCH

Joung, Si Choon-Joung Joo Architects & Associates

의정부監理敎會

車東明ー차건축연구소

UEJUNGBU METHODIST CHURCH

Cha, Dong Myung-Cha's Architects & Associa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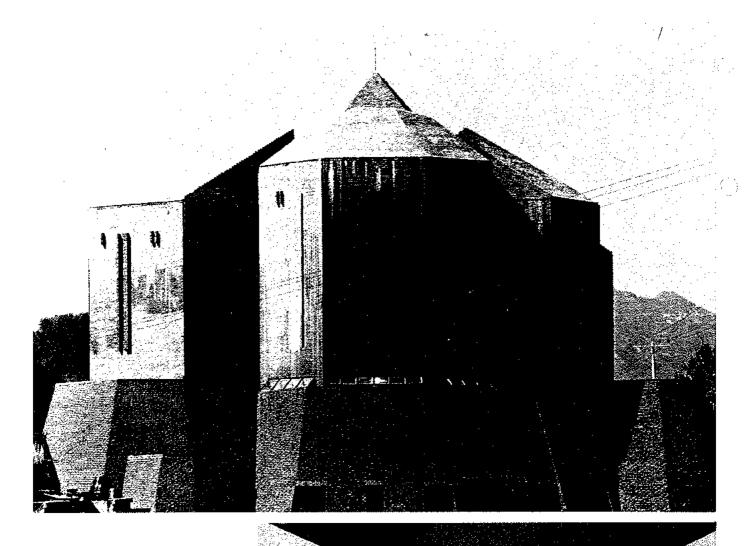
馬山聖堂

金 **壽 根** — 주·공간연구소 / 건축사

MASAN CATHEDRAL

Kim, Swoo Geun - Space Group of korea / Archit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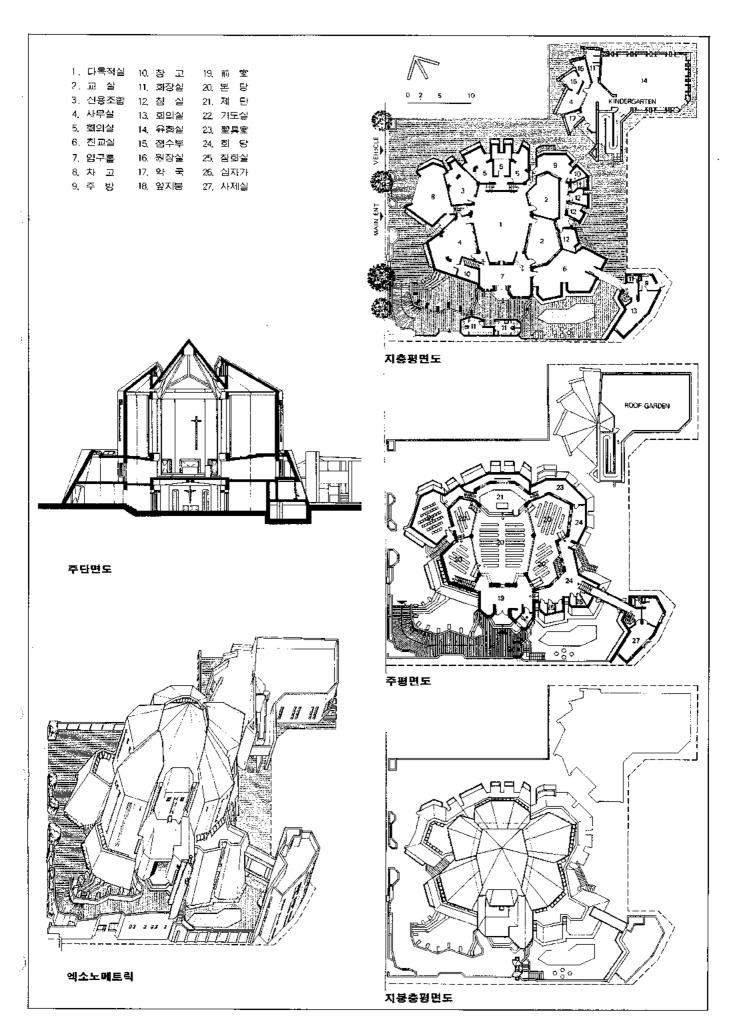


소 재 지;마산시 양덕동

대지면적: 1,785 m² 건축면적: 892 m² 연 면 적: 1,702 m²

구 조:RC조 및 일부 조적조

준 공: 197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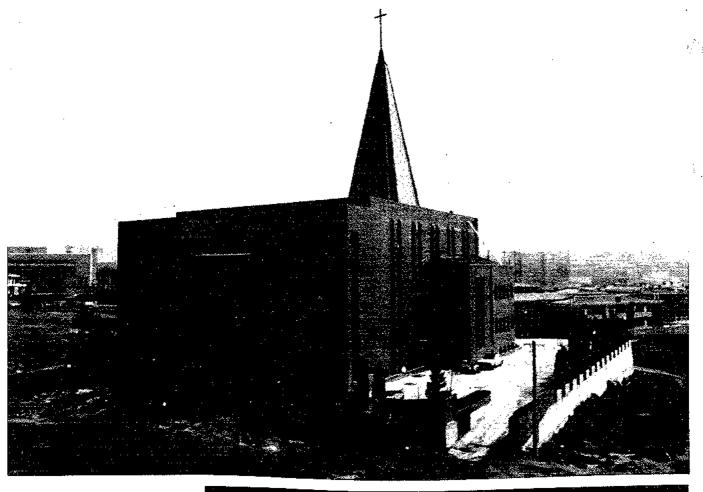
압구정동聖堂

李 喜 泰 -- 주·엄 & 이 건축연구소 / 건축사

CATHOLIC CHURCH AP KU JUNG DONG

Lee, Hi Tai - Aum & Lee Architect, Associates CO., LTD. / Archit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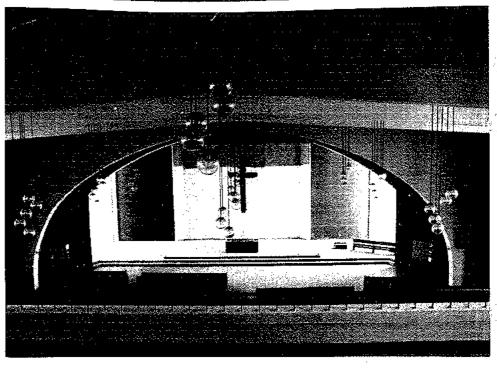


◆ 設計概要

본 계획은 강남구 신사동에 위 치한 천주교회 압구정동성당으로 서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이 다.

계획의 주요점은 Catholic 교회라는 것을 감안하여 평면에서 십자형태를 변형시켜 고딕교회의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성당내부에는 탑에 길게 창을 두어서 그 부분의 천정을 Open시킴으로써, 자연 재광의 효과를 냈다.

그리고 양측면으로도 자연채광 효과를 주어 교회로서 필요한 제대의 성스러운 신비감을 부여하 였다.



소 재 지 : 강남구 신사동 산 5 - 4

대지면적: 2,479.34 m² 건축면적: 1,053.2 m² 연면적:3,521.6m²

조 : R·C조 및 트러스

◆ 1층평면도

① - 다목적 Hall

②-경로실 ③ - 성서성물판매소 ④-본당 사무실

③-가정부살 ⑥ - 주빙 · 식당

⑦ - 탕비실 ⑧-참 고

◆ 2 총평면도 ⑨~회립실

⑩-서탖실

① - 거 실

②-식 당

⑱-주 방

(B) - 참 실

⑱=보좌신루슬

① – Hati

②-고해소

③ - 신자석

④ ~ 물탱크실

⑤ - 준비실 ⑤ - 제의 · 성구실

⑨-쁰 도 ⑦-제 단 ⑧→기계실

● 주단면도

① = 신자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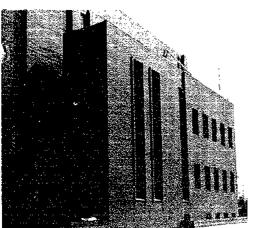
②-제 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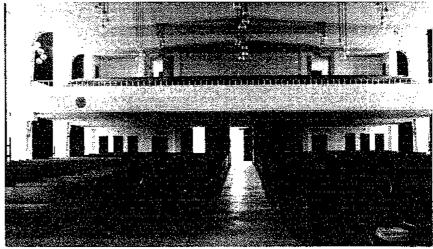
④-참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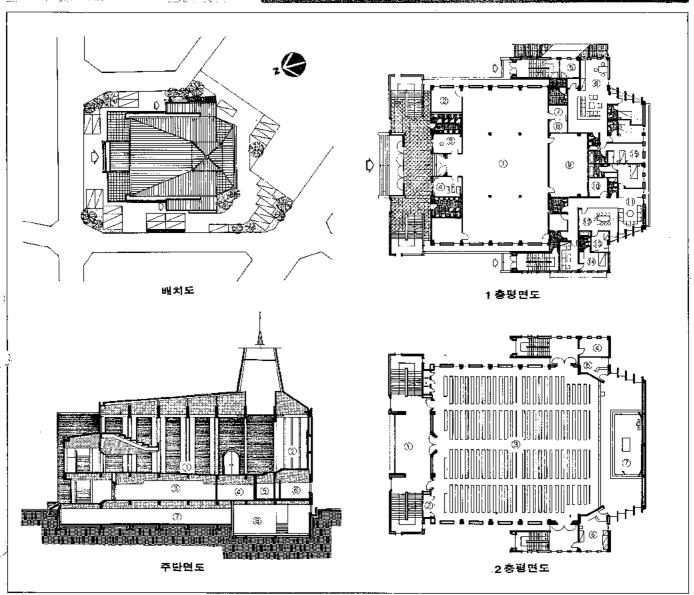
⑤-욕 실

⑥=수녀실

3 - Hall







소망敎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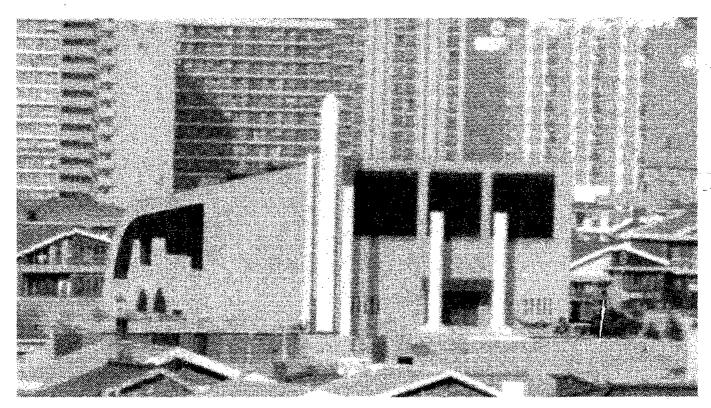
金 基 弘·崔 東 奎 — 서인건축연구소 / 건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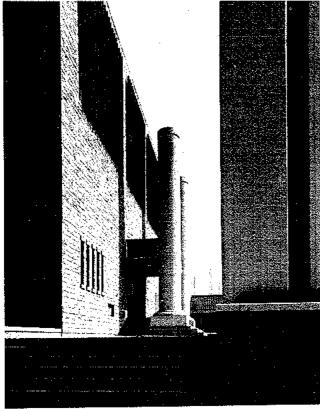
SO MANG CHURCH

Kim, Ki Hong-Choi, Dong Kyu - Seolun Dosign Group / Archit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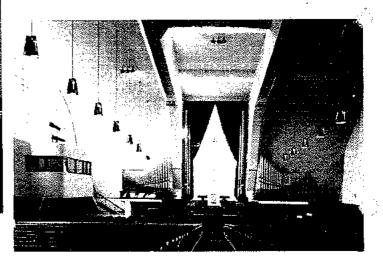


◆設計概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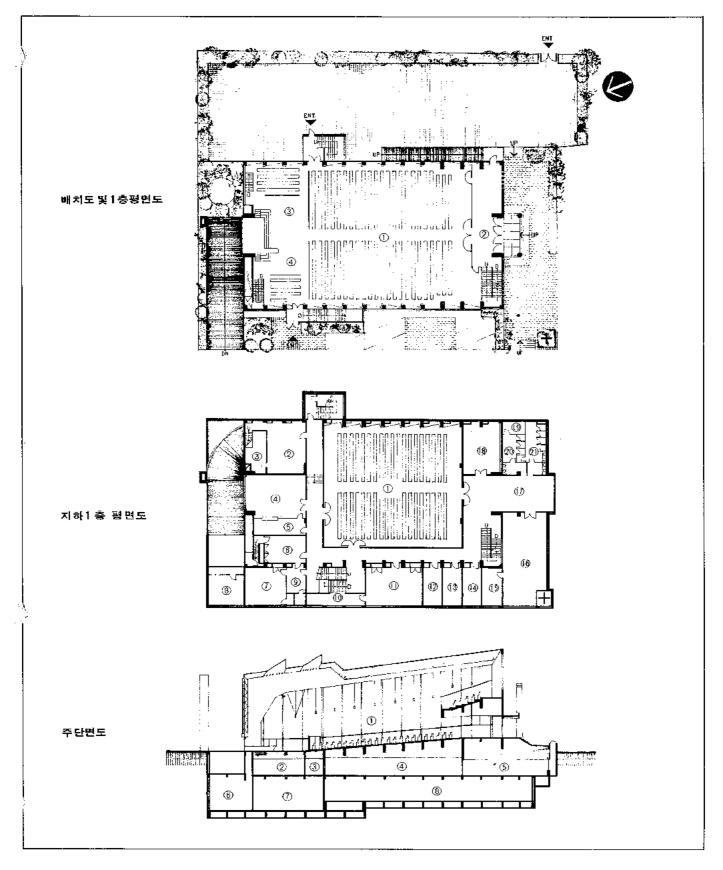
한정된 대지에 비해 건물의 요구면적이 많았다. 따라서 1 총을 본당이 차지하고 나니 교육관을 지을 여유 공기가 전혀 없었다. 그리하여 교육관은 지하층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지하 교육판에서의 체재시간이 오히려 많을 것을 예상하여 채광과 환기를 최대한으로 고려, 지하층으로서의 핸디캡을 줄 여 보려고 애썼다.

본당의 형태는, 음향관계를 절대적으로 중시하는 건축주의 (*) 요구에 의하여 둥그런 형태를 취하게 되었고 채광 또한 낮에 는 인공조명이 전혀 필요없을 정도로 밝게 만들었다.



소 재 지 : 서울 강남구 신사동 •배치도 및 1층 평면도 ◆지하 1층 평연도 ⑨-비서실 (18) - 교육실 (3) • 주단면도 () - 펌프살 ⑩∼청고 ① - 예배살 ① - 교육실(1) ① - 예배실 대지면적 : 2,533.06㎡ ② - 성기대실 ① - 사무실 ⑩ - 남자화장실 ②·몰 ② - 식당 연 면 적: 3,627.05㎡ ③ - 정가대석 ② - 전도사실 ② - 여자화장실 ③ - 창고 ③ - 복도 규 모: 지하 2 총 · 지상 2 총 ④ - 장로석 ④ - 식당 (3) - 부옥사실 ④ - 교육실 ⑤-주방 ⑩ - 부목사실 ⑤-蹇 구 조 : 철골 및 라멘조 ⑥ - 회의실 ⑤ - 준비실 ⑥-변전실 ⑦ - 당회장실 (16) - 교육실(2) ⑦ - 기계실 ® - 감사원 대기실 ⑦- 🛎 ⑧ - 주차장



청파監理教会

姜 泰 星 - 고려건축합통설계사무소 / 건축사

CHUNG PA METHODIST CHURCH

Kang, Tai Sung - KOREA Architects & Engineers / Archit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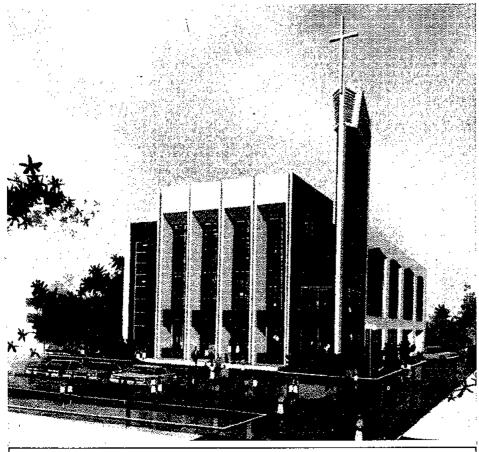


소 재 지 : 서울 용산구 청파동 85의 5

대지면적: 769.79m² 연 면 적 : 1,288.03m²

모 : 지하 1 층 · 지상 3 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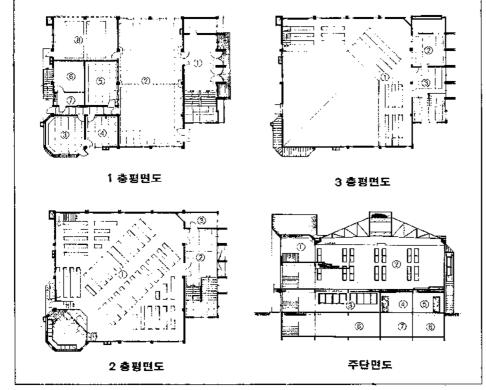
조 : 철근콘크리트조



◆ 設計概要

본 교회가 위치한 대지의 주위에 는 고충건물과 학교 및 주택이 밀집 하여 있다. 따라서 대지의 전면도로 부분이 협소하기 때문에 교회의 外 的美보다 内的美를 추구하여 아담 하면서도 포근함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모이는 곳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곳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예배실 천정을 중 앙으로 향하게 하여 빛이 사방에서 모여드는 형태가 되도록 하였다.



● 1 층평면도 ① - 骞

② - 교육관

③ - 당회장실

④ - 사두실

⑤ - 회의실 ⑧…방

⑦ - 주방 ⑧ - 주차장 ● 2 충평면도

① - 예배실 ② - \(\bar{\Pi}\)

③ - 사무실

● 3 충평면도 ① - 예배실

⑤-방 ⑥ ~ 식당

② - 유아실 ③-폴

⑦ - 창고 (8) - 기도설

● 주단면도

② - 예배설

③ - 교육관

④ - 화의실

①-喜

서부제일長老教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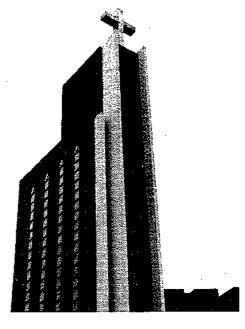
羅 永 均 • 李 光 容 — 동신건축합동설계사무소 / 건축사

SUE BOO JEIL PRESBYTERIAN CHURCH

Rha, Young Kyun - Lee, Kwang Yong - Dong Sin Architects & Engineers / Archit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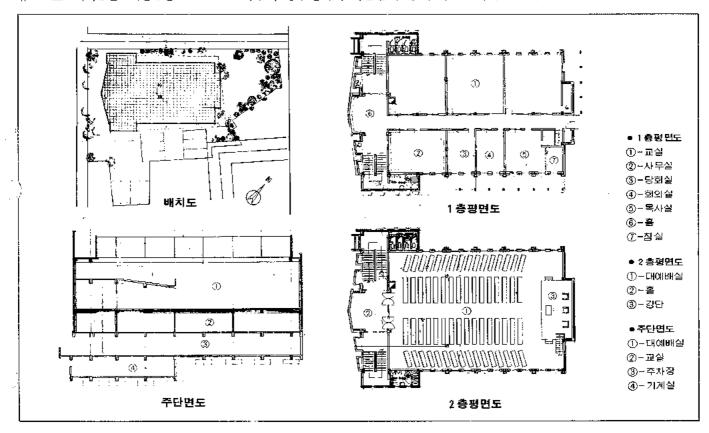
소 재 지 : 서울 은평구 응암동 145

대지면적: 1,253.16m² 건축면적: 484.61m² 연면적: 1,845.94m²

규 모:지하 2 춤ㆍ지상 3 충

■ 設計概要

경사진 대지를 이용하여 교회가 요구하는 기능과 주위환경에 조화될 수 있는 건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였다. 외부의 영구관리에 허술함이 없게 하 였으며, 내부공간은 교회의 신성한 분위기톨 살리는 한편 학생들을 위한 교육관의 기능으로서 초등부에서 대학부까지로 구분하여 설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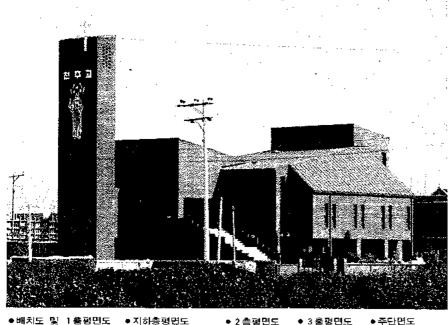
天主教 잠실教會

在 煥 - 도성건축연구소 / 건축사

ZAMSIL CATHOLIC CHURCH

Park, Jae Hwan - Dosung Architects & Associates / Architect -





●배치도 및 1용평면도

①-만남의 병

②-사무실

③ - 성물 판매소

(4) - 커피숍

⑥~창고

⑥-유이실

⑦~주방

(â) - 보모실

⑨~대기실

⑩~화장실

● 지하층평면도

①-주일학교교라실

② - 사목회의실

③~보일러싶

④-창고

⑤-인쇄실

⑤~고해실

⑥-제의방

⑦-창고

①- 전실

③-제단

②-신자석

④-준비실

①~ 합장대

④-발코니

①=신자석

② ~ 제단 ②-참고

③-물탱크실 ③ - 함창대석

④-전설 ⑤-유야실

⑥-만남의 방

⑦-커피숍

③-현관

⑨-교라설

(1) - 복도

(i)-창고

소 재 지 : 서울 강남구 잠실동

대지면적: 1,127.56m²

건축면적: 446,28m²

연 면 적: 1,515.32m²

모 : 지하 1 층 · 지상 3 층 외벽마감 : 붉은벽돌 치장쌓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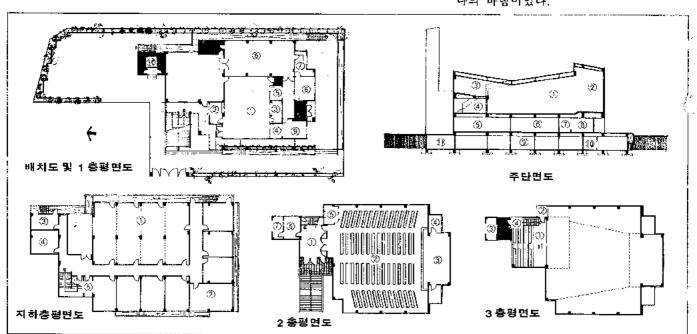
조 : 칠근콘크리툐조

◆ 設計概要

교회가 요구하는 평면의 기능적인 해결 도 중요하였지만 건물자체가 주는 교회로 서의 Image Making에 더 큰 비중을 두었 다.

2층 성당병면의 단조로움은, 지붕이 펼 치는 외부형태가 그대로 성당내부 공간에 도 반영되어 다이내믹한 분위기를 연출토록 하였으며, 외부는 붉은벽돌 치장쌓기와 동 판으로 지붕을 씌움으로써 단순하면서도 중후한 질감이 형태의 유니크함과 잘 조화 되도록 하였다.

건물자체의 준공이 천주교회로서의 완성 이 아니라 신자 공동체로서의 일치와 지역 사회에 더 많은 복음전파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뜻이 설계에서 완성될 때까지 가졌던 나의 바램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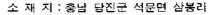
삼봉監理教會

鳳 源一 건축연구소 원건사 / 건축사

SAM BONG METHODIŞT CHURCH

Youn, Bong Won - Won Kun Sa Architects & Engineers / Archit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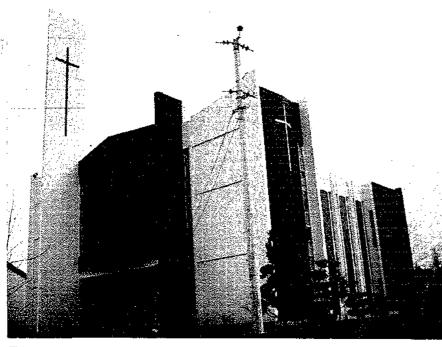


대지면적: 1,450,26m² 건축면적: 362.51m² 연 면 적:778.82m²

◆ 設計概要

계획하였다.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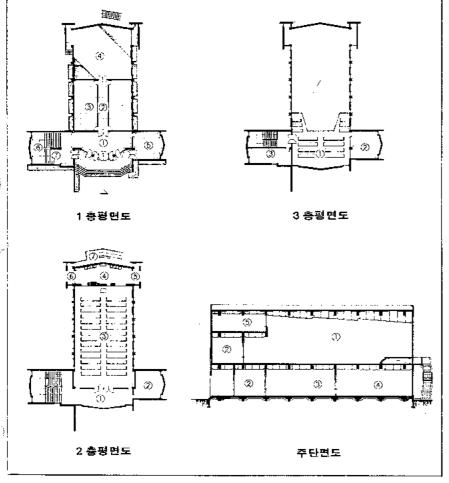
이 전물은 아산만 근처 리단위 부락의 한적한 농촌교회이다.

기존교회의 일부를 교육관으로 활용하 고 있어 본 교회건물은 예배공간을 중심으 로 배치하였으나 일부는 사무실 공간으로

이 건물은 지방에 위치하고 있으나 역시 대지의 여유가 부족하여 운동장 일부와 주 차장을 제외하고는 겨우 건물배치밖에 할 수 없었기에 대집회실을 1층으로 잡지 못하 고 2층에다 배치하였다.

진입로가 우측과 전면으로 나기에 현 관입구선을 꺾어 여유를 갖어 보았으며 1 층에는 사무실공간과 1개소의 소집회실을 누었다.

또한 예배단당자의 출입을 돕기 위하여 비상계단을 주택과 연결시켜 동선을 줄였 으며, 강단 뒷면의 통로를 활용하여 준비 실 및 성가대의 출입에까지 신경을 써보았 다.



◆ 1 총평면도	● 2층평면도	● 3 총평면도
① −\$	①-홑	①-자모실
②복도	②-사무실	②-톼이실
③-사우실	③)-대예배실	③=사무실
④-소집회실	④-강단	

⑤-당회실 ⑤ - 준비실 ● 주단면도 ⑥-계단실 ⑥-기도실 ①-대예배실: ⑦~비상계단

(7)-참고

③-黒도 ④-소집화실 ⑤~자모실

(2)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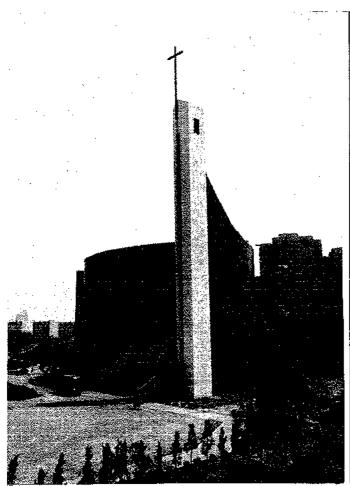
산성 敎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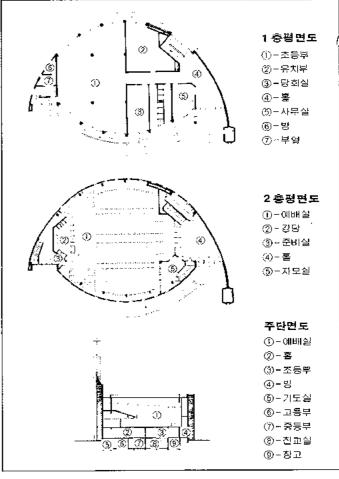
級 周一 일급주건축사무소 / 건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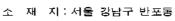
SAN SUNG CHURCH

Lim, Gup Joo - I.IM & Associates Architects / Architect









대 지면 적 : 1,460 m²

건 축 면 적 : 466 m²

연 면 적:1.517 m²

조 : 철근콘크리트 라뗐조 외부마감재: 붉은벽돌 치장쌓기

귞



성전이 들어설 대지는 반포아파트 지구 주택공사 제 3 단지 내에 있는 종 교용 부지이다.

교회측의 요구는 800명 수용의 본 당과 기타 교육시설, 그리고 각 기판 의 사무실 등이었다. 그것은 인구증 가와 교인들의 선교활동이 활발해짐 에 따라 교회의 양상이 소규모에서 대 규모로 부흥하는 추세에 발맞추기 위 해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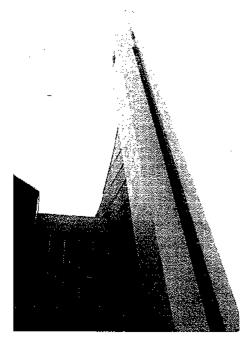
대지의 남쪽에는 약 6m 정도 높은 고속도로 진입로가 있으며 북동쪽에 는 주공야과트群이 있어 교통과 자연

환경에 무리없이 조화될 수 있는 교회 가 되도록 하기에 고심하였다.

모: 지하 1 층·지상 3 층

본당의 평면구조는 반원 두개를 마 주 놓은 듯한, 즉 배(船) 모양의 평면 으로서 회중과 강단의 간격을 좁혀 서 로 포근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위 기를 조성해주고 있으며, 船頭에는 탑 을 두어 인류에게 희망이 되신 그리스 도를 상징하였다.

그리고 대예배실에는 방송실을 두어 음향조절·TV·비디오·녹화장치를 설치 하였으며, 소음방지를 위하여 폐어 글: 라스를 사용하였고 특히 도로면에는 고정창을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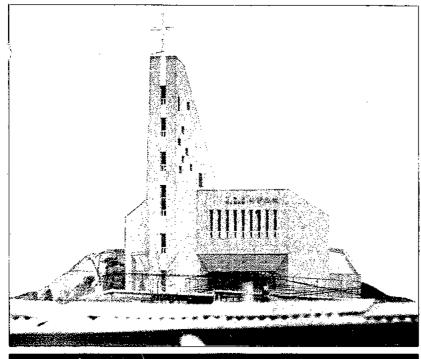
서강監理教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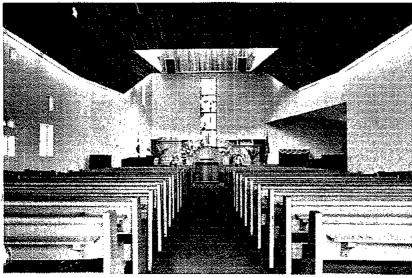
春 一 정주건축 / 건축사

SEO KANG METHODIST CHURCH

Joung, Si Choon - Joung Joog Architect & Associates / Archit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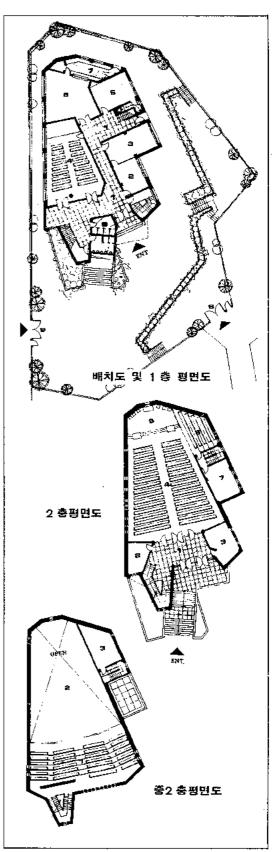


소 재 지:서울 마포구 창전통 대 지 면 적 : 1,394 m² 건 축 면 적 : 399 m² 면 적:1,182 m² 모 : 지하 1 층 · 지상 3 층 규

구 조ː철근콘크리트 라멘조

① - 전월 ② - 사무실 ② - 음향실 ③-자모실 ③ - 회의실 ④ – CH여에에 쓸 ④ - 집회실 ⑤ - 목사실 ⑤-강단 ⑥ - 식당 ⑥ - 성가대석 ⑦ - 주방(부엌) ⑦ = 성가대연습실 ③ ~ 화장실 ● 중 2 총평면도 ⑨ - 대문 ① - 중2층에배실 ② -- 대예배실상부 ③ - 물탬크실

●배치도 및 1층평면도 ● 2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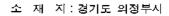
의정부監理教會

車 東 明 — 차건축연구소 / 건축사

UEJUNGBU METHODIST CHURCH

Cha, Dong Myung — Cha's Architects & Associates / Archit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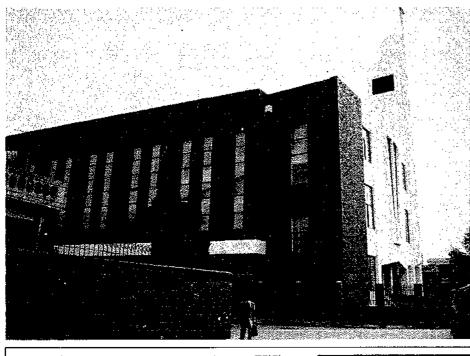




건 축 면 적 : 581.50 m²

연 면 적:1,771.50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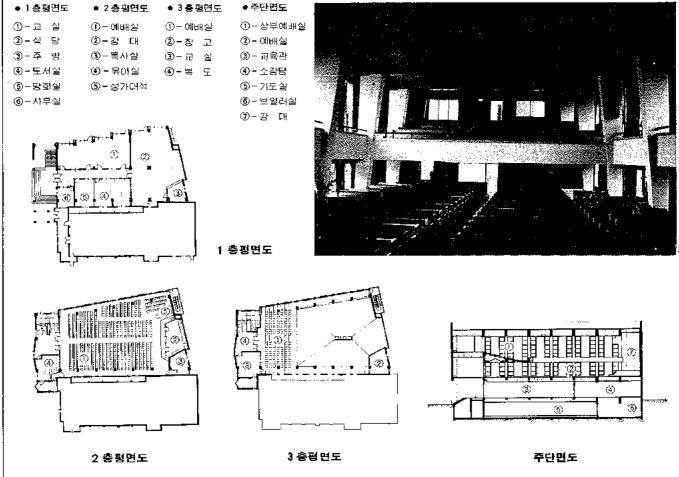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 設計概要

본 건물은 의정부시 중심가에 자리 잡고 있다. 기존의 石造建物인 美1軍 闭 参戦記念館을 보호하면서 본 건물 의 鍾塔을 중앙으로 두어 新과 萬의 조화를 살렸다.

또한 <u></u>
<u>学</u>地条作과 부합되는 평면배 치로서 기능적인 유대와 空間構成을 꾀하였다.



아메리카 20[I]

大韓建築士協會 해외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1978년까지 2차에 결친 訪美를 통하여 AIA 및 건축관계인 사물과 친교를 맺어 왔었다.그러나그후 協會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수차에 걸친 AIA 모부터의 초청이 있었으나용하지 못하던 차에 갑작스러운 조청의 기회가 있어 출국수속 10여인만인 1982년 2월9일, 서울支部 회원 15명으로 구성된 팀이 訪美 길에 오르게되었다.

이번 訪美目的은 AIA 로스엔젤리스 支部 및 CIRB (Construction Industry Research Board)와의 최합을 갖기 위합이며 방문처는 AIA本部였다.

日程은 사전에 면밀한 검토불 하여 자 지역별로 일정표를 작성하였으며 현지 사정에 따라 발생할 변경사항도 고려해 놓았다.

◆뉴 욕

10여 시간의 空路를 거쳐 무사히 케네디空港에 안착했다. 김포공항을 출발한 시각이 2월9일 19시 20분이었으나 時差탕으로 뉴욕 도착시간 역시同日(9일)인 21시 05분이었다.



□ 뉴욕 Solomon R. GYGGENHEIM 박물관에서

입국수속은 앵커리지空港에서 마쳤 으나 통판수속을 하기 위해 잠시 기다 리면서 공항 내의 풍경을 살펴 보았 다. 그리고 처음 느낀 것은 行動凡節 과 대인관계 등의 官行方式을 미국식 으로 익혀야 함을 실감했다. 한국적인 사회 분위거의 一面으로 自他間의 언 행이 과히 매끄럽지 못한 점을 지적 할 수 있는데 미국적인 합리성을 바탕 으로 한 그곳의 사회 분위기는 그러한 관습에 익숙치 못한 우리에게 다소 부 탐스러움을 주었으며, 따라서 자연히 일거일동에 신경이 쓰여졌다. 물론 우 리의 생활풍습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 다. 그러나 우리를 모르는 그들 社會 에 발을 들여 놓았음으로, 그들 방식 배로 행해주는 것도 國際社會人으로 서의 예의일 것 같았다.

通關이 시작되어 우리 일행은 공항을 빠져 나왔다. 일행 중에는 해외근무나 歐美各國을 여행한 경험이 많은 회원들도 여럿 있었으나 대부분의 화원들이 初行이었기에 나는 뒤에서 그들의 거동을 주의깊게 지켜 보았다. 그러나 구집없이 여유있게 처신하는 그들의 행동을 보고서 사회의 지도층임을 스스로 자처하는 專門職人임이당연하다는 것을 느끼며 흐뭇한 마음이 되었다.

稅關申告書에 수만 달러를 소지하였다고 기재한 관계로 세관원으로부터 돈의 내용에 대해 물음을 당했으나 15명 회원의 共同費用이라는 설명을 듣고서야 세관원은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소지품은 전혀 거들여 보지도 않았다.

安 箕 泰 ― 동화건축연구소

보이는 전물이었으며 객실수 또한 2 천여개나 됨직했다.

출국 이후 처음 대하는 韓式으로 늦은 저녁을 마치고 자유시간을 가졌다. 밤거리를 구강하고 돌아오니 깊은 밤 중이었다. 그러나 친지들이 달려와 피 곤함도 있은채 환담의 꽃으로 시간가 는줄 몰랐다.

친지들을 전송하기 위해 호텔을 나 섰다. 결모통이에 빤히 보이는 목로 주접. 누군가가 한잔 하자고 한다. 시 간은 새벽 한시. 몇순배하고서 헤어 졌다.

새벽 두시의 뉴욕에서의 첫밤.

호텔 문앞에 우두커니 홀로 서있는 심정은 그저 쓸쓸하기만 했다. 심호흡을 한번 한 뒤 시선을 한바퀴 들려본다. 그때 나는 갑자기 군중들의 환호성을 듣는 착각 속에 잠간 빠져 들었다. 그것은 낮익은 建物, 바로 알리의 세기의 對決場所였고 유명한 集會의 본산인 Madison Square Garden建物과 눈이 마주쳤기 때문이었다.

나는 궁금했다. 그 궁금증은,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으면서도 사내 한 복환에 위치한 조건으로 보아 여러가 지 機能上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 을까 하는 점이었다(그후에 비결을 알 았지만).

공연한 걱정을 하고 있구나 하는생 각이 들어 정신을 가다듬고 숙소로 들 어 섰다. 푹 쉬자. 일행은 모두 깊은 잠에 빠져 들었겠지…….

아메리카大陸 순방의 大長征(?)의 첫날이 밝았다.

全員이 예정된 일정표에 따라 한치의 어긴도 없이 서로 앞장서서 움직여 준다. 일정이 순조로울 것같은 것을 작각하나 밝은 마음이 되었다.

3일간의 뉴욕日程은 너무 짧았다 (全日程도 마찬가지지만), 할 수 없 이 走馬看山格으로 훓어보는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아무리 수밖 겉핥기 식어라 해도 평소에 갖고 있던 지식 이 바탕이 되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천문직의 建築人으로서 마땅히 도시. 환경, 건축 등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어야 했으나 나는 異端的인 생각을 갖었었다. 즉 각 분야의 風物과 表情을 살펴 보는데 더 큰 흥미를 느꼈던 것이다.

미국의 3대 名所 중의 하나인 自 由의 女神像으로 나룻배를 타고 서 서히 다가갔다. State의 建立의 역사 적 동기와 규모 등은 주지의 사실이 기 때문에 언급할 필요가 없으리라고 본다.

수많은 사람들이 祖國을 떠나 희망과 불안으로 뒤엉킨 마음을 조이며 거센 파도에 시달리다 新天地에 첫발을 딛게 되면 처음 만나는 것이 우뚝 서있는 자유의 여신상이며 그녀의 품 안에 안기개 된다. 바로 옆에 보이는 당시 移民局建物을 보면서 100년 전의 풍경을 상상해 보았다.

나룻배에서 내려 그녀의 몸 속으로 이끌려 들어가 본다. 女神像의 의미에는 역사적이고 크고 아름답다 동의 구경거리로만은 보아 넘칠 수 없는, 미국의 중요한 혼이 맡겨져 있으며 그 것이 社會構造의 바탕이 되고 있다. 이곳이야말로 自由精神의 원천이자 교훈의 場이며 실천의 상징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오늘과 같은 自由를 누리기에 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따랐었을까? 거기에는 상당한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들은 自由를 Freedom이라 표현하지 않고 Liberty 라 한 것도 어쩌면 그들의 강한 의지의 표현이 아닐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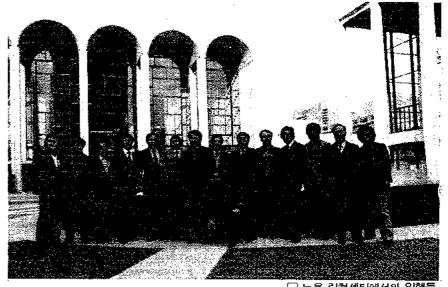
일정에 따라 본격적인 강행군이 시 작되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들아본 곳을 간략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 World Trade Center

1966년 착공, 10 년 후에 준공, 110층 으로서 延 30 한평, 승강지 99대, 약 5 만명 수용

*UN本部

이스트江邊의 42番街에서 48番街까지의 약 73,000 m²의 대지 위에 세워져 있음.



□ 뉴욕 링컨센터에서의 일행들

록펠러 기증, 총회장·사무처· 각이사회, 그리고 부분적으로 각국에서 기증한 자료 및 기념물로 건축 또는 전시장식, 한국 참전 16개국의 뜻을 새긴 銅板을 벽면에 부착.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1931 년 완공. 5™AVE~34™ST.

1931년 완공. 5 "AVE~34"ST. 102층으로서 높이 381m. 수용인원 15,000명, 매일 35,000명이 방문.

*록펠러 센터

Rockefeller Plaza의 · 50,587m²에 16개의 빌딩群으로 형성되어 있음, 1922~1939년 사이에 건축. 文化·科學의 정수임. 그 중 RCA, Radio City Music Hall 등이 유명함.

☀세인트 페트릭大寺院

5™AVE 방향, Roman Catholic Church로서 고딕식 건물.

*General Grant National Memorial 및 리비사이드敎會 — Christ Chapel, 72개의 鍾이 유명

*Solomon R. Gyggenheim Museum 1946 - 1959. Wright의 作品, 현재 (Kandinski In Munich)가 전시 중인 데 승강기로 상충까지 올라가 나선형의 전시장을 下向 관람할 수 있도록된 것을 대다수의 관람객들은 경사로로 기술러 올라가고 있다

*링컨센터

West 62NDST-66개ST의 중간. 필하머니홀·뉴욕 State Theatre· Vivian Beaumont Theatre·메트로폴 리탄 오페라 하우스 등이 있으며 심 포니·연극·영화·발레·오페라의 중 심지.

그 밖에 흑인의 할램街와 센트럴 파

크, 뉴욕 근교의 住宅街 등을 두루 살 펴 보았는데 아쉬운 것은 욕심을 부 려서라도 적어도 프릭美術館・뉴욕歷 史學會,自然박물관,并鲁市 박물관, 현대미술관 등을 들렀어야 했지만 강 행군에 박차를 갸해도 시간과 정력이 워낙 力不足이어서 포기하고 말았다. 또 한가지 이유로는 박물관 관람은 상 당한 시간이 필요하는 것이어서 그저 스쳐 지나는 식의 관람이라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에 나을 것 같아서였다. 누구에게서 둘은 이야기지만, 하루종 일 관람하고서도 미진한 점이 있어 다 음난 다시 가서 그 부분만 보고 1시 간여만에 나오니까 수위가 놀라면서 어떻게 그처럼 빨리 관람할 수가있느 냐며 놀라더란다.

뉴욕 체류 3일간의 일정이 이상과 같으며 우리는 저녁의 自由時間마 저도 함부로 보내버릴 수가 없었다. 엠버서더劇場의 〈Dancin〉(Broadway) Show) 이라는 전위무용을 관람했는 가 하면 대폿집에도 들려 보았으며 환락가의 꽃들을 심층 답사 하기도 했다.

뉴욕은 미국 안에 있으면서도 미국의 都市가 아니라고 한다. 왜냐하면 세계 각국에서 집결된 각분야의 사람들이 둘끓고 있으므로 凡世界的인 都市라고 하는 편이 더 어울리기 때문이다. 즉 뉴욕을 보고서 미국을 알려 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것은 진정한 미국을 이해하기란 어려운 이유에서이다.

□ 드슨江 입구에 위치한 뉴욕灣
쪽의 뉴욕은 이 나라 경제·문

화의 중심지이며 패션의 발상지이가 도 하다. 5개 지역 중의 하나인 번해 턴 남단은 치솟은 마천루가 숲을 이 루고 있으며 미국의 온갖 榮華를 맘 껫 자랑하고 있다.

Wall街는 세계금융의 중심지로서 중권·은행·어음교환소 등이 집결되어 있으며, 근처에는 시청·중앙우체국·법원 등이 있다. 5番街를 중심으로 중앙공원에 이르기까지는 뉴욕 중심부 중의 중심부로서 각종 有名建物들이 줄비하게 늘어서 있다. 길게 자리잡은 중앙공원 양측은 공원을 바라보기에 아주 좋은 明賞이며 공원 끝머리를 장벽으로 하여 할림街와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중앙공원이 없었다면 됐시한은 점점 더 확장되었으라라.

첫날 空港에서의 黑白事件(사건이 랄 것도 없지만)이 생각났다. 짐을 찾아 통관을 하고 있는데 근처에서 난폭한 高點과 함께 건강한 흑인 세관원이 백인 통관객을 향해 물진하고 있었다. 우리 일행으로서는 처음 보는 공포어린 광경이었다. 동료 직원이 흑인 세관원을 발리지 않았었다면 流血劇이 벌어졌을 것이다. 사연인즉 백인 중객이 통관 때 흑인 멸시의 인행을하여 참지 못한 흑인 세관원이 분통을 터뜨린 것이었다.

黑白의 비묘한 관계는 여러 분야에서 느낄 수 있었다. 으레껫 그려려니하는 축과 아무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축, 도시 이해하기 어렵기만 했다. 그것은 당연하리라. 어찌 수백년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미국의 社會問題를 알 수 있겠는가.



□ 하버드大 설계실

또한가지 두드려지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시내 어느 구석이나 온통 낙서가 판을 치고 있었다. 나는 그러한 현상을 落樹文化(?)라고 칭하고 싶으며 그것은 落書產業(?)으로 까지 발전되었다고 말하고 싶다.지하철의 포음과 車体는 낙서의 천국이었고 天惠의 낙원이 되고 있었다.

강변에 있는 리버사이드敎會의 壁 때에는 애교스럽게도 단 하나의 낙서 밖에 없었다. 그 후 몇몇 사람(우리 나라 사람)에게 낙서의 근원 및 배경 에 대해 불어 보았으나 별로 아는 이 가 없고 그저 그런가 보다 라는 대답 뿐이었다.

종합해 보면 검은 계통의 社會的 불 만, 욕구의 표현, 이에 편승하는 극 소의 白人 동지들의 협조 등이 이유 일 것이다. 落郡 또는 落뻐라고나 할 까? 그 표현이 다양하여 어느 것은 가히 예술의 경지에까지 이르렀다고 할 수 있는 構成과 表現을 나타내고 있었다. 시카고(IIT) 徐교수의 설명 에 의하면 전문 낙서가가 있어 落畵画 의 수준이 극에 달했다고 한다. 낙서 의 재료는 스프레이를 이용하고 있고 낙서가 세척제에 의해 지워지면 낙서 가의 체면이 손상된다는 생각들인가 보았다. 그래서 어떤 강력 세척제로 도 지울 수 없는 슈퍼 낙서전용 스프 레이가 개발ㆍ제작되어 판매되고 있 었다. 이것이 바로 落雲産業의 발달 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 보스톤

한시간 가량의 비행 끝에 보스톤空 港에 도착했다.

古色질은 Bradford Hotel에 여장을 풀자마자 시내 관광에 나섰다. 다른 都市에 비해 시내가 좁고 고색창연한 느낌이었으나 이 절이 이 都市의역사를 발해주는 것 같았다.

매사추세스灣의 강 어귀에 위치하고 있는 이 도시는 보스론港을 중심으로 불규칙한 방사선을 이루며 발달되어 있었다.

뉴 잉글랜드에서 제일 높다는 John Hancock Observatory에 들려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市內全景을 바라보며 뉴욕과는 다른 새로운 매력에 사로 잡혔다.

여정의 초반인데도 時差・宿食, 그

리고 하루 10여 시간의 강행군 등으로 회원들의 건강이 염려되었다. 그리하여 일정의 분량을 줄여야겠기에 몇몇 곳만을 순방키로 했다.

- *John Hank Observatory
- *Harvard University
- *MIT工大
- * John F. Kennedy Library (I. M. Pei 作品)

보스톤의 일정에서는 뉴욕의 복잡한 물견로부터 벗어난 때문인지 단순하 면서도 안정된 감을 얻을 수 있었다.

하버드를 방문했을 때는 명지대학 의 박 찬무敎授(Urban Design연구) 의 안내로 교내를 둘러 보았으며 건 축관계의 환담으로 뜻있는 시간을 가 질 수 있었다. 그리고 設計室에서 작 업에 열중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고 웬지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계단식으로 된 넓은 室内空間은 가슴 높이의 칸막이로서 드문드문 구획되 어 있었다. 그러한 空間構成에 낮설 은 우리로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 다, 천정으로 눈을 돌리니 온통 노출 된 파이프構造物 투성이어서 마치 工 場에 들어온 느낌이 들었다. 박敎授에 게 불편한 점이 없느냐고 물었더니 장 적도 있으나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다 고 지적하면서, 특히 추운 지방인 이 곳에서는 근래에 와서 새삼 연료소비 의 과다한 접이 지적되고 있다고 말 했다. 그러나 부자 나라인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만이 사도할 수 있는 대담한 設計라는 말도 곁들여 들려주 었다.

MIT工大에서는 학교축의 배려로 캠퍼스의 배치도와 안내문 등을 얻어 교내를 두루 살펴 보았으며, 2일간의보스톤 방문을 비교적 순탄하고 간단하게 마치었다. 그리고 건보기로나마市街地의 건물이며 風物을 놓칠 수는 없었다.

Paul Revere (1660), Old North Churock (1723), State House (1795), Common Park 등이 산 역사외 증인처럼 잘 보존되어 있었으며 시내 住宅街는 퍽 인상적이었다.

스톤의 밤거리는 널 위험하여 거리를 활보할 수 있었다. 저녁 은 차이나 타운의 중국식당에서 들었 는데 바다가재 등, 이름모를 요리가 식탁을 메웠다. 飯酒로 홍콩產 배간



□ 「프랑크 로이드 라이트」 기념관에서

을 드니 세상에 부러울게 없다.

일행 중 한 팀은 개(犬) 경수장에 가서 수십달러를 손해본 사람이 있는 가 하면 수십달러의 횡재를 했다 하여 자랑에 열을 올리는 사람도 있다.

점심시간에는 생선시장엘 들려 보았다. 성정한 생선과 야채가 눈길을 끌었으며 좀은 노점은 우리나라 시장 골목과 다를 바가 없었다. 주로 이탈리아, 자가 많아 이탈리아, 사이 경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생선회를 몇점들고기념촬영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날음식을 먹는 같은 人種이라고 여겨서인지 (장사속인지는 몰라도) 여간 친절한게 아니었으며 또 들려달라고 한다.

보스톤에서의 마지막 날 밤은 일찍 쉬기로 했다. 그러나 보통 12시가 넘 어야 잠이드는 습관이 생겨 잠이 올리 없다. 호텔 로비에서 시간을 보내며 내일의 여정을 살폈다. 와싱턴의 李 元均씨에게 우리 일행의 거취를 알리 는 전화를 걸었다.

호텔 로비 옆에 있는 〈바〉에서 귀에 익은 곡조의 되아노 선율이 흘러나오기에 일행 중 3명이〈바〉로 들어갔다. 꽤나 점잖은 분위기였다. 카운터에 절터앉아 하이네퀜 맥주로 시간을 보내면서 바텐터에게 말을 걸었더니 올리브·체리 등을 내놓으며 마음대로 먹으란다. 회망곡을 신청해도되느냐고 물으니까 좋다고 하기에 영화〈整情〉의 주제곡과〈마이웨이〉를 신청하여 들고 답례로 되아니스트에게 쥬스 한잔을 서비스했다.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면서 대중음 악 얘기가 오가는 중에 컨트리 뮤직 에 대해 관심을 보였으나 이 고장에 서는 그리 탐탁하게 여기지 않은 것 같았다. 역시 지방에 따라 다른가 보다.

♦ 와성턴

Delta A, Lines便으로 40분 거리 인 와싱턴에 도착하여 여장을 풀 사이 도 없이 전세버스를 타고 시내 관광 에 나섰다.

메릴란드써와 버지니아써 사이에 낀 콜롬비아區라는 특별 행정구역인 와 싱턴은 이 나라의 수도이다.

포토우막江 북쪽의 발달된 이 도시는 국회의사당과 백악관을 중심으로 하여 미국의 州名이 붙은 도로가 방사형상으로 받어 있으며, 펜실베이니아街는 의사당과 백악관이 연결되는 유명한 거리로서 高層建物이 적은 것이 투색이다. 의사당인지 또는 와성턴 Monument인가의 높이를 기준으로하여 전물 높이를 제한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이 도시에는 세계의 政治一番地다운 굵직한 유명 건물들이 여유있게 자리를 잡고 있는가하면 官街・法院・각종 박물관・기념관들이 그림같이 늘어서 있다.

Washington Monument, John F. Kennedy Center, Thomas Jefferson Memorial 등을 돌아보고 Shoreham Hotel에 여장을 풀었다. 마침 2월15일이 Washington's Birthday인 관계로 공휴일이어서 14일에 이어 연휴가되어 있다.

다 음날 링컨記念館 · 우주博物館 · National Gallery (로멩의 작품 전시 중) · 스미소니안美術館 · 국회의사당 · 알링톤 국립묘지 등으로서 일단 순회 일정을 끝냈다.

방문객이 로미에서 기다린다기에내 가 보니 李元均형과 權跟模형이 기다 리고 있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근황을 주고 받았다.

오늘이 바로 在와성턴 解國建築人의 舊正모임날이며 우리 일행을 정식 조대하기로 결정되었다기에 일행 중 5명만이 대표로 참석하였더니 알만 한 얼굴들이어서 뜻밖의 환대를 받아 가며 많은 시간을 뜻있게 보낼 수 있 었다.

다음날 저녁에는 李元均·權鼎模· 洪영가 형들이 음료수와 갖가지 酒肴 를 마련하여 호텔로 찾아와 밤늦도록 즐거움을 나누었으며, 두고 두고 및 혀지지 않을 추억의 시간을 만들어 준 세분한테 이 기회를 통하여 감사의 말 을 전하고 싶다.

14일은 와성턴 데이를 하루 앞둔 비렌타인 날로서 호텔 안은 연회에 참석하기 위한 인사들로 온통 축제 분위기였다. 古典的인 우아한 실내장식의 넓은 호텔 로비에는 각양각색의 연회복을 입은 숙녀들이 장신구를 자랑하듯 화려했으며 거의 등을 내놓은 아슬아슬한 차림이었다.

우리 일행도 결례되지 않는 복장을 하고 로비이며 라운지에 삼삼오오 짝 을 지어 앉아 뜻하지 않은 좋은 구경 거리에 덩달아 출거웠다. 무도장에서 흘러나오는 경쾌한 왈츠베이 타향나 그네들의 마음을 더욱 설레이게 했다.

일행 중 并元錫화원이 무도장 입구의 접수인에게 초청장 없이도 들어갈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대환영 이라면서 약간의 회비만 내면 OK란다. 그러나 안내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를까 막상 들어 가려고 하니 파트너도 없을뿐 아니라 춤도 익숙치 못해 아무에게나 프로포즈할 수가 없는, 言語・社交性의 핸디캡 때문에 여간한 배짱이없이는 참석할 수 없어 포기하고 말았다.

라운지에 주저앉아 마티니 한잔씩을 청한다. 오늘따라 여급들이 유난 회 친절하다.

내일 아침에는 시카고行이다.

와싱턴에서의 마지막 밤, 오늘 낮에 백악관 뒤뜰에서 잠시 영상에 잠겼었 던 일들을 생각해 본다.

유중한 담벽도 없이 알몸을 들어내고 보이듯, 한두사람의 경비원이 보일까 말까한 상태의 길 한가운데에 놓여진 백악관을 보면서, 여기가 무서운 항,을 지닌 목수리의 집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印圈的이었다. 그러나 바로그 옆의 희색의 大型建物을 바라볼 때 섬찟함을 느꼈다. 그것은 수억의 국민을 이끌어 나가는 수백의 知性的인두되들이 그 건물 안에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 시카고

미국에 금주령이 내려졌을 때 카나 다에서 술을 마시고 미국에 와서 주정() 을 했다는 그 시대의 劇画 (언타치불) 에 나오는 (비스)와 (알카포네)의 활

동무대가 전개된 이곳 시카고의 첫발 은 자못 흥분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 것은 시카고 호수가의 경치나 미국 제) 2의 大都市라는 매력보다는 美國建 築의 一大 전사장이라는 이유 때문이 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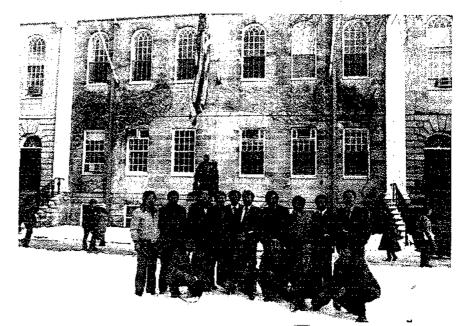
와성턴空港의 시카고行 UAL 대합 실에서 오갔던 농담 생각이 난다. 와 상턴에 올 때에도 美國務省 고위관리 가 우리 일행을 마중나올 것이라는 등 의 농담을 했었는데, 누군가가 시카 고空港에는 누가 마중나와 있을까? 한다. 알카포네가 제일 먼저 마중나 올 것이며 다음은 집념의 女市長(현 재)이 나올 것이라면서 여기저기서 제작기 이름들을 대어 본다. 라이트 · S. O. M·미스, 그런가 하면 플레이 보이誌 사장이 바니 걸을 이끌고 대 대적인 환영을 해줄 것이라는 익살도 있다. 모두가 부질없는 농담이었지만 그만큼 우리 일행이 시카고에 거는 기 대가 컸었다.

미국의 제 2 都市로서 〈엠파이어〉 와 〈시어스〉의 전물높이의 경쟁이 말 하듯 高層建物과 도시를 뚫고 있는 수 많은 道路, 각종의 화려한 회의장이 집결되어 있는 시카고는 산업ㆍ경제ㆍ 교통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남북으로 벋은 스테이트는 미시건 湖에 가까운 미시전街와 함께 이 도 서의 중심부이며 미시건街의 동쪽은 호수를 바라보기에 가장 좋은 아름다 운 公園地區이다. 또한 교육 및 학출 의 집결지로서 이 도시 내에는 시카 ユ大學・드墨大學・로요라大學・노스 웨스턴大學 - 일리노이大學 - 일리노이 工科大學 등이 있다.

시카고 일정에서는 대폭 수정을 가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우리 가 묵고 있는 Pelmer House (Hilton Hotel)로 달려온, 이곳 國民大學에 재 직 중인 徐商雨교수(I, I, T 研修) 가 우리 일행이 알지 못했던 名所를 안 내하겠다는 건의에 따라 徐교수에게 일정을 일임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徐교수의 풍부한 建築知識 을 바탕으로 한, 자세하고 친절한 안 내 덕분으로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 었다. 또한 S.O.M의 사무실에서 · 근무 중인 金振煥·李鍾金 雨모의 고 마움도 잊을 수가 없다. 우리 일행은 金·李 兩兄의 안내로 S.O.M. 사무실



□ 하버드大 설립자동상 앞에서

의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으며 近間에 이루어진 작품에 대한 설명을 통해 좋 은 의견들이 교환되었고 여의도에 세 워질 럭키社본의 設計概要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우리는 바하여 Temple (예수+유태 +마호멧), 미시건湖水, Oak Park의 수족관, Water Tower Place 등을 돌 아 보았으며 그의 주요 건물을 '순방 하였는데 대략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 다.

- *Unity Church and Parish House 1906 (Frank Lloyd Wright)
- *Avery Coonley House 1908(Frank LIoyd Wright)
- *Robie House 1909(Frank Lloyd Wr-
- *I. I. T. Campus : Institute Buildings

Common's Buildings 1953

Crown Hall 1952 - 55 (Mies van der Rohe)

Arthur Keating Hall 1968 (Skidmore, Owings and Merrill)

- *860-880 Lake Shore Drive Apartments 1948-51 (Mies van der Rohe)
- *Chicago Civic Center 163 66
- *Federal Center 1959 73
- *One and Two Illinois Center 1969-72 (Office of Mies.)
- *IBM Building 1972 (Office of Mies)
- *Time and Life Building 1970 (Harry Weese and Associates)
- *The Dearborn Street Plazas

Civic Center Plaza First National Bank Plaza Federal Center Plaza

- U. S. Courthouse Annex Plaza
- *Brunswick Buildings 1966 (S. O. M.) * John Hancock Center 1969 (S. O. M.)
- * Downtown High-rise Building 1961
- **★** Sears Tower 1974
- *Mccormick Place 1971 (C. F. Murphy Associates)
- *Marina City 1963
- *Lake Point Tower 1968

시카고의 近代建築의 一大 장관은 특수한 여건에 의해 탄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시카고 大火災事件은 일시 에 大都市를 폐허로 만들어 버렸다.

따라서 세계적인 巨匠 建築家들이 이 도시로 운집하였으며, 그들은 마 음낏 자기의 力量을 폐허 위에 펄 쳐 지금의 백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각종 건축물을 살펴본 감회는. 나의 識見으로서는 표현하기 어려우 며 더한층 관심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 아쉬움을 남기며 시카고를 떠나야 할 날이 왔다.

食堂 珍古介의 한식 탓, 시간에 쫓기면서도 번화가 백화점의 아이 쇼 핑, 상품진열의 다양성, 고객에 대한 상인들의 친절, 급할게 하나도 없는 듯 부드럽게 돌아가는 거리의 움직임 이 있는 시카고.

異國에서 만난 徐교수와의 해후 등 등, 감회 속에 시카고의 밥은 깊어만 갔다.

連載:

韓國建築의 絶對特殊性에 関한 考察[Ⅱ]

朴 彦 坤 弘益大學校工科大學建築學科 副教授

金 東 旭 一 京畿大學建築工學科 專任講師

A STUDY OF UNIQUE CHARACTERISTICS OF KOREAN ARCHITECTURE

Park, Eon Kon - Hong Ik University Prof

Kim. Dong Uk - Kyung Ki. University Instructor

2. 都城斗 伽藍

1. 머리말

, 方向이나 位置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건축에서도 절대적으로 응해 왔음이 우리 건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인 접국가들도 마찬가지이면, 특히 우리 의 경우는 중국에서 그 基準을 가져와 더욱 盛況사켰던 것이다.

기준이 되는 點·線·面이 상대적으로 갖게되는 위치나 방향은 天文學 ·道學을 기본으로 하여 風水地理說을 우리의 생활에 깊게 뿌리를 내려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절대대칭이나축을 엉크리지 않는 중국의 전축투성도 바로 아래의 표에서와 같은 규칙을 따름에서인 것이다.

方位와 位置의 意味規定

	左	前	中央	右	後
意義	和平	喜悦	皇帝	悲哀	壯嚴
四級	青龍	朱雀	皇宮	白虎	玄武
象徳	太子	朝	皇帝	皇后	市
四季	春	夏	仲夏	秋	冬
顏色	脊	秆	黄	白	黑
方向	東	南	中	西	北
五行	木	火	土	金	水

五行으로 인생의 결홍을 정치기도 했던 중국에서는 宮殿의 구성을 方向 과 象徳으로 정하였다. 그 기원은 天 体의 五星産에서 가져왔고 생존의 인 간만이 아닌 死者를 위한 무덤에서도 地勢와 方位를 四靈에 의해 청룡·백 호・주작・현무의 형태로 공간구성을 이루게 하였다.

이와같은 양택과 음택은, 위치와 방향이 건축의 工學性을 지배한다는 思想背景이 되어 建築空間計劃에 우선적으로 배려되고 있음이 고대로 올라갈수록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다.

우리의 조상들이 背山前川의 원리로 구성된 마을과 가옥을 자연에 조화시 킨 스카이라인이 바로 자연의 変理를 따른 우리 건축의 특성이 되었다.이것 이 風水地理이며 건축공간의 구성뿐 만 아니라 건축물을 이룩하는 構成部 材에까지 영향을 끼쳤다.

결국 건축의 기본계획이 주어진 조 진을 이해하고 적응시키는 것이며, 그 만족은 부재 하나에서부터 시작되는 계획과의 역과정에서 실천되었다. 그 실예를 韓國에서의 都城計劃과 伽藍 構成計劃으로 들면서 계획방법의 번 화와 건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都城計劃

中央集權的 君主制를 유지해 온 우 리나라에서의 都城은 全時代를 통해 발달되고 지속되었다. 都城의 형태가 기본적으로 중국의 영향을 입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 인하기 어렵다. 그리나 한국의 都城 속에는 자연적 조건과 우리나라의 사 회적 특수성에 따른 독자적인 면이 강 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都城의 형태적인 특수성 이 무엇인가를, 신라의 경주와 조선 조의 한성을 중심으로 중국의 都城과 비교하면서 고찰하기로 한다.

慶 州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라 우선 경 수 都城의 형태를 정리해 본다.

경주에는 최초에 王宮으로서 金城을 건립하였으나 國力이 신장된 6세 기초 중에 金城을 버리고 月城을 새로지어 왕궁으로 삼았다. 이와 동시에 月城의 동편으로 바둑판 모양의 街路를 계획하여 소위 坊里制를 실시하였는데 坊里制는 같은 시기의 중국(隨·唐)에서 실시되고 있었던 것이다.

月城은, 山城인 新月城(半月城) 과 王宮인 滿月城이 서로 접하여 있고 月城의 동편으로 시가지가 전개되어 있다. 이 시가지는 三国統一期에 서는 다시 月城의 서편으로 확장되었으며 서편의 시가지에도 바둑판 모양의 街路區劃이 실시되었다.

皇龍寺나 芬皇寺와 같은 절들은 方 型으로 구희된 대지조건 안에서 건립 되었으며, 철의 규모에 따라 方型街 區의 네배를 차지하는 절도 있고 하나 를 차지하는 절도 있다. 또한 경주에 는 東市(市場)를 비롯하여 西市・南 市가 존재했었다고 전한다.

각 市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으나, 都城의 계획에서는 王宮이나 寺院은 물론 시장의 위치까지도 정하여져서 용도에 따라 市街地域을 구분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경주는 중국의 都城制에 크게 영향을 입은 도시라고 보여지지만, 한편으로는 신라 고유의 특성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의 都城이어떠한 것인가를 알아보고 이를 경주와 비교하여 보자.

중국은 이미 周나라 때의 이상적인 都城의 형태를 규정하였다. 즉, 都城은 一辺 9里(=16,200尺)의 正方型의 全体形態를 취하여 셋으로 나누어진 세개의 大街路가 동서나 남북으로서로 교차한다. 城內에는 중앙의 宫을 중심으로 〈左祖右社・面朝後市〉, 즉 왼쪽에 宗廟, 바른쪽에 社稷, 전면에朝廷, 후면에 市場이 위치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理想案이긴 하지만 중국의 모든 都城이 이를 따르지는 않 고 있으며, 漢代나 宋·元·明·淸의 都城이 중앙에 宮殿을 두고〈左祖右社 ·面朝後市〉의 기본구성을 이루고 있 는 점으로보아 기본적으로는 그 영향 아래에서 都城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것과 다른 형태의 都城도 존 재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唐의 수 도 長安城이다. 長安城은 宮이 중앙이 아닌 北辺에 위치하고 있으며 宮의 전면으로 동서 각 5 坊, 남북 13坊의 方形街區가 구별되어 있다. 宮의 전면으로 東市 西市가 있는 정도 중국의다른 都城과 틀린 점이다.

그러나 중국 都城의 공통된 점은 모든 都城이 平地로 조성된 地形 위에 方形의 全体形態와 직각으로 교차되는 街路를 갖고 있어 인공적으로 정연하게 꾸며져 있고, 宮殿은 불론 城内의 宮署나 寺院・一般住宅등이 모두方形의 街區 속에서 計劃・造營되었다는 것이다.

坊里制의 실시에 따라 경주의 寺院 이나 住宅이 方形街區 안에서 계획되 어진 점에서 볼 때에도 중국의 都城, 특히 同時期의 長安城과 유사한 성격을 피고 있다. 경주의 坊里制가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중국의 영향에 외해 이루어졌음을 부인할 수는 없으 나 경주의 都城을 기본적으로는 경주 수번의 자연조건, 즉 地形에 의해 그 형태가 결정되었을 것이라고 보여진 다.

月城의 위치는 결과적으로 都城의 중앙 가까이가 되었으나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중국과 같이 계획적으로 중앙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都市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중앙에 위치하게된 것이므로 이것을 중국의 경우와 동일하게 다를 수는 없는 것이다

한편 경주는 전체적으로 배우 불규칙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月城을 중심으로 한 경주의 地形이 野山을 많이 안고 있기 때문이라 풀이 된다. 7세기에서 8세기 사이에 일 본은 여러차례의 遷都를 하면서 平城 京・平安京・藤原京 등의 都城을 건립 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平地에 자리잡 고 있으며 長安城을 그대로 모방하였다.

경주는 중국의 部城制를 그대로 모 방하지 않고 중국식의 坊里制를 채택 하면서도 地形條件에 따라 고유한 都 城形態를 유지하였다. 이것은 신라의 郡城이 建國初期부터 王宮을 중심으로 성장된 곳에서 이동없이 점차확대 되어 간 데에 이유가 있지만 都城의 형태를 인공적으로 構築하기 보다는 오히려 地形에 맞추어 나가려고 했던 意圖에 더 큰 원인이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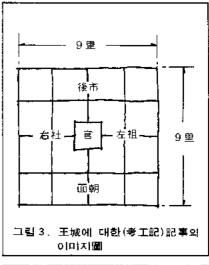
이러한 자연순응적인 경향은 경주 이외의 다른 都城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朝鮮朝의 수도 漢城이 그 전 모들 잘 알 수 있는 좋은 예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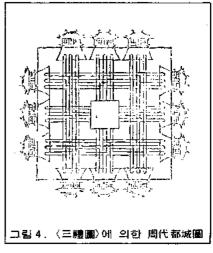
周知하는 바와 같이 漢城은 조선조가 建國함에 따라 새롭게 計劃·造營된 都城이다. 한성에서 중국의 都城制의 영향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은 〈左祖右社〉, 즉 宫의 왼쪽에 宗廟를 두고바른쪽에 社稷을 두는 周이래의 원칙이다. 그러나 그 이외의 한성의 형대나 街區構成은 중국과는 매우 다른조선조 고유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宮은 왼쪽으로 치우친 北辺에 山율 등지고 있으며 城의 전면으로 江을 바









라보고 있다. (背山前川). 街路는 중국의 都城과 같이 모든 街路가 四通八達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도로가 城門으로 뚫려 있는 반면, 대부분의 小路들이 막다른 골목(cul-de-sac)으로되어 있다. 이 점은 중국의 가 시대의 都城이 직각교차하는 街路모 구성되었던 것과 크게 다르다.

더우기 漢城은 地形이 난북으로 산을 끼고 산의 농선으로 둘러싸여 있으므로 城郭의 전체형상도 지형에 맞추어 環狀을 이루고 있다. 城内의街路도主要大路를 제외하면 모두 자연발생적인 것이어서 地形에 맞추어 형성되고있다.

이와같이 漢城은 宮이나 宗廟· 社稷과 같은 기본이 되는 건물의 구성에서 중국 古來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城部의 전체형태나 구성은 自然地形에 맞추어 나가는 고유한 형태를 취하였다. 이것은 조선조 말기에 새로이 計劃· 造營된 水原城郭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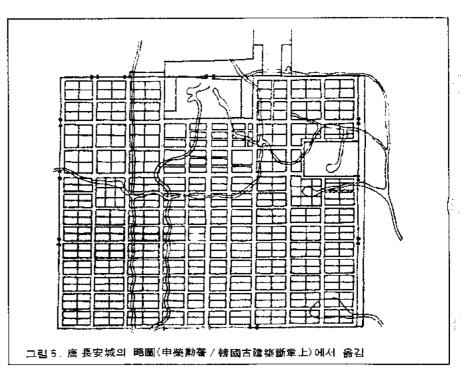
水原城郭의 경우는 宮이 동편 산기슭에 차리잡고 그 전면으로 十字路와 개천을 중심으로 民家가 형성되어 있으며, 전체형태도 동서의 山頂을 環狀의 성곽이 연결하고 있고 남북으로 개천이 城을 가로지르고 있다. 水原城郭의 向은 漢城과 같지 않지만 背山前川의 地勢나 자연발생적인 街路 등, 自然地勢에 의존하여 城郭을 구성하였다는 전에서는 서로 공통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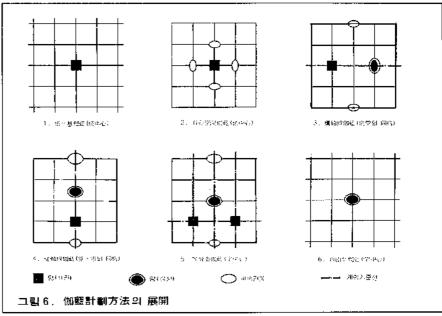
경주나 한성·수원성은 공통적으로 自然地勢에 맞추어 都市全体의 형태 를 형성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점이 중국의 都城과는 상반되는 성격 이다. 街路는 경주만이 서로 작각교 차되고 있으나 다른 도시의 경우는 모 두 자연발생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

이상의 우리나라 都城의 특정을 요 약한다면〈背山前川〉이라는 自然條件 에 외존하여 자연발생적인 街路構成으 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3. 伽藍計劃方法

인도의 STUPA나 중국의 伽藍은 하나의 含利塔만이 사찰의 전부였다. 이들 최초의 塔은 外型이 가지는 상징성과 神聖性의 표현이겠으나 차츰 塔内에 공간을 구성하여 等利儀式이 행해졌다.





한국의 古代初期 사찰에서도 舎利가 있는 탑을 절대적인 선양 및 儀式対象으로 하였으나 인도나 중국과 같은 탑하나의 伽藍形式은 발굴된 바 없고 清智里等號에서 우리의 最古伽藍 형식을 고찰할 수가 있다. 여기에서 보여자는 配置計劃方法은 탑을 중심으로하는 有心空間을 구성하여, 인도・중국의 탑일기 사찰이 아닌, 중앙에 舎利格을 사방에서 감싸듯이 빨과 電들을 배邦하였다.

탑을 중심으로 하는 伽藍內에서의 모든 건축공간은, 직접 탑과 연결해야 하는 有心空間伽藍의 설계방법을 일 반적으로 三堂式伽藍이라 칭하게 됨은 前述한바와 같이 방향과 위치의 의미 에서 기연된 것이다.

佛像이 출현되고 寺刹의 건물을 형성케 되면서부터 舎利塔을 중심으로한 有心点이 설계의 기준이 되던 것을 點에서 線으로 배치방법을 달리하였다. 불상과 사리가 同格으로 취급되어, 신앙의 意識的인 儀式空間 구성을 형선 또는 종선으로 하여 탑과 堂을 연절하는 伽藍 배치는, 척도 '면적 등의 모두울이 일단 線으로서 그의미를 부각하고 규정지어 주는 設計計劃方法이 되겠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찾아 볼 수 없으나 일본의 法陵寺와 같은 塔과 全堂의 좌우배치는 會利와 佛像이 신앙의 식과 종교의식의 問格의 위치에 있게 됨으로 伽藍의 위치에 意味가 설계방법을 유도케 한 것이다. 여기서는 반순히 건물의 질서를 잡는 설계방법만 하고 원인이 될 수 없고, 다만 주어진 양식과 教理 등의 변수가 되는 禪·後世·慈悲·解脱·保護 등이 결국일주문·해탈문·불이문·인왕문·금강문·루문·탑·당 등을 일직선으로 연결하여 舎利나 佛像에 도달케 하였다.

고 과정은 기하학적인 전축설계 계 회방법으로 성립케 하여 從線伽藍構 成을 만들게 되었다. 종교건축이 가지 는 기념성과 상징성이라는 형성의 전 개는 우리나라에서 더욱 틀을잡아 — 搭式伽藍을 막들어 定林寺址, 軍守里 寺址·法住寺、通度寺·双溪寺 등지에 세 그 실예가 나타나고 있다.

佛像이 있는 佛堂(보통 大雄殿으로 칭함)의 절대성에서부터 탑이 형성화 되어져 가고 舎利의 意織度가 낮아짐 에따라 2 塔式伽藍을 형성하여 결국 불상의 강한 종교적 연출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문과 대웅전·탑· 강당·회랑은 주어진 대지를, 점이 아닌 선으로 구성된 前의 절계방법으로 서 전개시켰다. 즉 불상의 대웅전을 대지의 중앙에 두고 문과의 사이가 되는 종·횡의 선은 중앙과 양편의 회랑과를 4 등분하여 가란구성 요소들을 위치시켰다.

그 실혜로는 感思寺址,四天王寺址

·佛國寺 등에서 그 계획방법을 볼 수 있다.

그 후, 佛舎利의 탑의 존재성이 약해지면서 완전히 대웅전 본위의 伽藍을 형성시켜 無塔式 또는 자유로운 空間構成伽藍을 만들어 계획방법의 총괄성이 경시되었다. 그리고 그 현상은 자연의 조화, 불교에의 접근 또는 토착종교의 흡수 등이 그 원인이라 할수 있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의 伽藍을 구성하는 計劃方法은, 주어진 자연조건과 종교·사회의 가변수를 가지고 點·線·面, 그리고 다시 點에서 확산된 방법론을 만들어 주었다.

□해외화제

낡은 大型건물 解体 新工法

美로이드 美로이조祉, 12초만에 부숴

美國의 構造物 解体 專門業体인 모이조그룹 인터내셔널 (Loizeaux Group, International)은 대도시 한 복판에서 수십층의 빌딩을 불과 2~3분만에 해제할 수 있는 구조물 해제 신공법을 개발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고총 건물을 짓는 새로운 工法에 못 지않게 낡아버린 기존 건물이나 기타 構造物을 주변의 다른 건물에 피해를 주지않고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철거 하는 工法의 개발은 필연적이면서 많 은 난제를 안고있었다.

좁은 공간, 인명피해의 방지, 제거 에 따른 수송문제의 해결 등등이 복합 적으로 해결되어야할 문제였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로이조 그 룹은 이번에 말끔히 해결했다.최근 同 社는 LA시가지 한복판에서 주변건물 과 불과 20미터밖에 안 떨어진 15층의 건물을 아무런 피해없이 단 12초만에 해체해 냈다는 것이다.

외신보도는 특히 同社의 해체기술은 건물의 잔해가 트럭에 실어 나르기 쉽 도록 적당한 크기로 건물자리 안에 그 대로 내려 앉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 工法은 큰 重力에다가 적은 폭약 의 힘을 섞는 이치로서 전물이 지구의 引力에 외하여 地上에 세워지고 있다 는 바로 그 原理을 역으로 이용해서



引力을 건물해체에 이용한 것이다.

同社의 경영자인 재크·로이포씨는 "우리는 다이너마이트를 해제작업에 이용하지만 그것으로 건물을 조각내 거나 폭파력으로 직접 구조물을 해체 하는게 아니라 구조물의 자체 붕괴작 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폭파를 이용 하는것"이라고.

때문에 해체 작업에 들어 가기전에 대상 건물의 設計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은 물론이고 構造力學的계산이나 材料의 강도를 신중하게 검토한 다음 에 작업을 시작하며 技術的인 측면에 서는 굴뚝을 예상했던 방향으로 쓰러 트리거나 고층 건축물을 바로 그 밑으로 무너져 내리게 하는 계산 등을 세밀 하게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송 수단까지를 고려 해서 잔해를 얼마만큼의 적당한 크기 로 분쇄해야 하는가 하는 계산까지 해 낸다는 것이다(*)

□ 新築工法에 못지 않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解体工法의 개발은 우리 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연구돼야 할 분야로 꼽히고 있다.

共同集合住宅의 當面課題

安 瑛 培一州 含市立大學 教授

PROBLEM IN DWELLING GROUP

Ahn, Young Bae - City University of Seoul

目 次

1. 人間的住居環境의 造成

문제는 더욱 더 심각해진다.

2. 共同住宅團地 設計規準의 改正補完

3. 公共施設用地의 確保

- 4. 工業化學 標準化
- 5. 턴케制度의 改善點

1. 人間的住居環境의 造成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지향하는 인 간의 의지는 끊임없는 것이다. 따라 서 많은 주민이 생활하는 共同集合住 宅에 대한 개선점은 끊임없이 시정되 고 발전되어 나가야 한다.

共同集合住宅은 선진 각국에서도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해 오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와같은 전철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겠으나 되도록이면 그릇된 전철을 작게 밟아야한다.

그 중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住居團地設計의 單調性과 劃一性을 들 수 있다. 이로 말미암아 주거환경이 너무나 비인간적이라고 하는 비판의 소리가 크지만 住宅開發業者의 영리 상의 문제와 규정상의 계약때문에 이 문제는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이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오는 저해요소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다양한 변화 속에서도 율동적인 질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建 築意匠의 기본이론에 속하는 일이다.

共同集合住宅에서도 특히 아파트는 건물자체가 단조로운데다가 배치방법 마저 단조로와지면 건물의 외관이나그 주변의 外部空間마저 똑같이 반복 되게 되어 여기에서 오는 單調性과 훼一性은 지루함과 염증을 일으키게하며 자기 주택에 대한 애착심마저 희박하게 한다. 외부에서 찾아 오는 사람은 부득이 하다 하더라도 이곳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건물의 번호판을 보고 몇번째인가를 확인하지 않고는 착각할 정도라면 확실히 문제점이 크다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아파트에서는 이러한 일이 불가피한 것이라고체념하고 개선하려는 노력마지 없다면

변화있고 특성있는 주거단지의 설계는 '선진 외국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 절약상 반드시 남향으로만 배치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단조로움은 부득이 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같다. 가급적 남향으로 배치하는 것이좋은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것으로 인하여 특성있고 다양성이 있는 주거

단지를 설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확실히 잘못된 생각이다.

선진 국가에서도 20세기 초반에서는 이와같이 단조로운 공통주택단지를 많이 건설했던 것은 사실이나 그 후 많은 비평을 받고 점차 사라지기 시작하였으며 단조로운 공통주택은 점점 슬럼化하여 없어져 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머지않은 장래에 이와같은 전철을 밟을 것은 석연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음을 깨닫고 하루속히 대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대한 책임은, 그렇게 생자하는 일반대중에게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탈 피하기 위한 우리 鍵築人물의 노력이 부족한 데에 더 큰 책임이 있다. 아파 트 1棟만 설계해서 똑같이 나란히 배 치하게 되면 설계하기도 쉽고 공사하 기에도 확실히 편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설계하기에 편리하게만 생각한다면 좋은 설계를 기대하기란 힘들 것이며, 이러한 설계로 이룩되는 주거단지 역시 좋은 환경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가급적이면 남항으로 배치하면서도 건물의 길이나 높이 등에 변화를 주고 건물의 형태에 변화를 준다면 얼마든 지 특색있는 단지가 가능하다.특색이 있는 단지설계를 설계하려면 건물설계의 업무량이 커지는 것은 물론, 이의 설계과정에서 고도와 기술과 적지 않은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는 좀처럼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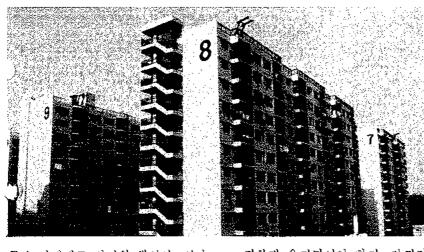
단독주택 하나만 하더라도 유능한 건축가들이 심혈을 기울여 설계해야 하는데, 하물며 많은住戸를 수용하는 공동주택 건물의 설계비중은 이에 비교할 바가 못 된다. 건축가들은 기업 주를 설득시켜 좋은 주거단지 계획으로 유도해야 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업주의 무리한 요구를 도면화하는 데에만 그친다고 한다면 설계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란 도저히 없을 것이다.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의 집단주택 건설은 우리나라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중요한 과제인 만큼 주거단지가 보다 친밀감과 애착심을 갖을 수 있는 아름답고 인간적인주거 환경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타성적이고 안이한 사고... 방식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야 한다.

단조롭고 무미건조한 주거단지를 지양하고 인간적인 주거환경파 외부공간이 다양한, 특색있는 단지를 위해 있는 아파트 주거동 하나만 설계해서 이 것을 배치하는 식의 단조로운 설계방식이 아닌, 주기단지 전체를 생각하면서 住居棟 하나하나가 변화와 개성이 있고 특색있는 설계가 이루어 지도록 자별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2. 共同住宅團地 設計規準의 改正補完

공동주택의 설계단지가 단조로와지 게 된 큰 이유 중의 하나는 현행의 법





규정 자체에도 일련의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현행의 규정이 最適基準이 아니고 최저기준인 데에도 불구하고 내발업자는 영리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최저기준만을 철저히 지키면 그만 이라는 사고방식으로 하여 쾌적한 주 거단지 설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너무 지나친 세부규정은 설계의 융통성이 결여되기 쉽고 예기 지 못한 특수한 경우나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다양한 설계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획일적인 규정을 지양하고 융통성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개선해 나가지않으면 안 된다. 건폐율·용적율·높이제한·인동간격 등과 같이 너무 일률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단지의특성이나 단지전체의 종합적인 견지에서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지역에 따라 높이제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모두가 똑 같은 모양과 똑같은 높이의 아파트가 되기 쉬움으로 공공시설용지를 넓게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일부 교충 이상의 고충 아파트도 지을 수 있게 하고 저충 또는 중층의 아파트 건물들을 적절하게 배치함으로써 다 양하고 아름다운 주거단지가 가능하 도록 해야 한다.

인동간격도 길이가 긴 高層板狀型 외 아파트에서는 폐쇄감이 너무 커짐 으로 좀더 엄격히 하고, 진이가 짧은 아파트나 塔狀아파트에서는 개방감이 콤으로 완화시키는 등, 융통성있게 적 용할 수 있도록 개정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세부적인 최저기준만은 업

격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단지전체의 종합적인 견지에서는 適正規準이상이 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기본방침을 설정하여 이것이 철저하게 이행되도 록 하는 규정도 아울러시행되어야한 다.

기본방침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중요한 요소 몇가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주거단지는 단지주변에 대한 배려는 물론 그 지역 전체외 생활환경이 향상되도록 계획한다.

② 주거단지는 기능적 요구사항을 충촉시킴은 물론 경관을 중요시하고 단지를 구성하는 각 부문마다 개성을 갖도록하여 시각적으로용이하게 구분 되게 함으로써 주민들이 자기 주거지 에 대한 소속감과 친근감을 느끼도록 특색있는 단지로 계획한다.

③ 단지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사람과 차량의 통과동선을 설정하지 않으며, 단지 안의 도로는 가급적 긴 직선도를 피하고 적절하게 만곡시킴으로써 차의 질주를 피함은 물론 도로에따른 건물의 적절한 視覺的変化를 기도한다.

④住居棟의 주된 向은 가급적 남향 또는 동남·동서향이 되도록 배치할 것이며 동향이나 서향은 그비율을 줄 이도록 한다.

⑤ 住居形式은 여러가지 형식을 택'합으로써 다양한 주민생활에 적응시, 키며, 건물의 형태도 변화있는 주거동을 구성하여 다양성을 높인다.

3. 公共施設用地의 確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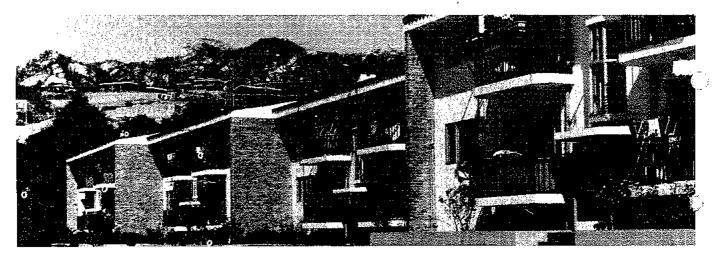
주거단지의 설계는 事業施行의 단 위를 크게해서 개발하든가 또는 작은 규모로 나누어 개**발**하든가 하여 최종

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수준의 公共用 地를 확보할 수 있어서 주거단지의 시설이 균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겠으 나, 현행 법규에서는 사업시행의 규모 에 따라 지역간에 심한 불균형을 초 래하고 있다. 예를 들면 500세대 이 상의 주택단지를 건설할 경우, 유치원 또는 탁아소를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그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에 계 분양해야 하며, 확보된 대지는 다 른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반면, 500호 미만의 단위 로 두개 이상 나누어 전설하게 되면 유치원이나 탁아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결과가 됨으로 단지개발의 규모 를 크게 할수록 작종 시설 설치에 대 한 의무가 강화되어 불리하게되어 있 다. 이로 말미암아 개발업자는 큰 국 모를 기피하고 오히려 작은 규모로 나 누어 시행하는 것이 사업상 유리하여, 따라서 공공용지의 확보가 힘들 경우 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단지규모가 작 더라도 그에 상용하는 알정한 비율의 시설용지를 분담하여 확보하게 하고, 확보된 시설단지는 이웃의 단지와 조 절하여 적절하게 그 이용이 가능하도 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광공시설용지가 商街일 경우는 영 리상 문제가 되지 않으나 녹지·운동 장·교육시설 등의 용지는 수익성이 없으므로 이러한 시설을 위한 용지 확 보를 위해서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경우 큰 규모의 개발업자가 오히려 불 리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형평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土地区劃整理가 되지 않은 저역에서 주거단지 개발을 할경우는 개발자가 주거단지 건설사업에 선행하



여 토지의 구획정리를 하도록 하고, 일정비율 이상의 공공용지 확보를 하 게 하여 시장·군수는 학교·공원· 시장 등의 도시계획 시설용자를 지정 하는 한편,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도 시계획 시설설치를 참고하여 단지 안 외 공공시설 용지를 합리적으로 계획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4. 工業化의 標準化

특색이 있는 다양한 주거단지를 위해서는 공업화와 표준화라고 하는 문제가 자칫하면 역행되는 것으로 생각되기 쉬우나 이것은 그것을 적용하는 방향이 다를뿐이지 하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단지의 전체적인 면에서는 단조로 운 반면, 건물 하나 하나에 대한 제획 은 다양한 것이 아니라 단지마다 지 나치게 복잡하게 계획되고 있는데 놀라 지 않을 수 없다.

주택의 量產化와 잘적향상을 위해 서는 部品의 類型化와 構造工法에 따 른 주호평면의 체계화가 시급히 요망 되고 있다.

전설부에서는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부품화에 대한 연구와 표준 화에 관한 연구를 저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환영할만한 일 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단시일 안에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급 히 적용시킬 것이 아니라 오랜 시일 에 걸쳐 각 분야의 연구를 토대로 그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침토 있은 후 에 시행이 돼야 할 것이다.

창호 규격이나 욕실 규격 등은 시 급한 문제로서 이를 사행하면서 검토 할 일이나 "모듈"적용이나 주호평면 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는 공업화라는 견지에서 중요성을 띄고 있어서 각 문 야에서의 계속적인 연구가 더욱 더 요 망되고 있다.

특히 모듈에 관한한 이것은 공업화를 위해서 중요한 요소이면서도 자칫하면 본래의 의도와는 상반된 결과를 초래하기가 쉽기 때문에 조심성 있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

구조방식이나 공법에 따라서 다양하 게 적용될 수 있으려면 이것이 좀처럼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주호평면의 기능적 촉면에 대한 연 구와 구조공법에 따른 공학적 측면에 대한 연구가 동시에 이루어져서 유기 적인 연구 결과가 종합되어 비로소 이 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여러번의 연 구가 거듭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단일안이 되는 획일화가 아니고 몇가지 변화체계를 가진 다양성 있는 표준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각기 구조방식에 따른 변화체계가 서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런의 같은 체계로 연관시키는데는 석지않은 무리가 위따를 것으로 예상됨으로, 구조방식에 따른독특한 변화체계는 다양한 변화로서인정 되어야 할 것이다.

공동주택의 공업화와 표준화라는 명제는 最產化를 위해서 불가되한 요소이나 이것이 단순한 공사비의 저렴화보다도 건축공사의 질적향상에 보다콘 의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더 강조하고 싶으며 다양성이 결여된 공업화는 확일화를 초래할 위험성이 많으므로 보다 깊은 조사와 연구가 주반되어 신중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5. 턴키制度의 改善點

工期를 단축하고 새로운 공법에 대

한 개발을 위한다고 하는 턴키제도의 장점은 확실히 크다고 하겠으나 이에 대한 문제점이 적지 않게 노출되고 있음에 비추어 어에 대한 보완개선책이 시급히 요방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는 공사비의 저렴화에만 치우쳐서 주거단지 설계의 잘적향상을 기대할 수가 없을뿐만 아 니라 여러 응찰자로 하여금 많은 설계 비용의 출혈을 초래한다고 하는 것이 다.

이에 대한 개선점으로 최소한도 기본 방향이 명시된 略設計 또는 기본설계는 사전에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실시설계나 대안설계를 하는 방안으로 되는 것이 필요하자 않을까 생각된다.

또다른 방안으로는 설계도의 질적수 준을 접수화하여 이것이 크게 반영되 는 방식이나, 이것은 객관적인 평가방 법에 문제점이 수반하게 됨으로 곤란 한 점이 없지 않다.

많은 부분을 시방서로 대치하게 하고 설계도서를 구도로 줄이는 방안 등기타 여러가지 방안이 고려될 수 있으나 이것은 많은 조사와 연구끝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사비를 절약하는 명목 아래 보는 나은 주거환경조성에 역행하는 어리석 은 결과를 초대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三大 不正심리를 추방하자!

- * 부정부괘심리
- *물가 오름세심리
- * 무질서심리

特定建築物 整理에 關한 特別措置法 및 同法施行令 解説

曹 浚 鉉 -- 建設部 住宅局 技術指導課長

I. 概 要

1980년 1월 4일 제정·공포되어 3년동안 限時的으로 · 시행중인 竣工未畢 既存建築物 整理에 関한特別措置法은 건축하가를 받아 건축한 住居用 건축물로서延而積 165m² (50坪) 이하인 違法施工 건축불만을 整理対象으로 하고 있었으나. 1981년 12월31일자로 제정·공포된 特定建築 物 整理에 関한 特別措置法은 모든 무허가 건축물 및 위 법시공 건축물을 정리대상으로 하여 이를 選別整理함으 로써 국민의 財産権을 보호하고 住居生活安定을 조성하 기 위한 부적으로 竣工未畢 既存建築物 整理에 関한 特別 措置法을 폐지하고 国会에서 議員立法으로 제정되 것으 로 1984년 6월30일까지 효력을 갖는 限時法어며, 同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同法施行令이 1982 년 4월8일자로 공포되어 사실상 이날부터 本法이 시행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해오지 못한 무허가 진축물 및 위법시공 전축물이 同法에 서 규정하고 있는 적용대상 건축물에 해당되고. 対象建 築物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가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一 定基準(救済基準)에 적합하면 서장・군수가 부과하는 소 정의 과태료를 납부함으로써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어 실질상 법의 보호 아래 賣買行為 등의 재산권 행사 가 가능하게 되었다.

本法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 건축물 및 위법시공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신고하여 준공검사필증을 받을 때까지의 절차 및 내용과 준수해야할 사항 등을 本法 순에서 규정한 條項別로 그 내용을 요약해서 소개하고 자 한다.

Ⅱ. 法令의 主要内容 解説

1. 適用対象 建築物의 範囲

本 法令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축물이 되려면 다음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本法 공포당시(1981년 12월31일) 사실상 완공된 건 축물(중·개축된 건축물 포함,이하"対象建築物"이라함) ⁷이어야 하며
 - (2) 대상전축물이 다음에서 열거한 구역·지구·지역등 에 해당하지 않아야 되며

- ① 재개발지역
- ② 도시계획시설
- ③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
- ④ 개발제한구역
- ⑤ 접도구역
- ⑥ 산림지역
- (7) 군사시설보호구역
- ⑧ 해·공군기지(보위구역 포함)

(위에서 열거한 중에서 개발제한구역반을 同区域 지정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대상건축물의 범위에 해당한다.) 또한 시장·군수가 다음 指定基準에 따라 지정한 常習災 害地区 또는 환경정비 지구에도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상습재해지구 또는 환경정비지구 指定権은 시장・군수에게 있으며, 이의 지정은 1982년 6월30일까지 지정하되 재해예방과 환경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지정하고,定時는 필히 官報 또는 그 지역에서 발행되는 주요 일간신문에 지정내용(地区名・位置・地番및的積)을 告示하여야 한다.

- ① 常習災害地区 指定基準
 - ◆홍수·해일·髙潮, 기타 이와 유사한 재해로 인한 침수피해가 집한 지역
 - 하천 연변으로서 內·外水 배제시설의 미바 또는
 능력부족으로 침수피해가 심한 지역
 - ●構造状態가 불량한 응벽 또는 나무나 풀이 없는 傾斜地(裸傾斜地) 등으로서降雨時 붕괴우려가 있는 지역
- ② 環境整備地区 指定基準
 - ●철도연변
 - 항만시설연변
 - ●관광용에 직접 제공되는 도로연변·시가자로부터 관광지 또는 史蹟地에 이르는 도로연변, 기타 이와 유사한 도로연변
 - 観光事業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 ●환경오염 방지 및 생활환경 정비를 위하여 특히 필 요 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 申告事項

- (1) 신고의무자 : 건축주 또는 소유자
- (2) 신고기간:本法 시행령의 시행일인 1982년 4월 8일 부터 1983년 3월31일까지
 - (3) 신고서 : 별지서식(특정건축물 신고서)

- (4) 신고서의 첨부서류
- ① 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 및 현 장조사서 각 1부
 - ●違法施工建築物인 경우: 건축허가(建築申告 포함) 를 한 당시의 設計図書에 전축허가 내용(건축신고 내용 포함) 과 相異한.施工部分에 대하여 작성
 -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 전체 건축물에 대하여작성
 - ●設計図書 및 現場調査書에 明記할 사항
 - ○위법사항
 - ○주변도로 및 상·하수도의 시설현황

 - O건축사의 종합적인 의견
- ② 대지의 소유권 및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타인 소유 대지인 경우 사용승낙서) 1부
- (5) 시장·군수가 작성한 현장조사서로서 신고에 같음 할 수 있는 건축물
- ① 대상 : 무허가 건축물 및 國家施策事業으로 건축 또 는 改良한 건축물
 - ※ 국가시책사업으로 전축 또는 개량한 전축물
 - ●취락구조개선사업
 - ●小都邑가꾸기사업
 - •불량주택개량사업
 - ●도시정비사업
 - ●국토가꾸기사업
 - ●도시인구 消散사업
 - ■재해복구사업
 -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건설부장관이 인정 하는 사업
- ② 현장조사서 작성시: 시장·군수는 현장조사서 작성 사실을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1982년 8월31 임까지 서년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6) 建築士가 設計図書 및 現場調査書을 작성하는 등의 건축사가 행하는 업무에 대한 業務報酬基準
 - ① 건축사의 업무범위
 - ●설계도서 (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 및 현장조사서의 작성
 -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이행하여야 할
 신고절차의 대리이행
 - ●위에서 열기한 업무에 수반되는 업무
 - ② 건축사의 업무보수기준액
 - ●건축사가 행하는 업무의 보수기준액은 다음에서 정 한 범위 안에서 建築士協会가 정한다.
 - ○대상건축물의 위반사항이 면적에 관계되는 위반 인 경우

对象建築物의 構造別 建築士의 業務報酬基準額

- ●석희 및 휽벼돌遊,돌담 및 毎재곱미터당 950원 이하 토담遊
- ●목조. 시엔트블록造.시엔트 ″ 1,050원 이하 벽돌造
- ●연와조, 보강콘크리트볼록造. // 1,250원 이하 경량철골조
- 철근콘크리트造、P·C造 // 1,350원 이하

◆石 造

- 1,450원 이하
- ●철근콘크리트造, 철골造
- 1,550원 이하

○대상건축물의 위반사항이 면적에 관계되지 않는 : 위반인 경우

建築士의 業務報酬基準額—건축물 1棟当 5만원이하 ③ 건축사의 업무보수액 산정기준

- ●건축사의 業務報酬基準額에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 서를 작성하는 당해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 로 한다.
- ●위에서 산출한 금액이 4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4 마원으로 한다.
- ●무허가 건축물 및 위법시공 건축물로서 면적에 관계되는 違法事項과 면적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위법사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금액만으로 한다.

3. 特定建築物整理 審議委員会

- (1) 심의사항: 신고된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의 교부 및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2) 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 ① 설치:서울특별시·직할시·시 또는 군, 다만 区가설치된 市는 구청(시장이 상습재해지구 및 환경정비지구의 지정권을 재외한 권한의 전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한함)
 - ② 위원장: 시장・군수(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互選)
 - ※ 区에 위원회가 설치된 시 : 구청장
 - ③ 위원수 : 9인 이상 12인 이하(위원장 포함)
- ※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4인 이 산
- ④ 위원:시장·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관계행정 기관 의 공무원, 전축 또는 도시계획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자)
- ⑤ 위원회의 議事: 재적인원 파반수의 출석으로 開議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외결
- ※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시, 관계행정기판 또는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가 는

4. 対象建築物의 審議基準

대상건축물이 다음 審議基準에 모두 적합하여야만 준 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 (1) 대상건축물은 自己所有垈地(사용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대지는 자기 소유대지로 본다) 또는 国·公有地에 건 축된 건축물일 것.
- (2) 도로 및 건축선에 관한 규정(건축법 제27조 및 동법 제31조)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 (3) 건축물의 構造安全·위생 및 防火상 현저한 지장이 없어야 하며
- (4) 건축물이 건축법 제32조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에 관한 용도에 의한 제한(금지를 포함)에 해 당되지 아니할 것.

5. 竣工検査畢證의 交付

시장・군수는 심의위원회가 審議基準에 적합하다고 심

의의결한 対象建築物에 대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다. 준공검사필증을 교부시는 당해 대상건축물의 건축수 또 는 소유자에게 소정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6. 是正命令事項等

- (I) 시청명령대상 :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 였거나 또는 신고를 하였어도 審議委員会에서 외결하지 아니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지 못한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
- (2) 시정명령사항: 시장·군수는 시정명령 대상건축불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다른 법령에 의하여 행한 조치·처분 등에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대상건축물의 審議期間中 도로 및 건축선에 판한 규정(건축법 제27조 및 동법 제31조)에 적합하게, 또한 건축물의 構造 安全·위생 및 防火와 건축법 제32조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에 관한 용도에 의한 제한(금지를 포함) 규정에 적합하도록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命하거나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대상건축물을 신고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3) 是正命令 이행에 대한 신고 및 시정명령 불이행자 에 대한 조치 등
- ① 신고기간 : 시장·군수가 시정명령을 할 때 정해준 시정기간의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한다.
 - ② 신고서: 별지서식(당초 신고시의 신고서식과 동일)
- ③ 신고서의 첨부서류:시장·군수가 시정명령한 내용에 따라 시정한 부분에 대하여 건축주가 작성한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 각 1부
- ④ 시정명령을 이행한 건축물에 대한조치: 시정명령에 따라 시정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審議委員会의 결정에 따라 당해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준공전사필증을 교부한다.
- ⑤ 시청병령 및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 시장·군수는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전화·전기 및 수도를 설치하거나 공급하는 자에게 그 사용 또는 공급 등의 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사용·공급 등의 중지요청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시정명령 및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
 - ●시정명령에 위반한 자 : 3년 이하의 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過怠料賦課・徴収等

(1) 과태료 부과대상

시장·군수는 対象建築物에 대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過怠料를 賦課하여야 한다. 나만 延面積(공동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85m²이하인 住居用 대상건축물은 過怠料賦課対象에서 제외한다.

●연면적의 정의: "연면적(공동주택은 세대당 전용 면적)"이라 함은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된 부분을 포함한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同一 垈地(建築法 제 2조 제 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堡 地의 경우 포함) 안에 있는 2개 이상의 건축물의 延面積은 그 각각의 建築物別로 산정한다.

●住居用 대상건축물의 정의 :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주거와 주거 이외의 용도가 병용되는 건축물로서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이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2) 過意料賦課基準斗 算定

① 면적(建築制限線을 침범한 부분의 면적을 포함)에 관계되는 위반의 경우: 위반부분의 면적(주거용 무허가 전축물은 85㎡를 초과한 면적)의 毎 제곱미터당 30만원에 별표의 당해 건축물의 用途加重値・構造別加重値(主要構造別加重値(1)및 지붕構造別加重値(2)로 구분)및地域別加重値(対象地域別加重値(1)및 用途地域別加重値(2)로 구분)를 곱한 금액의 합계액

過意料=위반면적 (m²)×30만원×[용도벌가중치× 규모 별가중치×구조별가중치(1)(2)× 지역별가중치 (1)(2)]

(2) 면적에 관계되는 위반을 제외한 기타위반의 경우: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10에 별표 의 당해건축물의 용도별가중치·구조별가중치(주요 구조 별가중치(1) 및 지붕구조별가중치(2)로 구분) 및 지역별 가중치(대상지역별가중치(1) 및 용도지역별가중치(2)로구 분)를 곱한 금액의 합계액

過意料= 과세시가표준액 × 10/100 × [용도별가중치 × 규 모별가중치 × 구조별가중치 (1)(2) × 지역별가중 치 (1)(2)]

※ 지역별가중치(2)인 용도지역별가중치는 별표에서 정한 가중치 범위 내에서 土地等級(地方稅法上)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條例로 정한다.

- ③ 国家施策事業으로 건축 또는 개량한 건축물에 대한 과태로 부과기준 : 위에서 열거한 과태로 산정기준 중, 당 해 건축물의 용도별가중치·규모별가중치·구조별가중치 및 지역별가중치의 10분의 9로 한다.
- ④ 대상건축물이 면적에 관계되는 위반사항과 면적에 관계되지 아니한 위반사항이 중복되는 경우의 과태료산정:면적에 관계되는 위반부분에 대하여 산정한 과태로 및 면적에 관계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산정한 과태로 중에서 가장 많은 과태료만을 부과한다.
- (3) 過意料를 납부하지 않을 시의조치:地方稅徵収例에 따라 과태료를 정수할 수 있다.
- (4) 파태료 사용:시장·군수가 징수한 과태료는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구역 안의 도로·상하수도·환경정비, 기타 本法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수 없다.

8. 無償譲興받은 国・公有地 使用

- (1) 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폐지하여 당해 구역 안의 무허가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本法 외 규정에 외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이 미 지방자치단체에 無償讓與된 토자는 원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還収되지 아니한다.
- (2) 지방자치단체에 無償讓與된 토지의 사용·수익 또 는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지역 안

의 도로·상하수도 및 환경정비, 기타 本法의 목적에 적 합한 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3) 지방자치단체에 無償讓與된 토지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기타 될요한 사항은 건설부장관의 중인을 얻어지방자치단체의 條例로 정한다.

[별지 제 1호 서식]

t	1 2 9 .	1 - 4	••	처리기간
특 정 기	선 축 물 소	<u>l</u> 고 서		60일
건 축 수 ①성 명			② 주민등록번	Ž
(소유자) ③수 소				·
현 장 10성 명		•	⑤자격 ^{건축} 제	사(2급건축사) 호
조 사 차 (6) 주소 및 (6) 사무소명				
고 허가면호 (사업명)			® 해가(지시) 일 작	
⑨착공일자 19			10 완공일자	
()) શ ી				
대 자 🖺 면 적		m³	겨역·지구	'둥 구분
(3 ^전 면 (3 ^{오로} 폭		m²	(9)지역 지구	(1) (1) 구역기타
도로에 접		π ²		
의 길이		111	}	
() 대 지 () 소유구분	자기소유() 사용승택	박() 국·공유	·최()
건 축 물 구분	(m²)	②)연면적의 (m²)		
해 가당시 현 항				
역 생 공 후				
특정 건축물정리에 3	반한 특별조치	법 제 4 조의	내 규정에 의하여	며 위와 같이(득
정건축물 동변개요서는	이면)신고하	나 준공선시	中型증을 교부하	여 주시기 바람
나다.			19	
			19 신청자	
			현 등 자 현장조사자	
시 장(군수・구청장) 귀 하				
구비서류				수 수 료
1. 설계도서 1부 없 음				
2. 현장조사서 1부				
3. 대지의 소유권 및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끊.				

<u></u> 녹 정	건 축 물	- 동 박	개 .9	L 서		
구 분	변 계 충	青	青	충	충	·8-
마 ^선 ① 허가면적						
(m²) ④ 학 최						
⑤ 용도및 용도별면서 (m)	")					
⑥최고 높이			<i>3)</i> 취하3	교훈다		
용외 력 재 료			9 지붕	- 구조		
修子 李	;		(f) 2]	타		
(2)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 거리 및 띄운거리를 위하는 연면적					m (m²)
위 (3) 건축물의 면적에 반 관계되는 위반						
사 (1) 기타 건축법위반 항						

(별 표)

과 태 묘 산 정 기 준

1. 용도별 가중치

<u>번</u> 호	용 도 별	가중치
1	○호 텔	1.00
	○사무소	
	○종합시장·백화점·아케이트·슈퍼마켙	
2	○전문음식점·캬바레·나이트크럽·무도장	0.97
3	○단일접포(일용품판매소·약국·세탁소·	
	사진관 (목공소)	
	○예식장	
	○대중음식점·간이음식점·다방·과자점	
	○유기장법에 의한 각종 유기장·사격장·	
	기원	
	○이용소·미용소·목욕탕	
	○ 여 관	
4	○종합병원·병원·의원·시출소·조사원	0.90
	- 한의원	
	O교회·사찰·불당·기도원·수도원	
	○영화관·극장·관람장·집회장·전시장	
	· 촬영소	
	○주유소· 가스충전소·위험물저장시설	
	○실내도장·실내스케이트장·설내수영장	
	· 경마장	
5	○학교·유치원·사설강습소·교습장·도	0.80
	서관·연구소·직업훈련소	
	○마을공회당·마을공동작업소·마윤공동	
	구환장	
	│○단독주택·연립주택·아콰트·여인숙·	
	하숙・기숙사	
	○도서관·방송국·박물관·미술관·양노	
	원·교아원·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6	○공장・창고・차고	0.70
	○하역장·터미날·정류장·선착장·역사	
	○납골당ㆍ화장장 등	
	○ 안내소·휴게소·대피소·동식물원·수	
	족관·양수장·사우	
7	○축사·가금사·제배사·농막·잠실·짜	0.60
	이로 · 건조장 · 퇴비장	
	○전업농가의 추거용 건물]

비고 : 이 並에서 열거된 용도 이외의 건축물은 이와 유 사한 용도의 건축물로 본다.

2. 규모병 가중치

번 호	<u> </u>	<u>모</u>	별	가중치
1	8,250세곱미터 초괴	}		1.00
2	6,600제곱미터초파	8, 250제곱	l 터이하	0.90
3	4,950제곱미터초과	6, 600제곱	미터이하	0.85
4	3,300제곱미터초과	4, 950제곱	비터이하	0.80
5	1,650제곱미터초과			0.75
6	990제 곱미 터 초과	1, 650제 곱	기터이하 <u>.</u>	0.65
7	330제곱미터초과	990제곱	기뻐이하	0.60
8	165세곱미디초과	330제곱:	미리이하	(0.35)
9	85제곱미터초과	165제 꼽	기터이하	$\begin{pmatrix} 0.40 \\ (0.15) \end{pmatrix}$
10	85제곱미터이하			$\begin{pmatrix} 0.30 \\ (0.10) \end{pmatrix}$

비고 : () 안외 것은 비수거용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를 말한다.

3, 구조변 가중치

가. 주요구조별 가중치

번 호	平 요 구 조 별	가 충 치
I	<u> </u>	1.00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글조	
	보 강콘크리트블록조	
	석 조 .	
	피 · 써 (P, C) 조	
) 2	연와조	0.90
3	시멘트뺙돌조	0.75
4	목 포	0.70
5	시멘트블록 조	0.65
6	석회 및 홁 벽돌소	Q.40
7	흙 벽돌조	0.30
8	돌담 및 토담조	0.20

나. 지붕구조별 가중치

번 호	지 붕 구 조 별	가 중 치
1	스 라 브	1.00
2	토 기 와	0.95
3	시·벤 트 기 와	0.93
4	유 리	0.90
5	스 레 이 트	0.85
6	함 석	0.80
7	자 연 석	0.75
8	差 外	0.50
9	7] E }-	0.20

4. 지역별 가중치

가, 대상지역별 가중치

변호	대 상 지 역 별	가중치
1	서울특별시	1.00
2	부산직할시	0.95
3	대구직할지 • 인천직할지 • 광주지 • 수원시 •	0.90
	안양시·부천시·성남시·의정부시·대전시	
	·마산시	_
4	전주시 · 청주시 · 춘천시 · 울산시	0.85
5	제주시・포항시・경주시・구미시	0.80
6	천안시ㆍ원주시ㆍ군산시ㆍ이리시ㆍ충주시ㆍ	0.75
	제천시・강릉시・동해사・속초시・여수시・	
	순천시·목포시·김천시·안동시·영주사·	
	진주시·창원시·진해시·충무시·삼천포시	
	· 태백시 · 정주시 · 남원시 · 영천시 · 경해서	
	· 광명시 · 송탄시 · 동무천시 · 서귀포시 · 급	
	성지와 고양군 신도읍ㆍ남양추군 구리읍	
7	생택읍 · 광수읍 · 오산읍 · 군포읍 · 미금읍 ·	0.70
	원당읍 · 일산읍 · 벽제읍 · 와부읍 · 의왕읍 ·	
	소대육 · 김포읍 · 용인읍 · 유성읍 · 온양읍 ·	l
	월배읍 • 경산읍 • 왜관읍 • 양산읍과 양주군	
	백석면, 남양주군 별내면·진접면, 고양군 기도로 기호군 기일부 수양된 무기로	
	지도면, 시흥군 과천면 수암면 · 군자면	0.05
8	여주읍·팽성읍·연천읍·포천읍·가평읍·	0.65
	│양평읍·이천읍·강화읍·동부읍·홍천읍·│ │횡성읍·영월읍·평창읍·주문진읍·산처읍○	
) 1	청성급 · 성명급 · 청성급 · 구군선급 · 산석급 ·도계읍 · 보은을 · 옥천읍 · 영동음 · 증평음	
	^ 그 세급 · 포근급 · 국산급 · 경공급 · 경영급 음성읍 · 다양읍 · 금산읍 · 조치원읍 · 공주유	
	विवास चिवस विवास मन्त्रीय के रिच	

· 논산음· 강경읍·연무읍· 부여읍· 강창읍· 대천읍· 흥성읍· 광천읍· 에산읍· 서산읍· 영한읍· 성환읍· 부인읍· 경제읍· 송장읍· 당진읍· 성환읍· 보선읍· 생광읍· 의성읍· 영당읍· 보성읍· 발교읍· 장흥읍· 의성읍· 영당읍· 보성읍· 발교읍· 장흥읍· 의성읍· 영당읍· 보성읍· 상주음· 점촌읍· 보성읍· 사산읍· 상주음· 점촌읍· 구 명읍읍· 성수읍· 신산읍· 상주음· 점촌읍· 감정읍읍· 정수읍· 교성음· 과장읍읍· 상당읍읍· 장등보읍· 과장읍· 과정읍· 가장읍읍· 장등보읍· 가장읍읍· 장등면 가장면 가양면 간 양면 가장성읍 가장읍면 가장면 가장면 가장면 가장면 가장면을 가장읍읍· 구라읍읍· 간성읍읍· 가장읍읍· 구장읍읍· 기진읍읍· 강양읍읍· 구장읍읍· 원단진읍읍· 장양읍읍· 구장읍읍· 장양읍읍· 구에읍읍· 등등왕읍읍· 장양읍읍· 구에읍읍· 등등왕읍읍· 라장읍읍· 함명읍읍· 한당읍읍· 구에읍읍· 등등읍읍· 장양읍읍· 구에읍읍· 등등읍읍· 장양읍읍· 가장읍읍· 사업읍읍· 사선읍읍· 사선읍읍읍읍읍읍읍읍읍읍			
· 괴산읍·금왕읍·매포읍·센탄진읍·서천 읍·청양읍·살교읍·태안읍·합덕읍·안민 읍·진안읍·무주음·장수읍·임살읍·순창 읍·고창읍·살폐읍·센태인읍·봉동읍·항 열읍·옥구읍·미성읍·곡성읍·라평읍·왕 양읍·고흥읍·도양읍·화순읍·함평읍·완 산읍·금일읍·노화읍·백수읍·일로읍·지 도읍·건도읍·생일읍·동산읍·대덕윱· 산읍·금일읍·노화읍·백수읍·영양읍·구 롱포음·의창음·감포읍·안강읍·건천읍· 가은읍·풍기읍·봉화읍·청송읍·성서음· 외동읍·오천읍·연일읍·학창읍·철곡읍· 평해읍·가야읍·남지읍·하남읍·진영읍· 신현읍·사천읍·남제읍·한당읍· 지영읍· 신현읍·사천읍·남제읍·대정읍·애월읍· 구좌읍·성산읍과 화성군 태안면·파주군 천 현면·청원군 북일면·대덕군 기성면·완주 군 포촌면·여천군 화양면·북제주군 조천면 •울릉읍	9	대천읍 · 홍성읍 · 광천읍 · 예산읍 · 서산읍 · 당진읍 · 성환읍 · 부인읍 · 김제을 · 홍정읍 · 담양읍 · 보성읍 · 벌교읍 · 장홍읍 · 강진읍 · 해남읍 · 영암읍 · 무안읍 · 영광읍 · 의성읍 · 영당읍 · 금호읍 · 안실읍 · 하양읍 · 화양읍 · 청도읍 · 고령읍 · 성주읍 · 선산읍 · 상주음 · 점촌읍 · 문경읍 · 예천읍 · 의령음 · 창성읍 · 일양읍 · 삼량진읍 · 장당모읍 · 고성읍 · 하통읍 · 거창읍 · 합천읍과 광주군 조월면 · 최촌면 · 남종면 · 중부면 · 서부면 · 양평군 · 양서면 · 강하면 · 김포군 고촌면 · 계양면 · 용인군수 지면 · 화성군 반월면 · 안성읍 · 장성읍 · 작선읍 · 사복읍 · 철원읍 · 주내읍 · 상동읍 · 정선읍 · 사복읍 · 철원읍 · 근화읍 · 갈말읍 · 화천읍 · 양구읍 · 인제읍 · 간성읍 · 거진읍	0.60
읍·청양읍·삽교읍·태안읍·합덕읍·안민 읍·진안읍·무주읍·장수읍·임실읍·순창 읍·고창읍·삼폐읍·신태인읍·봉동읍·항 열읍·옥구읍·미성읍·곡성읍·구례읍·광 양읍·고흥읍·도양읍·화순읍·함평읍·완 도읍·진도읍·삼일읍·돌산읍·대덕윱·완 산읍·금일읍·노화읍·백수읍·열모읍·지 도읍·군위읍·풍산읍·청송읍·연양읍·구 롱포읍·의창읍·감포읍·안강읍·건천읍· 가은읍·풍기읍·봉화읍·울진음·성서음· 외동읍·오천읍·남지읍·하남읍·진영읍· 신현읍·사천읍·남지읍·하남읍·진영읍· 신현읍·사천읍·남지읍·하남읍·지영읍· 기장읍·남원읍·한림읍·대정읍·애월읍· 구좌읍·성산읍과 화성군 태안면·파주군 천 현면·청원군 북인면·대덕군 기성면·완주 군 포촌면·여천군 화양면·북제주군 조천면 •울릉읍	ļ	·양양읍·동송읍·신동읍·원덕음·진천읍	
읍·진안읍·무주읍·장수읍·임설읍·순창읍·고창읍·삼폐읍·신태인읍·봉동읍·항영읍·옥구읍·미성읍·곡성읍·구례읍·광양읍·고흥읍·도양읍·화순읍·함평읍·완 양읍·고흥읍·도양읍·화순읍·함평읍·완 도읍·진도읍·삼일읍·돌산읍·대덕윱·판 산읍·금일읍·노화읍·백수읍·일로읍·지 도읍·군위읍·풍산읍·청송읍·영양읍·구 통포읍·의창읍·감포읍·안강읍·건천읍· 가은읍·풍기읍·봉화읍·울진음·성서읍· 외동읍·오천읍·연일읍·학창읍·철곡읍· 평해읍·가야읍·남지읍·하남읍·진영읍· 신현읍·사천읍·남해읍·산청읍·함양읍· 기장읍·남원읍·한림읍·대정읍·애월읍· 구좌읍·성산읍과 화성군 태안면·좌주군 천 현면·청원군 북인면·대덕군 기성면·완주 군 조촌면·여천군 화양면·북세주군조천면 호물등읍	ļ	· 괴산읍 · 금왕읍 · 매포읍 · 신탄진읍 · 서천	
유·교창읍·삼폐읍·신태인읍·봉동읍·항 열읍·옥구읍·미성읍·곡성읍·구례읍·광 양읍·교흥읍·도양읍·화순읍·함평읍·완 도읍·진도읍·삼일읍·돌산읍·대덕윱·판 산읍·금일읍·노화읍·백수읍·일로읍·지 도음·군위읍·풍산읍·청송읍·영양읍·구 룡포읍·의창읍·감포읍·안강읍·건천읍· 가은읍·풍기읍·봉화읍·울진음·성서음· 외동읍·오천읍·연일읍·합창읍·킬곡읍· 평해읍·가야읍·남지읍·하남읍·진영읍· 신현읍·사천읍·남해읍·산청읍·함양읍· 기장읍·남원읍·한림읍·대정읍·애월읍· 구좌읍·성산읍과 화성군 태안면·화주군 천 현면·청원군 북인면·대덕군 기성면·완주 군 조촌면·여천군 화양면·북세주군조천면 호물등읍		옵·청양읍·삽교읍·태안읍·합덕읍·안민	
열읍·옥구읍·미성읍·곡성읍·구례읍·광양읍·고흥읍·도양읍·화순읍·함평읍·완 당읍·고흥읍·도양읍·화순읍·함평읍·완 도읍·진도읍·삼일읍·물산읍·대덕읍·만 산읍·금일읍·노화읍·백수읍·일로읍·지 도읍·군위읍·풍산읍·청송읍·영양읍·구 룡포음·의창읍·감포읍·안강읍·건천읍· 가은읍·풍기읍·봉화음·울진음·성서음· 외동읍·오천읍·연일읍·합창읍·칠곡읍· 평해읍·가야읍·남지읍·하남읍·진영읍· 신현읍·사천읍·남해읍·산청읍·함양읍· 기장읍·남원읍·한림읍·대정읍·애월읍· 구화읍·성산읍과 화성군 태안면·화주군 천 현면·청원군 북일면·대덕군 기성면·완주 군 조촌면·여천군 화양면·북세주군 조천면 •울릉읍		읍 · 진안읍 · 무주음 · 장수읍 · 임설읍 · 순창	
양읍 · 고흥읍 · 도양읍 · 화순읍 · 함평읍 · 완 도읍 · 진도읍 · 삼일읍 · 몰산읍 · 대덕읍 · 관 산읍 · 금일읍 · 노화읍 · 백수읍 · 일로읍 · 지 도읍 · 군위읍 · 풍산읍 · 청송읍 · 영양읍 · 구 룡모음 · 의창읍 · 감포읍 · 안강읍 · 건천읍 · 가은읍 · 풍기읍 · 봉화읍 · 울진음 · 성서음 · 외동읍 · 오천읍 · 연일읍 · 합창읍 · 칠곡읍 · 평해읍 · 가야읍 · 남지읍 · 하남읍 · 진영읍 · 신현읍 · 사천읍 · 남해읍 · 산청읍 · 합양읍 · 기장읍 · 남원읍 · 한림읍 · 대정읍 · 애월읍 · 구화읍 · 성산읍과 화성군 태안면 · 화주군 천 현면 · 청원군 북일면 · 대덕군 기성면 · 완주 군 조촌면 · 여천군 화양면 · 북세주군 조천면 · 울릉읍		옵·고창읍·삼례읍·신태인읍·봉동읍·항	
도읍·진도읍·삼일읍·몰산읍·대덕읍·관산읍·금일읍·노화읍·백수읍·일로읍·지도읍·군위읍·풍산읍·청송읍·영양읍·구롱포읍·악창읍·건천읍·가은읍·풍기읍·봉화읍·울진음·성서음·의동읍·오천읍·연일읍·핚창읍·칠곡읍·평해읍·가야읍·남기읍·하남읍·진영읍·신현읍·사천읍·남해읍·산청읍·함양읍·기장읍·남원읍·한림읍·대정읍·애월읍·구화읍·성산읍과 화성군 태안면·파주군천한면·청원군 북일면·대덕군 기성면·완주군 조촌면·여천군 화양면·북세주군조천면・울릉읍			
산읍·금일읍·노회읍·백수읍·일로읍·지 도음·군위읍·풍산읍·청송읍·영양읍·구 롱포음·의창음·감포읍·안강읍·건천읍· 가은읍·풍기읍·봉화음·울진음·성서음· 외동읍·오천읍·연일읍·합창읍·칠곡읍· 평해읍·가야읍·남지읍·하남읍·진영읍· 신현읍·사천읍·남해읍·산청읍·합양읍· 기장읍·남원읍·한림읍·대정읍·애월읍· 구좌읍·성산읍과 화성군 태안면·파주군 천 현면·청원군 북일면·대덕군 기성면·완주 군 포촌면·여천군 화양면·북제주군 조천면 •울릉읍	- !	· _ :	1
도읍·군위읍·풍산읍·청송읍·영양읍·구 룡포읍·의창읍·감포읍·안강읍·건천읍· 가은읍·풍기읍·봉화읍·울진음·성서읍· 외동읍·오천읍·연일읍·합창읍·칠곡읍· 평해읍·가야읍·남지읍·하남읍·진영읍· 신현읍·사천읍·남해읍·산청읍·항양읍· 기장읍·남원읍·한림읍·대정읍·애월읍· 구좌읍·성산읍과 화성군 태안면·퍄주군 천 현면·청원군 북일면·대덕군 기성면·완주 군 포촌면·여천군 화양면·북세주군 조천면 ·울릉읍	!		
룡포음・의창음・감포읍・안강읍・건천읍・ 가은읍・풍기읍・봉화음・울진음・성서음・ 외동읍・오천읍・연일읍・합창읍・칠곡읍・ 평해읍・가야읍・남지읍・하남읍・진영읍・ 신현읍・사천읍・남해읍・산청읍・합양읍・ 기장읍・남원읍・한림읍・대정읍・애월읍・ 구좌읍・성산읍과 화성군 태안면・파주군 천 현면・정원군 북일면・대덕군 기성면・완주 군 포촌면・여천군 화양면・북제주군 조천면 ・울릉읍			
가은읍·풍기읍·봉화음·울진음·성서음· 외동읍·오천읍·연일읍·합창읍·칠곡읍· 평해읍·가야읍·남지읍·하남읍·진영읍· 신현읍·사천읍·남해읍·산청읍·함양읍· 기장읍·남원읍·한림읍·대정읍·애월읍· 구좌읍·성산읍과 화성군 태안면·퍄주군 천 현면·청원군 북일면·대덕군 기성면·완주 군 조촌면·여천군 화양면·북제주군조천면 •울릉읍			
외동읍·오천읍·연일읍·합창읍·칠곡읍· 평해읍·가야읍·남지읍·하남읍·진영읍· 신현읍·사천읍·남해읍·산청읍·합양읍· 기장읍·남원읍·한림읍·대정읍·애월읍· 구좌읍·성산읍과 화성군 태안면·파주군 천 현면·청원군 북일면·대덕군 기성면·완주 군 조촌면·여천군 화양면·북제주군조천면 ·울릉읍	ļ		
평해읍·가야읍·남지읍·하남읍·진영읍· 신현읍·사천읍·남해읍·산청읍·함양읍· 기장읍·남원읍·한림읍·대정읍·애월읍· 구좌읍·성산읍과 화성군 태안면·파주군 천 현면·청원군 북일면·대덕군 기성면·완주 군 조촌면·여천군 화양면·북세주군조천면 •울릉읍			
신현읍·사천읍·남해읍·산청읍·함양읍· 기장읍·남원읍·한림읍·대정읍·애월읍· 구좌읍·성산읍과 화성군 태안면·파주군천 현면·청원군 북일면·대덕군 기성면·완주 군 조촌면·여천군 화양면·북세주군조천면 •울릉읍			
기장읍·남원읍·한림읍·대정읍·애월읍· 구좌읍·성산읍과 화성군태안면·파주군천 현면·청원군 북일면·대덕군 기성면·완주 군 조촌면·여천군 화양면·북세주군조천면 ·울릉읍		•	
구좌읍·성산읍과 화성군 태안면·파주군천 현면·청원군 북일면·대덕군 기성면·완주 군 조촌면·여천군 화양면·북제주군조천면 ·울릉읍			
군 조촌면·여천군 화양면·북제주군조천면 ·울릉읍			
• 울릉입		현면·청원군 북일면·대덕군 기성면·완주	
		, ,	
그리다 그리다 하네요			
기타 기타 전시적0.30	기타	기타 면지역	∙0.50

비고: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이 표에서 열거된 번호 란중 기타에 해당한 면이 읍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는 번호란중 9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적용하고, 읍 에서 시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번호란중 6에 해당 하는 가중치를 적용한다.

나. 용도지역별 가중치

번 호	용도 지역 별	가 중 치
1	상 업 지 역	1.00 - 0.70
2	준 주 거 지 역	0.90 - 0.60
3	준 공 입 치 역	0.85 ± 0.55
4	주 거 지 역	0.80 - 0.50
5	공 업 기 역	0.80 - 0.50
6	주 거 전 용 지 역	0.70 - 0.40
7	전 용 공 업 지 역	0.70 - 0.40
8	자 연 녹 지 지 역	0.60 - 0.30
. 9	생 산 녹 기 지 역	0.50 - 0.20
10	기 타 지 역	0.50 - 0.20

건설부 고시 제122호(82, 4, 8)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 6조의 규

정에 의하여 건축사의 업무보수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한다.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건축사의 업무보수기준

-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 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 천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을 신고하기 위하여 건 축사가 위탁을 받은 업무에 관하여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건축사의 업무범위) 이 기준에서 건축사가 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갈다.
 - 1.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차법시행령 제5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 도·및 주단면도를 말한다) 및 현장조사서의 작 성
 - 2. 법 제 4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자가 이행하여야 할 신고검차의 대리이행
 - 3. 제 1호 및 제 2호의 업무에 수반되는 업무
- 제3조 (건축사의 업무보수기준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가 행하는 업무의 보수기준액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건축사협회가 정한다.
 - 대상건축물의 위반사항이 면적에 관계되는 위반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액
 - 가. 대상건 축물의 구조가 석회 및 흙벽돌조, 흙벽돌 조 또는 몰담 및 토담조인 경우에는 매제곱미터당 950원 이하
 - 나. 대상건축물의 구조가 목조, 시멘트블록조 또는

- 시멘트벼물조인 경우에는 매 제곱미터당 1,050원 이하
- 다. 대상건축물의 구조가 연화조, 보강콘크리트블록 조 또는 경량철골조인 경우에는 매 제곱미터당 1,250원 이하
- 라. 대상건축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피· 씨(P.C) 조인 경우에는 매 제곱미터당 1,350원 이 하
- 마. 대상건축물의 구조가 석조인 경우에는 매제곱미 터당 1,450원 이하
- 바. 대상건축물의 구조가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조인 경우에는 매 제곱며터당 1,550원 이하
- 대상건축물의 위반사항이 면적에 관계되지 않는 위반인 경우에는 건축물 1동당 5만원 이하
- 제 4 조 (건축사의 입무보수액 산정기준) 건축사의 입무 보수액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1.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기준액에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를 작성하는 당해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2. 제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이 4만원이 하인 경우에는 4만원으로 한다.
 - 3. 무허가건축물 및 위법시공건축물로서 면적에 관계되는 위법사항과 면적에 관계되자 아니하는 위법사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금액만으로한다.

부 최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1984년 6월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예술과 민중은 하나가 아니면 안된다. 예술은, 이미 소수의 즐거움이 아니고 대중의 복과 생활이 아니면 안 된다. 위대한 建築芸術의 날개 밀에 모든 예술을 집결시킬 것. 그것이 목표다.

〈芸術運營委員會〉

偉大한 建築芸術의 날개아래1919

〈자료〉

개정법령

- 도시계획법
- 도시공원법
- 토지형질변경등 행위허가기준

도시계획법시행규칙중 개정령(개정 4. 17)

- 제2조제1항제1호의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초지조성과 사료작물재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우 마사: 초지조성면적과 사료재배면적의 1천분의 5 이 하
- 제2조제1항제1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마. 잠실: 뽕나무발 조성면적 2 천제곱미터당 또는 뽕나무 1 천800주당 50제곱미터 이하
- 제2조제1항제1호의 사목중 "그 토지면적의 1,000분의 5이하(기존창고의 면적을 포함한다)"를 "기존창고면적을 포함하여 그 토지면적의 1천분의 5이하"로 하고, 동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 감귤을 저장하기 위한 경우에는 1천분의 10 이하로 한다.
- 제 2 조제 1 항제 1 호외 아목중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토지면적의 1,000분의 5 이하로서 33제곱미터 이하(기존 관리용 건축불의 면적을 포함한다)를"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토지면적의 1 천분의 5 이하로서 기존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동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 계주도에 있는 감귤농원의 경우에는 66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 제2조제1항 제1호의 자목율 다음파 같이 한다.
 - 자. 담배건조실: 기존 잎담배건조실의 면적을 포함하여 잎담배재배면적의 1천분의 5 이하
- 제2조제1항제2호의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주택의 중축: 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 곱미터 이하. 다만, 지하층은 나목의 부속 건축물로 이를 건축할 수 있다.
- 제 2 조제 1 항제 3 호의 라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라, 학교(교육법 제8I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국 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대학 및 대학에 준하는 신학교에 한 한다.
 - 이하같다) 시설의 중축(개발제한구역안 또는 개발제한 구역의 인접지에 이미 설치된 학교로서 그 개발제한 구역의 인접지에 중축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과 국민학교의 분교장의 설치(댐 또는 고속도로 등외 설치나 학구개편으로 통학이 곤란한 경우에 한한다)
 - 사.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 (1) 공익사업, 부탁공동사업 및 취탁구조개선사업의 사행으로 인하여 철거되어 인근 대지 또는 인근부

- 락으로 이축되는 건축물 및 공작물
- (2) 빈발하는 수해로 그 이전이 불가되한 건축물, 외 만집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을 할 수 없는 건축물로서 인근대지 또는 인근부탁으로 이축 되는 건축물
- (3)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취락구조개선사업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인근에 있는 취락으로서 개발 제한구역안으로 이축되는 경우 또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취락으로서 당해 개발제한구역안 또는 다른 개발제한구역안으로 이전되는 경우의 당해 취락. 다만, 이전대상인 취락이 대지로서 부적당한 곳에 위치하거나 입지여건상 그의 이전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한다.
- 제2조제1항제3호의 아무중 "공원시설중"을 삭제한다. 제2조제1항제3호의 커목중 "종축장"다음에 "잠종장" 올 추가한다.
- 제2조제 1항 제3호에 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법 제 5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공원시설(대중음식점 및 유드호스텔은 제외한다)
- 제 2 조제 1 항 제 4 호의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마. 농업협동조합 , 축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를 포함한다) 이 설치하는 공동구판장·하치 장·창고·농기계수리소·농기계용 유류판매소, 선착 장 및 물양장
- 제2조제1항제5호의 제목 "광공업등"을 "광공업 저설등"으로 한다.
- 제2조제1항제6호 나목중 「"다"목 및 "라"목」을 "다목 및 라목"으로 한다.
- 제 2 조제 1 항제 6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다. 다음의 건축물의 용도변경
 - (1) 공장을 다른 엄종의 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이 경우 변경후의 업종은 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 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하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으로서 오염물질등의 배출 기타 공해의 정도가 변경 전의 업종의 정도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 (2) 공장·주택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일용품소매점·간이음식점·대중음식점·다과점·다방·여용원·미용원·세탁소·공중목욕탕·사진관·목공소·의원·조산소·동물병원·간이수리점·취사용가스판매점 장의사 및 방아간에 한한다). 사회복

지시설(탁아소·양로원등을 말한다) 또는 종교시설이 나 유치원으로 용도번경하는 경우.

- 제 2 조제 1 항제 6 호에 아목·자목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아. 공중목욕탕
 - 자, 효열비·사당 및 이와 유사한 시설
 - 차. 나환자촌에 설치하는 전로소와 나환자기 전계분을 이용하여 직접경영하는 생산시설
-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시행령 제20조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행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만 같다.
 - 1. 3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부속전축물의 개축 및 대수선
 - 2. 30째곱미터 이하의 축사·우마사·퇴비사·잠실·싸이로·창고·관비용건축물·담배건조실·버섯재배사 또는 양어장 부대시설의 계축 및 대주선
- 제 3 조 제 2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국목의 발재 및 재식. 다만, 산림안에서의 죽목의 재식과 조림을 위한 벌채는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다.
- 제 3 조제 6 호의 표충 "사문압"의 기준란을 다옵파 같이 한다.

연간 6천톤 이상의 생산규모로 5년이상 체굴할 수 있는 광산

제 3 조제 8 호의 가복중 "99,000 제곱미터이상"을 " 9 만 9

천제곱미터이상"으로 한다.

- 제 3 조제 10호중「"타목"」을 "타목"으로, 동조 제 11호 중 「"사"목」을 "사"목으로 한다.
- 제 3 조제 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3. 제 2 조제 1 항제 3 호 라목의 학교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형질변경
- 제3조제14호중「"러"목 내지 "퍼"목」을 "러목 내지 허목"으로 한다.
- 제 4 조 본문충 "및 진축면적의 토지형질변경면적에 대한 비율"을 "건축면직의 토지형질면경 면직에 대한 비율 및 토지분할의 기준"으로 하고, 동조에 제 4 호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 4. 도지의 분할은 기존건축물의 증축 또는 개축과 기 존주택의 분할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로서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최소대지면적 이하로의 분할이 아닐것, 다만, 도로의 설치등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박공형다락방의 천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총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전축중에 있는 박공형다락방에 관하여는 제 2 조제 1 함제 2 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총전의 규정에 의한다.

도시공원법시행규칙증계정령(개정 82.4.17)

- 제 2 조제 2 호중 "야영장" 다음에, "노인정, 노인회관"을 추가하고, 동조제 5 호중 "교육용 야외극장, 과학전시판,"을 "야외극장, 전시관, 문화최관, 청소년회관,"으로 한다.
- 제4조체 1 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토지이용계획상 또는 기성시가지안에서의 새로운 도시공원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면적 을 다음 각호의 기준 이하로 할 수 있다.
- 제 4 조 제 1 항제 1 호중 "1,500제곱미터를 "1 천500세곱미터"로 하고, 동항 제 2 호중 "10,000제곱미터"를 "1 만 제곱미터"로 하며, 동항제 3 호중"1,000미터"를 "1천미터"로, "30,000제곱미터"를 "3 만제곱미터"로 하고, 동항제 4 호중 "100,000제곱미터"를 "10만세곱미터"로 하며, 동항제 5 호중 "1,000,000제곱미터"를 "100만제곱미터"로 하고, 동항제 6 호 및 제 7 호중 "1,000,000제곱미터"를 작각 "10만 제곱미터"로 한다.
- 제 5 조제 1 항중 "건축법 제 2 조제 2 호 및 제 3 호"를 "건축법 제 2 조제 2 호"로 하고, "당해도시공원면적"을 "당해 도시공원면적(도시자연공원인 경우에는 제 6 조제 4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구역의 면적을 발한다)"으로한다.
- 제 6 조제 1 항제 3 호충 "운동시설"다옵에, "교양 시설(도

- 서관에 한한다)"을 추가 하고, 동항 제 5 호를 다음파갈 이 한다.
- 5. 도시자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주로 양호한 자연조건과 역사적 의의가 있는 장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경시설·휴양시설·유희시설·운동시설·교양시설 및 편익시설로 한다. 다만, 다음의 시설은 제 6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 구역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 가, 유회시설 및 운동시설
 - 나. 식물원을 제외한 교양시설
 - 다. 대중음식점·약국·유드호스텔·수화물에치소· 전망대·시계탑·주차장 및 매점
- 제 6 조에 제 4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공원이용자의 편의와 공원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자연공원안에서 그 공원면적의 20퍼센트이하에 해당하는 일정한 구역(이하"공원시설구역"이라 한다)에 공원시설을 집단화할 수 있다.
- 제 8 조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도시공원안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 하나의 도시공원안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의 합계는 당해도시공원의 면적에 대하여 다

음의 비율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어린이공원:60퍼센트이하

나. 근립공원:40퍼센트이하

다. 도시자연공원: 20퍼센트이하

라. 묘지공원: 20퍼센트이상

2. 공원시설구역안에 설치하여야 하는 제 6조 제 1항 제 5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의 부지면저의 합계는 당해 공원시설구역 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세 8 조세 2 항제 1 호중 "100,000제곱미터"를 "10만제곱미 터"로하고, 동호중 "(묘지공원인 경우에는 정숙한 분 위기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 한다)"를 삭제하며, 동항세 2 호중 "100,000제곱미터" 를 "10만세곱미터"로 하고, 동항제 3 호중 "1,000,000 제곱미터"를 "100만제곱미터"로 하며, 동항에 제 4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교양시설중 도서관: 3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 제3조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교양시설중 도서관의 설치는 당해시설의 이용증 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원의 미관에 지장이 없는 법 위안에서 7층까지 할 수 있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 ②(조성이 완료된 도시공원안의 공원시설등에 대한 경파 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공원조성이 완료된 공원 시설에 대하여는 제 6 조제 1 항제 5 호 단서의 개정규정 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미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된 묘 지 공원안의 공원시설부지면적의 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하기기준등에 관한규칙(개정 82. 4. 17)

- 제 1조 (목적)이 규칙은 도시계획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지 5 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이하"법" 이라 한다) 제 4 조제 1 항의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토지 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재식, 토자의 분 할등 행위에 관한 허가기준을 정함으로써 토지의 합리 적 이용과 도시계획과의 조화를 기하게 하여 도시의 전 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는 다음과 같다.
 - "토자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조성이 완료된 기존대지 안에서의 전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저의 굴착행위를 제외한다)와 공유수면의 배립을 말한다.
 - 2. "죽목"이라 함은 산림법의 적용을 받는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입목죽을 말한다.
- 제3조 (신청서) ①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또는 죽목의 벌채·재식을 위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토지의 분할을 위한 허가신청서는 별지제2 호서식에 의한다,
 - ②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전의 설치 또는 퇴적을 위한 허가신청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의한다.
 -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2. 신청목적
 - 3. 신청내용
 - 4. 위치도
 - 5. 기타 필요한 사항
- 제4조 (행위허가등) ①시장(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지역안에서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상 당해 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조경·재해 예방등 필요한 조 치를 하는 경우와 토지분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1.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풍치· 미관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 2. 지형조건등에 비추어 당해 사업의 시행이 심히 부 적합한 지역
-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
- 4. 국방상 또는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 역
- 5. 녹지지역으로서 조수류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 지등으로 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
- ②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용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하가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지역에 도로・상수도등에 대한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인접지역의 기존도시계획과 조화되도록 공공시설을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한 경우
-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안에서 농업·임업또는 이업에 종사하는 자가 주거용 건축불의 건축을 목적으로 행하는 1천2백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제 5 조 (조 건)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 4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원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불

일 수 있다.

- 제 6조 (원상회복의 이행을 위한 조치)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 4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이 중단되거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 토지등의 원상회복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총공사비의 20퍼센트 범위안에서 일정금액을 원상회복이행보증금으로 예치하게 할 수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기타 공공단체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7 조 (준공검사) ①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 4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또는 축목의 벌채·재식을 위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그 허가를 받은 자에게 당해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준공 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제 I 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 자는 당해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 3 호 서 식의 준공검사신청서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 ③시장 또는 군수는 허카내용대로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준공검사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 야 한다.
- 제8조 (허가의 규모) ①토지의 형질변경허가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 주거용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1 만제곱미터미만
 - 공장부지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3 만세 곱미터 미만
 - ②시장 또는 군수는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연 및 녹지역안에서는 전축법이 허용하는 전축을 위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용하되,새로운 대지조성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1 만세곱미터 미만의 범위안에서 가장 또는 군수가 따로 기준을 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 제 9 조 (대지의 안전등) ①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 4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하가를 함에 있어서 토지의 형질변경의 대상인 토지가 연약한 지반일 경우에는 그 두께 · 넓이·지하수위등의 조사와 지반의 자지력·내려앉음· 솟아 오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여 흙바꾸기·다지기·배수등의 방법으로 이를 개량하게 하여야 한다.
 - ②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 4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 2. 토사가 무너져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불 임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시는 토압등을 고려 하여 안전한 경사로 하여야 한다.
 -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용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4. 경사가 집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홈파의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내림 또는 내려앉음등에 버틸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표준 시방서에 의한다.
-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 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 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 제10조 (도 로)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 4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도로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에 있어서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 1. 행위지역이외의 모든 도로의 지능과 조화되도록 하고, 행위지역이외의 도로와 연결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연결하여 도로로서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며,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이 이미 결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예정건축물등에 연결되는 도로는 폭4미터 이상이 어야 하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3. 도로구조는 교통에 지장이 없고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하고, 보행자 전용도로 이외에는 계단형태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 4. 하수를 충분하게 배출할 수 있는 배수구 등 필요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 5. 다른도로와의 연결이 예정되어 있거나 차를 돌립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등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막다른 길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 6. 제 1 호 내지 제 5 호 이외에 도록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로구조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수도 기타 급수시설은 당해 행위지역의 규모·형상 및 주변의 상황과 대상건축물등의 용도 및 규모등을 감안하여 예상되는 수요에 지장이 없는 규모 및 구조 로 하고, 급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배수본관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단부가 없는 그물형태로 하고, 의력인 토압등의 하중과 내력인 수압에 의하여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급수시설은 얼어서 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모양이 얼지아니하는 깊이 이상으로 이를 묻거나 덮개등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4. 제 1 호 내지 제 3 호 이외에 수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수도법 제 5 조의 규정에 의한다.

- 제12조 (배수시설)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 4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하수도등 배수시설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에 있어서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 1. 행위지역의 규모, 형상 및 주변의 상황과 지반의 성질, 대상건축물등의 용도, 당해 행위지역 안으로 유입되는 지역밖의 하수상황 또는 강수량등에 의하여 예상되는 오수 및 빗물을 유효하게 배출하고, 그 배 출에 의하여 당해 행위지역안 및 그 주변지역에 피해 를 끼치지 아니할 규모 및 구조로 하며, 배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에 적합하 도록 하여야 한다.
 - 2. 당해 행위지역안의 하수를 충분하게 배출할 수 있 도록 행위지역밖의 하수도·하천 기타 공공의 수역 또는 해역에 연결되도록 하고, 이 경우 방류선에서의 배수능력의 부족으로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 해 행위지역안의 하수를 저류하는 유수지 기타 필요 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 3. 하수의 배출은 분류식으로 하되, 당해 행위지역밖 의 조건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합류식으로 할 수 있다.
 - 하수의 배출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암저방
 식에 외하고, 자연환경을 심하게 파괴할 오수를 방출할 경우에는 중말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5. 배수시설의 구조는 자중·수압·토압 또는 차량등의 하중 및 지진동에 대한 내구력이 있고, 누수되거나 지하수가 침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주조물은 지하수의 부력에 견딜 수 있도록 축조하여야 한다.
 - 7. 배수관은 도로 또는 배수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 이 없는 장소에 매설하고, 안지름은 200미리미터 이 상이어야 한다.
 - 8. 배수관의 묻는 깊이는 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9. 하수처리 시설의 처리농력은 1일에 처리할 수 있는 평균하수처리량으로 하고, 그 하수처리시설과 연결되 는 도수관의 처리능력은 1일에 통과시킬 수 있는 최 대하수량으로 한다.
 - 10. 제 1 호 내지 제 9 호 이외에 하수도의 구조 및 설치 에 관하여는 하수도법 제 15조의 규정에 의한다.
- ·제13조 (토석의 채취)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토석의 채취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 1. 주변의 상황·교통 및 자연경관등을 종합적으로고 려하여야 한다.
 - 2. 돌산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허가는 소음·진동 등에 의하여 인근에 피해가 없는 지역에 한하도록 하 여야 한다.
 - 3.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허가는 시가화 대상이 아닌 지역으로서 언근에 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도록 한다. 다만, 국민경제상 중요한 광물자원의 개발을 위한 경우로서 인근의 토지이용에 대한 피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 (환경보전조치)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 4 조제 I 항의 규정에 외한 토석의 채취하가에 있어서 사업구역 및 그 주변지역에 소음·진동등에 의한 환경조건의 악화가 예상될 때에는 허가조건으로 녹지의 조성 기타 완충지대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 (공유수면의 매립) 시장 또는 군수는 공유수면의 매립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에 있어서는 그 매립 목적이 도시계획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
- 제16조 (축목의 벌채등) ①법 제 4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축목의 벌채허가는 나읍의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
 - 1.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의 채취에 수반되는 경우
 - 2. 수충갱신을 위한 경우
 - 3. 죽목의 간벌을 하는 경우
 - 4.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경우
 - ②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지(초 지를 포함한다.) 주택지·도로·과수원 기타 이에 유 사한 지역에 있는 죽목의 벌채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 가를 하여야 한다.
- 제17조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등) ①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창소로 결정된 토지 또는 공유수면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불 또는 공작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가설건축물(법 제14조의 2개4항의 규정에 의한가설건축물에 한한다)의 건축이나 당해 도시 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은 예외로 한다.
 - ②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으로서 법 제 4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은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고, 동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잘변경, 토석의 체취 또는 죽목의 벌채·재식의 허가는 동 건축물등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의 허가와 동시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체취 또는 죽목의 벌채·재식을 위한 허가기준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8조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의 설치 등)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 4 조제 I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의 설치 또는 퇴적에 대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위해의 발생이나 도시경관의 훼손등의 염 러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
- 제19조 (토지의 분할) ①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 4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분할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 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 1.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토지경제선을 시정하여 당해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고자 분할 후 합필하기 위하 여 분할하는 경우
 - 2. 사설도로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 3. 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 및 공용지로 되는 경우
 - 4.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을 분할하는 경우
 - 5. 녹지지역안에서 기존의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 6.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지적고시가 있는 경우

②제 1 항제 1 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후 남는 토지나,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가 합필된후의 토지의 면적이 건축법 제39조의 2 의 규정에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되거나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비율에 제촉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분할하기 전의토지의면적에 증감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0조 (세부시행기준) 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의 특성을 갑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국칙 또는 다른 법령에서

[별지 제 1 호서식]

ارات]도지형	질변경 ₁	•••					ż	1217	1간
		채취	허가	신청스	1				15 °]
15]숙 목]축 목	채식								
	(1)성 명	한 글			(2) 夺	민등록	변호			
신청인	③ ₹	한 자 소								
	(4)7 1	사 도			5.	(5) 毕	질			
보지헌황	- Variety	에 장량			_	1 47	m ³			
41 .1 .1 51		3 수 종								
임상현황	(8)임	목 지			m²	⑤무·위·	목지			m²
*****]	청	내		흄				
<u>(10</u>)4]		치(지번)								
(D)토 지 🌣	성질 빈	경 면 적								m²
토석세취	(2)म्	적			m²	(13)午	턍			nı ^a
숙목벌체	(P+	콩				(D)+E	个			본
죽목제식	19 1	중				⊕	수			본
(8)하	가 -	<u> </u>								
사업기간	(19작	<u></u>	년	월			공	년	힘	但
도시계:	학법 제4.	조제1항의	규정에	l 의하·	계 위의	ト 같이	신천학	ナ니다.		
						녠	Ą	Ī	•	일 .
시 : 군-	할 귀하				신	청인			<u> </u>	
		치도 1부							44	克克
구비서류	2. 도	사계획증의	명서 1 -	 					\vdash	
3. 사업계획실계도서(예정건축불등의 용도·규모를										
포함한다) 1부 없 음 📗										
4. 소유권·사용권등 당해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에										
		한 충명서	류 1 부						<u></u>	
2805 -	6B						19	0mm >	< 268	Smm

82. 1.27승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Z) 71 관 서울특별시 : 구청도시정비과지:도시과 구청건설과 군:건설과 车 섻 서 성 ↓ (면원실) 김 노·조 사 T(혜당과장) 곌 재 싕. 특별시: 구청장 작물시: 1 % % 직할사: 구청장 시 : 시 장 :군 수 군 잗 청가서 셍

(신문용지 54g/m²)

(주의)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계획법 제4조의 합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번경, 토석의 제취, 북목의 별재·재식등을 한 자에 대하여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급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니다. 다만 도시계획법 재4조제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행위는 허가없이 행할 수 있음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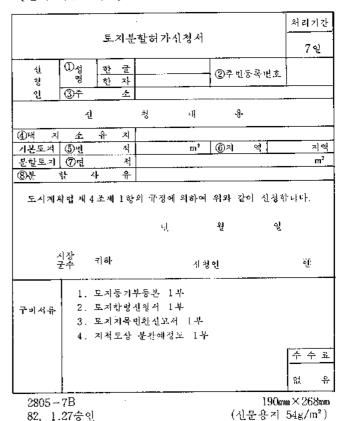
정한 범위안에서 세부시행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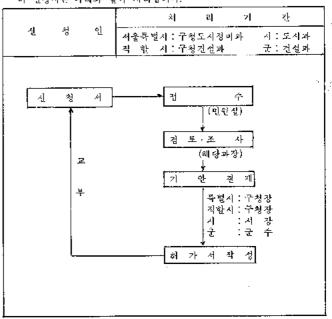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이미 발은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 4 조제 I 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은 이 규칙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등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본다.

11/2

[별지 제 2 호서식]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주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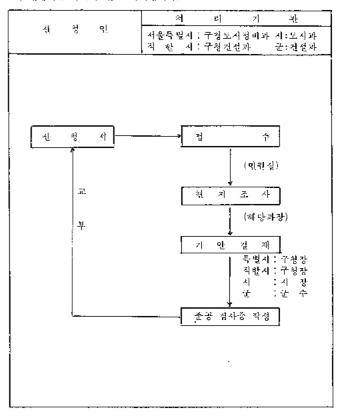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 니하고 일정면적 이하로의 토지의 분한을 한 자에 대하여는 6월이하의 정역 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정면 < 적 이상으로의 토지의 분할은 허가없이 행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 3 호서식]

82. 1.27승인

	□ 로지형질번경 □ 로 셔 계 위 □ 축 목 벌 제 □ 축 목 세 식							처	हो 7 7 %								
	신 청	①성 명	_	한글 한자							②f=	민등	루병	ों इं			
4	યો	37		<u>*</u>													
	히 신 가 청	<u> ઉ</u> ગ્		치 적							<u>િ</u> ષ્	월	일	19			
ı		(T)4	헙:		착	<u>\$</u>	19			<u></u> _	[준		공	19		,	
	<u>8</u>	- 공	땓	_ 신 적			청		내	m²	용 (<u>9</u> 준		و دو	.)			
	(1)).E	•	72	로						,,,,	(3)4	0.73	. 3				
	⊕	伞	시	설				•									
	(2)배	ŕ	시	설		•											
)	<u>(3</u>)7	E.J.	<u> 4</u>	선					· - , · · ,			_	5				
1			_		_				에괸	₹ <u></u> } 1	[칙제	7 🖈	의	제 2	장무요	≩ Ť	f정
	에 위 삼	하여 · 라		↑ 같ㅇ	신	청입	니다										
	Ŧ4	2 7	하						1	쉰	- 신청	શૄ શુ			늴	[4]	
	쿠비/	서류 :	앫	흠											<u>수</u> 없	수	
	280)5 – 8	зВ											90m			
	0.0	7 /	N 177 .	4 .1								a 1 10	•	_1	- 1	f	n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그러므로 우리들은 작인과 예술가 사이에 오만한 벽을 세우는 계급구분이 없이 작인의 새로운 조합을 만들자! 우리들은 다갈이 건축과 조각과, 회화 모두가 하나의 통일된 형태로 감싸여지는 미래의 새로운 건축을 원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만들어 내자! 그것은 새로운 신앙의 투명한 상징과 같이 몇 백만이나 되는직인의 손으로 언젠가는 하늘에로 높아져 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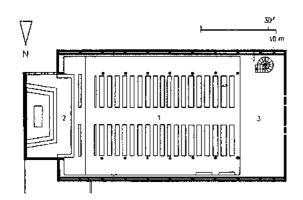
(신문용지 54g/m²)

〈발터・그로피우스〉

바이마르 國立 바우하우스의 綱領 19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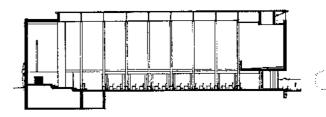
□ 海外作品/教會二選





- □ 코펜하겐 근교의 성(壁) Knud Lavards 교회, 1956~57. 이 교회는 학교 목사관등 Lyngby에 있는 로만·가톨릭 공회당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다.
 - 교회설계는 예배식의 필요에 의해 결정되었다.
 - 이 교회는 철근 콘크리트로 건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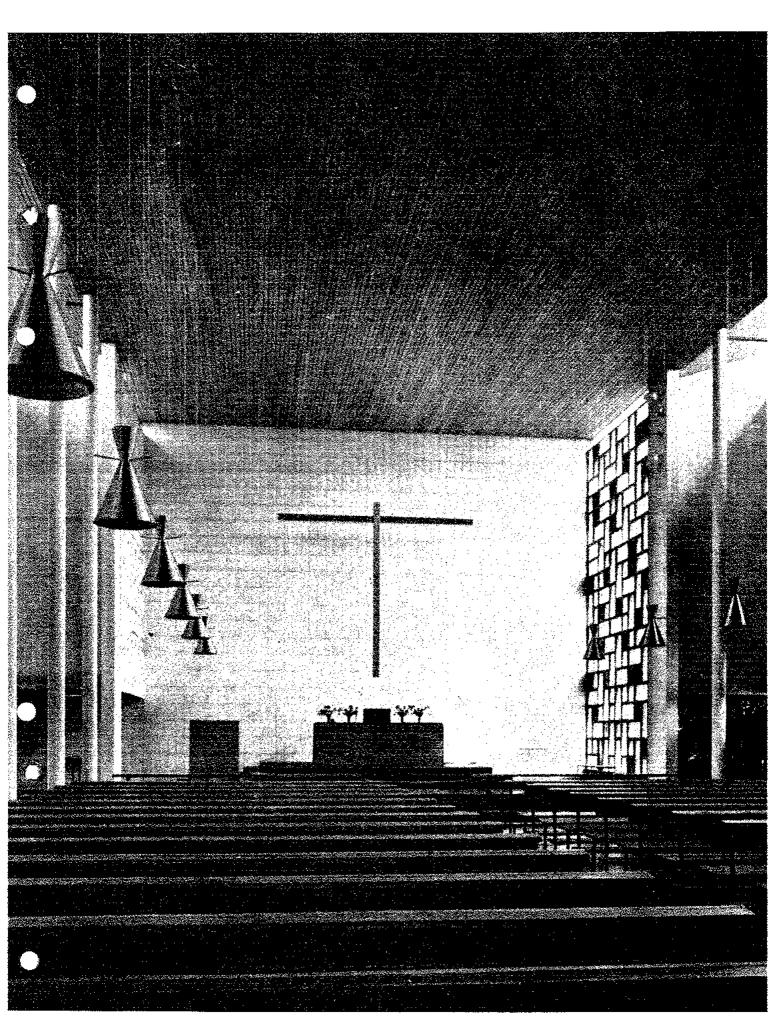
본당 회중석의 두줄로 늘어선 원주는 지붕의 역할을 하는 강철 격자(格子)를 버티고 외병의 기둥들은 흰 도료칠을 한 석회병돌로 된 꼭대기의 병을 버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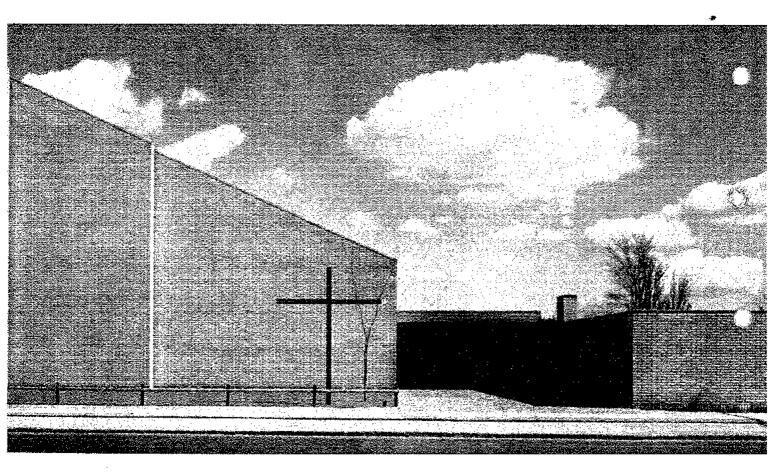


1. 테라스형 앞마당에서 본 중앙업구가 있는 교회의 ^(소) 서번,

The Christ-Monogram과 성(聖) Knud Lavards의 원형 돋울새김은 화가 Erik Olson에 의해 디자인되 었다.

- 2. 1층 설계도 경선(세로역) 단면도와
 - Key: 1. 본당회중석
 - 2. 제 단
 - 3 ; 회랑 (복도)
- 3. 제단을 향해서 바라본 본당 회중석, 천장, 문이 높이 달린 벽 판넽파 좌석은 다듬지 않은 제재목으로, 되어 있다. 전기시설물들은 구리로 되어 있다. 중앙, 제단 위의 십자가도 제재목이고 중앙 제단, 성모 마리아 제단은 원료그대로의 사멘트이다.





聖 리콜라이교회 / 1960 / 코펜하겐

□ 코펜하겐 근교 Hvidovre에 있는 성(聖) 니콜라이 교회 1960.

로만 가톨릭 교회는 코펜하겐 서편의 Hvidovrevej 근처의 거주지역에 자리잡고 있다.

독특한 사각형이 대각선으로 자리잡은 본당 회중석 지붕은 방의 한쪽 코너에 있는 제단위를 가장 중점을 두어 쌍곡선의 포물면 형태를 이룬 조가비모양의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있다. 병사이 두줄의 좁은 측면 창문들은 어둡고 외 떨어진 제단(상) 대(臺)에 微光을 던진다.

고고 좁은 현관은 거리와 본당 회중석 사이의 간격을 띄우 는 훌륭한 변화를 만들어 내고있다.

1층 양옆에 있는 두개의 목사관은 교회와 연결되어 있다. 내 외부 벽들은 거칠은 벽돌로 되어있다.

- 1. Hvidovrevej에서 본 교회
- 2. 남쪽입면도와 설계도

Key: 1. 引 子

2. 본당 최중석

3. 제 단

4. 사무실

5. 성물실(聖物室)

6. 에배당

7. 창 교

8. 난방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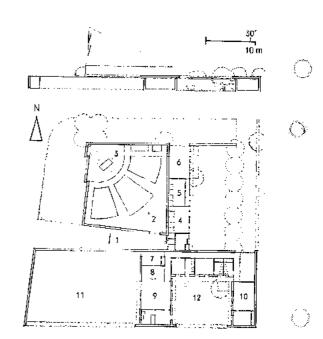
9. 목사관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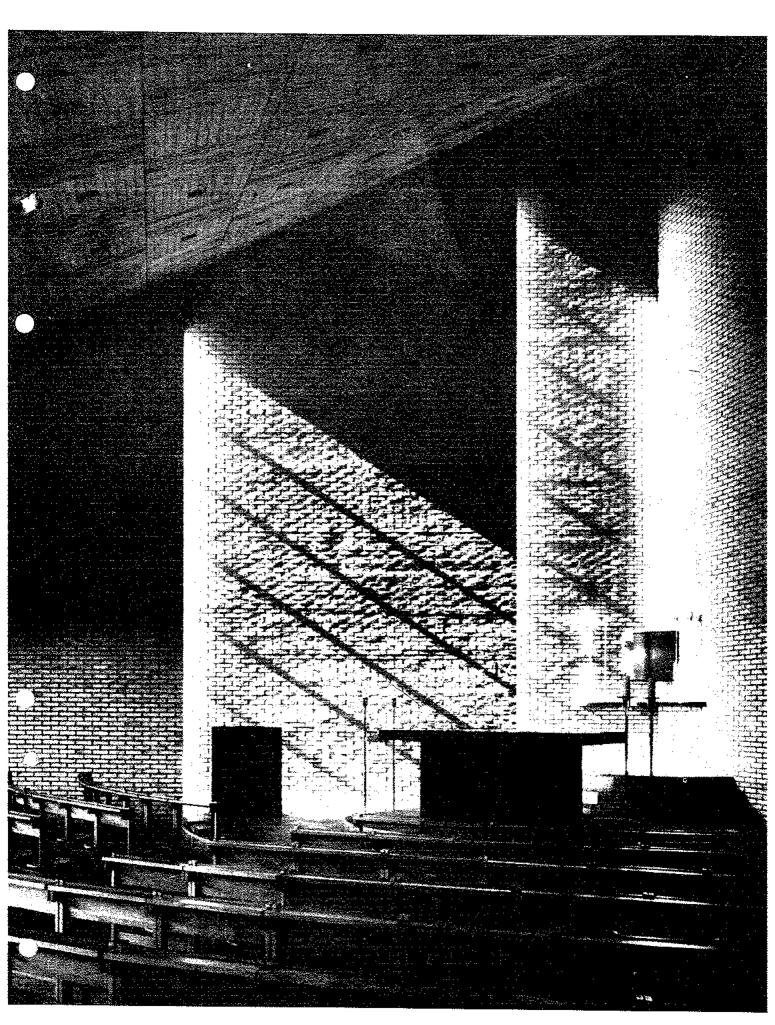
10. 목사관 🏻

11 정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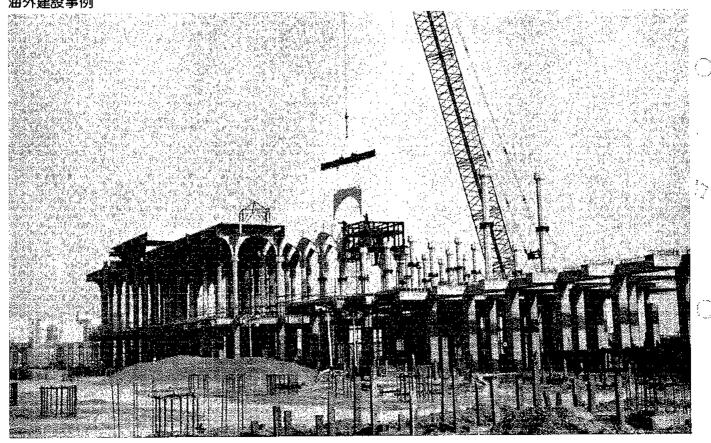
12, 안 뜰

3. 대각선으로 자리잡은 까만 대리석 제단대는 남쪽에 연한 병사이의 높은 틈새로부터 측광을 받는다. 천장은 거칠은 제재목으로 되어있다. 가구, 내부사설 들은 참나무, 세례반(觀)은 까만 대리석으로 되어있다.





海外建設事例



新築工事 UNIVERSITY SAUD KING

資料提供 ― 弓刃 開發株式會社 海外技術部

1981년 2월 15일.

發注處包 King Saud University奉 과 원청자인 Blount Inc / Blount Int'l Ltd와 Bouygues S,A前와의 University of King Saud a New Academic Area Project 수행에 대한 원 청계약 체결과 동시에, 그들은 물론 한국의 하청업체인 한양주택ㆍ삼약주 택. 그리고 우리 럭키개발(주)에서 는 3년여 이상의 노력과 이에 쏟 은 정열, 나아가서는 성실의 대가 에 대한 기쁨을 억누르며 이제 막이 오른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 하여 재작요·새다짐의시간을 가졌었다.

원청계약 총 17억여달러(한국업체 하청금액 약 6 억달러),

공사기간 40개월,

총투입 연인원 약600여만명으로 우 리나라 海外建設現場의 예에서 쉽게 찾아보기 힘든 이 대규모 프로젝트는, 우리의 해외건설 역사에 새로운 獐으 로서 기록해도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본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RIYADH.

그곳에서 서북방 60여km 지점을 향 해 神의 祝福에서 제외된 듯한 불모지 의 사박이 연출하는 누런 모레먼지속 의 고속도로를 40여분 달리다 보면,방 환한 대지와 무진장한 석유대장의 연 상만으로도 神은 결코 불공평하지만은 않구나 하는 묘한 감정과 더불어우리 의 동료들이 땀흘리며 우리의 기술과 숨결과 얼을 심고 있는 工事現場을 볼 수 있다.

N. T.P(Notice To Proceed:공사 착공통보) 후 벌써 1년

현재의 Site 는 어느 현장보다도 활 발하고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한 건설 역군들의 손길 아래에서 하나하 나 그 모습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여기에서는 우리 럭키개발(주) 에서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공 사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럭키개발(주)의 총 하청금액은 2 억 3 천만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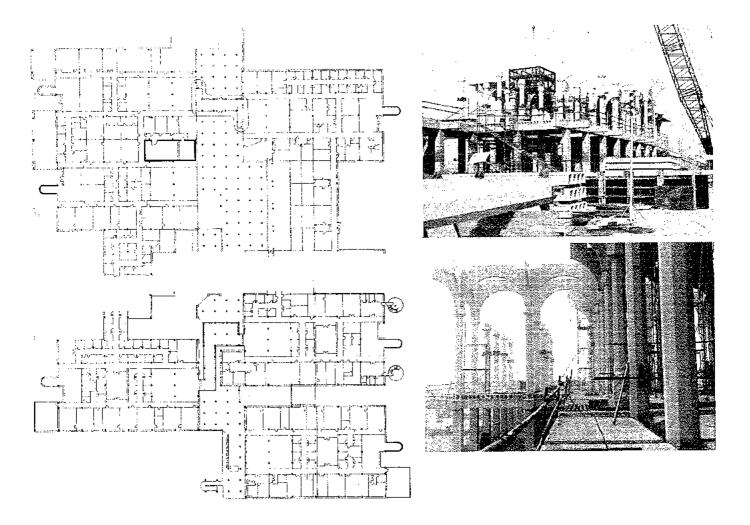
이 중에서 정우개발 · 신성(주)의 재 하천 부분을 제외하고 직영공사 부분

에 대한 금액은 총 1억3천만달러. 연투입 계획인원은 총 80여만명.

새롭게 발돋움하는 럭키개발(주)로 서는 미래를 향한 礎石으로서 이프로 젝트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14개월에서 34개월에 걸쳐 완공해야 하는 이 공사를 위해 미국의 컴퓨터 RD 1000(HP - 1000)을 구입했을 뿐만 아니라 공사의 컴퓨터化를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추었으며 81년 4월 현 장 도착 후, 1년 남짓한 현재까지 몹~ 파 정신이 혼연일체가 되어 工程 하 나하나를 실수없이 수행하고 있다.

특별히 이 공사에서의 難易度는 높 다고 볼 수 없지만, 각 건물의 구조 가 대부분(80% 이상) P·C로 되어 있기 때문에 P·C Erection을 위한 工程計劃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장비의 大型 化 역시 수반될 수 밖에 없다.

여기에서 럭키개발(주)가 수행하고 있는 工事内容에 대한 각 건물의 개 요 및 工事性格에 대해 살펴본다.



면저 럭키개발(주)가 完工해야 하 는 건물은

Agriculture (농학관)

Science (সংইন্)

Library (도서관)

Dining Hall (식당)

Spine (각동의 · 연결회랑)으로서 총 180,897m² (54,721邦)가 된다.

건물 各棟의 개요를 보면,

Agriculture — 垈地面程: 33,061m²

規 模:3 き

건물높이 : 19.15m

構 造:P.C造

25개월간에 질처 완공될 이 농학관은 기초부분을 제외하고는 타건물과 마찬가지로 P.C모 되어 있으며, 이 P.C Erection의 정확성은 Center Line에서의 허용오차 ± 2 mm 를 벗어 날 수 없다는 것만으로도 그 어려움을 실감할 수 있다. 따라서 고도의 기술을 가진 조립공에 의해 세워지지 않으

우리의 공정계획에 의해 아직은 꿀 착 단계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나 크레

면 안된다.

인의 효율적인 운용에 따라 공정의 집 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Science -- 垈地面積;56,530m²

規 模:3층

건물높이 : 19, 15m

構 造:P.C造

Library — 伦地面積:48,567m²

規 模: 7층

건물높이: 35.125m

構 造: R. C & P.

C, P.T

Dining Hall — 华地面積:6,960m²

規 模: 3층

건물높이: 14,35m

構 造:R.C &

P. C

Spine - 垈地面積:35,779㎡

規 模:2층

건물높이 : 10.88~14.48m

造:R.C & P.C

다음은 각 동의 공사도급 금액 및 공사기간에 대해 알아본다. (단위는 ÙS \$ 임)

Agriculture — 공사비: 27,740,000

공사기간:82년4월

~84년5월

Science — 공 사 비:35,850,000

공사기간 : 81년10월 ~84

년 I 월

Library - 공 사 비: 32,500,000

공사기간 : 81년 8월 ~ 84

년 6 월

Dining Hall — 공 사 비:4,680,000

공사기간:83년1월~

84년3월

Spine — 공 사 비: 27, 160,000

공사기간 : 81년8월~ 8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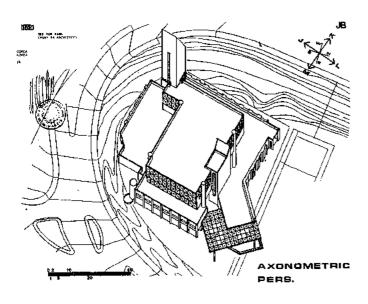
12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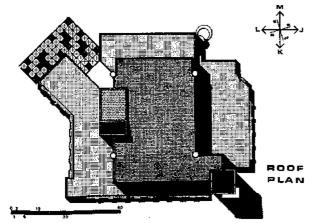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제모습을 모두 갖춰 완공되는 84년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누턴먼지 사박 속에서 韓國 人과 그리고 럭키人의 궁지는 생생하게 살아 언제까지나 사우디아라비아 人들을 감동시킬 것이 분명하다. 그리하여 럭키人들은 오늘도 그날의 영광을 위해 구리빛 활을 들어 해며를 내리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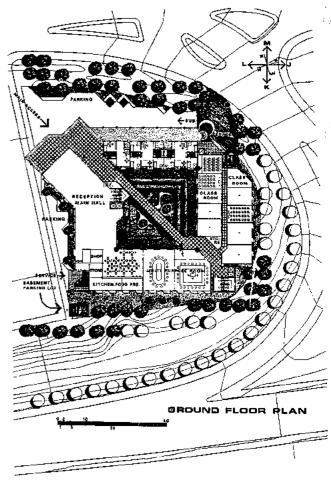
다음에 소개하는 프로젝트는 지난 80년 1월30일,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UIA회교문화센터 현상공모에 응모한 본회 회원인 강 석원(구룹가건축도시연구소)씨와 국제종합건설 정 진수부사장의 작품이다. 표현 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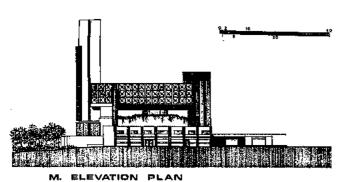
回教文化센터 -A: 강석원/B: 정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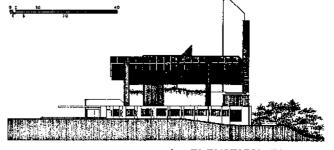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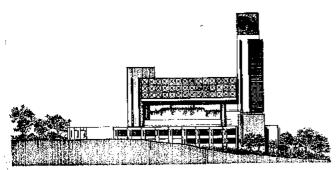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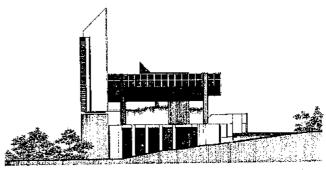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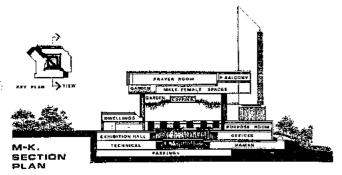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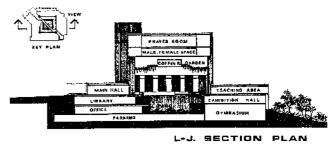
L. ELEVATION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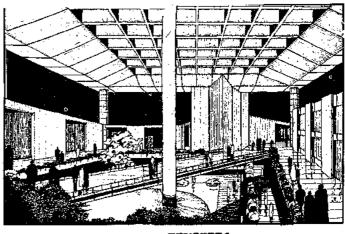


ELEVATION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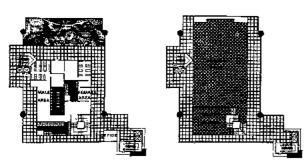




1º BASEMENT FLOOR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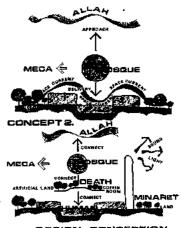


CONCEPT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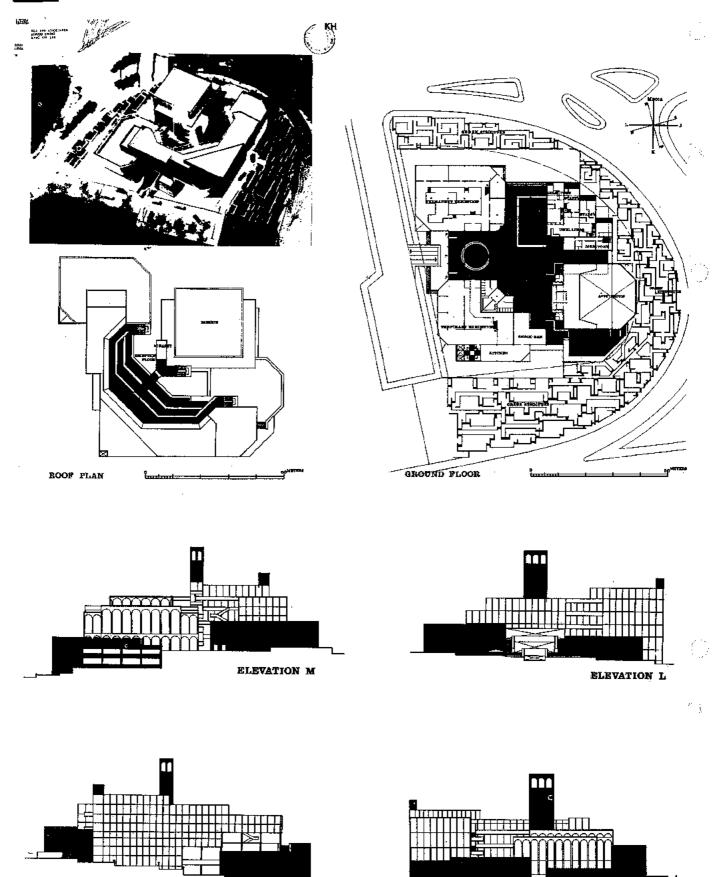
MOSGUE FLOOR PLAN

AREA	Mª
RECEPTION	1,074
AUDITORIUM	800
HAMAM	675
TEACHING AREA	735.5
LIBRARY	706.5
EXH(BITIONS	1,490
MOSQUE	1,590
OFFICE8	4375
OWELLINGS	650
TECHNICAL PREMISES	600
PARKING LOT	2100
CORRIDORS	890
TOTAL AREA BUILT UP	3360 "
TOTAL VOLUME BUILT UP	4805225 ^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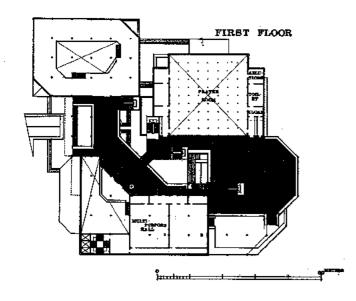
DESIGN CONCEP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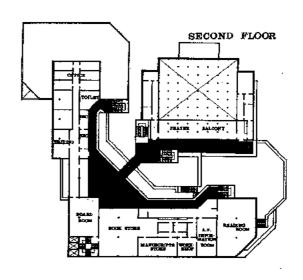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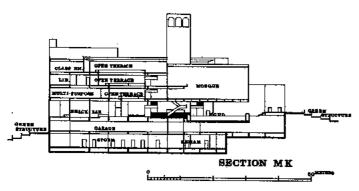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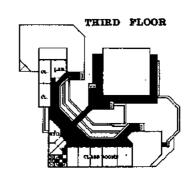
ELEVATION 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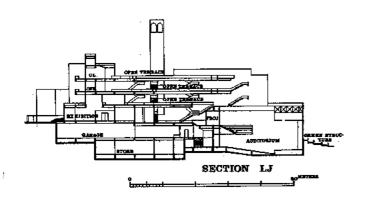
ELEVATION 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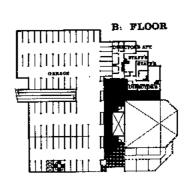












AREA	M ²
RECEPTION	848
AUDITORIUM	1,386.5
HAMAM	870
TEACHING AREA	900
LIBRARY	751.5
EXHIBITIONS	1,813
MOSQUE	1.185
DFFICES	444
DWELL!NGS	854.5
TECHNICAL PREMISES	846.5
PARKING LOT	2,856
CORRIDORS	567
TOTAL AREA	13,102.5 M²
BUILT UP	
TOTAL VOLUME	48,350 M²
BUILT UP	





건축계 뉴스 / 정보

建築學會 정기총회 任員改善・學術발표회도

대한 건축학회는 지난 4월24일 임 시총회를 열고 급년도 사업계획 및 예 산안 등을 심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새 회장단선 임과 임원개선 등이 있었으며 회장에 는 金根德(연세대)교수가 되선되었으 며 부회장에는 李光魯(서울대)교수, 金眞一(한양대) 교수, 朴胤成(고려대) 교수 등이 선임된데 이어 총무이사에 는 金德在(중앙대)교수, 연구이사에는 李環會(연세대)교수, 사업이 사에는 尹道根(홍익대)교수 등이 각각 선임 되었다.

한편 정기총회에 앞서 특별강연회 와 학술발표회도 아울러 병행했는데 특별강연회는 각 분파별로 실시 제1 분파(설계 및 교육분야)에는 "영국의 설계교육"에 대해 林忠伸(울산공대) 교수의 주제발표와생태설계론과 이의 설계교육 및 실무의 의의" 高州錫(美 조지아주립대)교수, "미국대학에 있 어서의 건축설계 교육" Alexander Erdely(美오크라호대)주제 발표가 있 었다.

제·2 분과 (환경 및 공학분야)는 "에 너지껄약을 위한 건축디자인 방법론" 李璟會(연세대)교수와 "에너지절약에 관하여"石橋英一(日本大分大学)교수 "건설공학에 대하여" 山崎均 (日本大 分大学)교수 등이 주제 발표를 했다.

한편 학술발표회의 주제 및 발표자 는 모두 17명으로 역시 각 분야별로 나누어 진행했다.

建築大展 공모요령 發表

大韓民國 建築大展이 처음으로 오는 10월15일부터 26일까지 열린다.

건축가 협회와 건축대전운영위원회 가 주최하는 建築大展은 지금까지 해 마다 정부가 주관하던 國展에서 분리, 올해부터는 독자적으로 개최되게 됨 에 따라 첫번째로 열리게 된것이다.

이에따라 주최촉은 초대전과 일반 공모전으로 나눠 초대전 작품은 10월11 일부터 13일까지, 일반작품은 10월 4 임부터 7일까지 출품토록 했다.

출품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 나 공모에 응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발표는 10월14일로 예정하고 있다.

한편 일반공모전에 관한 시상 내용 은 大賞 1 点과 優秀賞 3 点, 그리고 入 選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밖에 建 築大展에 따른 문의는 建築家協會 사 무국 (722-4613)으로 하면 된다.

土木學會 정기총회

大韓土木學會는 지난달 24일 제30 회 정기총회를 열고 지명위원회에서 선출한 포항제철 부사장 丁明植씨와 해운항만청 차장 鄭然世씨를 각각 부 회장으로 인준했다.

또 총 1억 5천 7백만원의 금년도 예 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킨데 이어 대 의원수를 종래의 70명 이내에서 1백 명 이내로 개정한 정관개정안도 마장 일치로 가격했다.

建設협회 임시총회

대한건설험회 (회장 李載濟)는 지난 말 21일세 3 차 이사회를 열고 82 년도 제 1 회 임시종회를 4월30일 오전 11 시 건설회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는 임시총회개최일시및 議事日程을 확정하고 81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심의 의결하는 한편 82년도 일반회계 및新 건설회관건립기금조성특별회계, 제1 회 세입세출추가갱정예산을 원안대로 결의했다.

이어 대의원선출규정을 일부 개정, 서울지부대의원의 선출은 一般工事業 免許와 투수공사업면허의 수를 건설 공사 도급한도액 上位 순위로부터 상 ・ 중・하로 3 등분하여 각각 代議員 定数의 등씩 선출케 했는데 종전에는 면허수를 합해 100人마다 10人의 비 율로 선출토록 했었다.

□ 宣炳澤교수 정년퇴임

한양공대 건축과 宣炳澤교수가 지 난 4월 17일 정년 퇴임했다.

동교에서 10여년 이상 재직해온 宣 교수의 정년 퇴임식은 동료교수를 비 롯한 동문,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참 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2시에 거행되 었다.

實교수는 日本早稻田大에서 건축공 학을 전공하고 후진양성에 심혈을 쏟 아 우리나라 건축공학계에 많은 공석 을 쌓았다.

한편 본회 具晩會회장은 이날 식전 에서 宣교수의 學德을 기리는 송직사 롤했다.

□ 李明浩교수 中央大工科大學長에 □ 朴胤成교수 高大工科大學長에

本會 평찬위원기도 한 李明浩교 수가 지난 3월2일 中央大學校 工科 大學長에 취임했다.

□ 李柱璜교수 本會來訪

李柱璜교수는 지난달 27일 본회 具 吮會회장을 예방하고 환답을 나눴다.

현재 경상대 이공대 건축공학과 교수 로 재직 중인 李교수는 한양대 산업대 학원 출신으로 이날 못회장과건축제, 학 계등 공동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나눴 다.

□ 潘好鎔교수 本會訪問

정주대학교 공대 학장에 취임한 潘 好鎔교수가 지난 27일 본회를 방문하 고 吳地會회장과 환담을 나눴다.

지난 3월 동교 공대학장에 취임한 潘교수는 한양대 대학원 출신으로 이 날 취임인사를 겸해 본회를 방문했다.

고려대학교 공파대학 朴胤成교수는 지난 3월1일 동교 工科大學長에 취 임했다.

建築界뉴스

建設기술제도 補完검토

정부는 건설기술의 국내 수준향상과 국 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행 건설업체 평가제도의 개선 등 다각적인 건설기 술 관련제도의 보완·정비작업을 추진 하기로 했다.

전설부가 마련한 建設技術開發計劃 에 의하면 工事品質향상과 원가절간으로 정부예산을 절약하며 나아가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전설기술의 혁 산을 통해 국민경제기여도를 더욱 높 이도록 한다는 방침아래 정부차원에 서 建設技術研究発展과 기술훈련 및 보급에 역점을 두고 민간전설업체들 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기술축적에 힘 쓰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것이다.

전설부는 현재의 전설기술수준이설 계능력면에서 국내의 단순工事는 가능하나 特殊技術集約的인 국내공사나 해외공사의 설계가 未洽하여 施工能力은 국내·해외 모두 가능하나 일부록수공사에서 외국의 監理를 필요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건설기술의 혁신을 위해 가칭 건설기술관리법을 제정하고 건설 기술 연구체제의 개편 및 우수기술직 공무원의 확보와 건설공무원의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대학교육과정의 「컬리 큐럼」을 개편, 보완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건설업채의 참여를 유도하 기 위해 건설용역제도와 대형공사계약 제도, 건설업체평가세도를 개선하고 工事監理制度의 단계적 실시를 시도하 기로 했다.

한편 80년발 현재 설계·시공·행정 ·교육 등 건설기술인력은 총 6 만 3 천 300 명으로 대학과정(전문대 포함) 올해 연간약1 만 2 천400명이 양성돼 연 간 약 3 천500명이 건설기술교육원등 에서 補修教育을 받고 있다.

전설부가 建設技術革新을 위해 추진 하는 제도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建設技術管理法(가칭) 制定 — 建設) 技術開発을 종합 관장하는 법률을 제 정, 개발 계획의 수립 및 기술의 연구 보급, 開発 조성 및 기술인력 관리에 적정화를 도모.

設計用役制度의 改藝— 설계용역 계약은 入札者에 대해 미리 그 설계용역의 執行計劃書를 제출케 하여 사전에 조사함으로써 신기술 및 우수인력을 보유한 업체에 受注의 우선권을 부여토록 하다.

工事監理制度의 段階的実施— 官主 導의 공사감리제도를 점차 용역감리체 제로 바꿔 民間監理能力의 향상과 업 체의 자율적 우수시공을 유도함으로 써 공사의 질적향상을 期함.

大學教育制度의 改編—建設技術 教育에 대한 기초분야의 충실화와 전문 분야의 세분화로 건설기술의 고급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추진.

建設公務員 教育強化 — 국립건설 연구소 훈련부를 개편하여 건설공무원 교육원을 신설, 건설기술공무원과 국 영기업체기술자에 대한 보수교육강화.

大型工事 契約制度의 改善—설계의 질이 일정수준 이상에 대해서는 최저 입찰자가 낙찰자가 되는 현재의 대형 공사계약제도를 발전시켜 입찰금액이 외에 설계의 優秀度를 감안하여 낙찰 자를 결정함으로써 優秀設計誘導론 통해 기술향상을 도모.

建設業体評価制度改善 -工事受注 都給限度額決定에 수주실적 및 기술축 적도와 기술집약형 공사실적을 감안하 여 企業体質의 개선을 유도.

都心에 新築빌딩 러시

한동안 부진했던 도심재개발사업이 올해들어 크게 활기를 띄고 있다.

4 대문 안의 도심미관을 해치던 불 량건물들이 철거되고 그 자리에 산뜻 한 고충빌딩들이 세워지고 있다.

현재 4대문 안에 건물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두산빌딩 신축부 지인 중구 을지로 1가 6 등 14개소 또 9개소의 再開發事業計劃이 확장돼 불 량지구 23개소가 말끔히 정비된다.

현재 신축 중이거나 계획된 건물들은 최하 10층에서 24층까지로 연건명도 2천여평에서 3만2천여평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 도심재개발사업은 86년 아시안 게임이전에 완료될 것으로

보여져 늦어도 오는 85년 말에는 도 심환경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안다.

이처럼 都心再開發事業이 활발해진 것은 자난 연초에 도심고충별당 신축 규제조치가 완화되고 각 기업체나 은 행들이 도심복판에 자체사육을 건립, 社勢의 위용을 파기하려는 외욕때문 이다.

이같은 경우로 대형빌딩을 신축 중 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은 두산빌딩· 힐튼호텔·제일은행·상업은행 등 모 두 15개소에 달하고 있다.

반면 도심에 부지를 확보치 못한 건설업체가 地主들과 공동개발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독염12 블럭(공영토건), 도염22블럭(정우개발) 등 3개소이며 지주들이 조합을 구성, 업무용빌딩을 신축하는 곳은 무교지구 8 블럭, 공명 3·5·6 지구,회현5 지구 등 5개소에 이르고 있다.

한편 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앞두고 도시미판조성과 도시개발사업으로 신축 중이거나 계획을 확정한 사업지구의 빌딩신축규모는 다음과 같다.

			(10.1	1 + 67
建 物 名	垈地面積	建築面積	延面積	層数
武橋8地區	305	159	2, 250	12
서울新聞	2, 035	660	16, 482	18
内外與業	1, 209	482	10, 144	15
4山企業	1,073	376	9, 352	17
힘튼호텔	5, 676	2,798	23, 790	21
大農盟号	835	374	6,060	10
都染12地區	1,104	484	7, 562	10
公平3地區	1, 273	434	8, 412	12
公平5地區	1, 083	435	7, 363	12
公平6地區	879	333. 8	6, 189	12
東邦生命	2, 679	810	26, 540	17
롯데建設	877	339	7, 392	15
第一銀行	2, 869	1, 054	21,770	18
中央日報社	4,906	1, 960	32, 870	18
韓一합성	851	340	8, 170	. 15
유 니 온	833	335	8, 071	15
有元建設	653	249. 1	6, 233	17
大旺興産	1,638	570	10, 954	17
大字福祉	932	370.6	8, 203	18
都染22地區	971	401	7, 383	15
三益住宅	302	135	2, 781	15
會賢 5 地區	1, 212	434	11,000	17
商業銀行	2, 645	970	24, 380	24

賃貸주택건설로景気유도

金坡成부총리는 정부는 앞으로 서 민용임대주택건설 및 정부부문의 投融 資事業 확대를 중심으로 침제된 국내 경기를 부양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金부총리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마련한 업계와의간 담회에 참석,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 표인 물가안정을 위해 통화공급을 늘 리기는 어려우나 부진한 賃貸住宅建 設을 촉진하고 정부부문의 投融資事 業을 늘려 경기진작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金부총리는 또 경기부양을 뒷받침 하고 투자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전반적인 稅制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 다고 말했다.

쇼부총리는 금융유통구조상의 취약 점때문에 돈을 풀어도 골고루 택이 돌아가고 있지 않으므로 앞으로의 자

금방출은 중소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용해나가는 한 편 총통화목표를 유지해 나가는 범위 내에서 시기적으로 통화공급을 탄력 적으로 운용해 나가야겠다고 말했다.

1 次전형 合格者 발표 111명 합격 23일 2차 전형

82년도 전축사자져시험 1차 전형 합격자는 모두 1백11명인 것으로 발 표되었다.

지난 3월21일 실시되었던 동 전형에는 모두 1천2백56명의 수험생이 응시해서 1차시험 과목인 건축구조, 시공, 법규동 3개필기시험을 치뤘다.

한편 마지막 관문인 2차 시험 일정 은 오는 5월23일에 실시되는데 건축 계획은 오전 9시30분, 건축설계는 오 후12시50분에 홍익대에서 각각 실시 되다.

시험범위는 건축계획의 경우 단지계 획, 계획원론 및 각론, 설비, 건축사 등이며 건축설제는 리조트 호텔에서 실기를 실시 한다. 2차 합격자 발표 는 오는 7월말경에 할 예정이다.

3년마다 地價조정

전설부는 이미 고시된 基準地價을 3년마다 재조정하여 새로 고시할 방 첨이다.

건설부에 의하면 기준지가를 고시한지 3년이 지나면 경제적, 사회적 여건변동으로 実際地價와 차이가 생겨 보상가격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조정해나간 계획이 라는 것이다.

이에따라 지난 78년 이전에 기준지 가가 고시된 25개 지역 3 천326 km² 중 우선 올해 여수 및 광양·낙동강하류, 군산, 창원, 온산, 구미, 회덕, 아산 만,북평 경주 등 10개 지역 2 천400 km²에 대해 基準地價를 고시하기로 했 다.

전설부는 나머지 15개 지역 825km² 외 기준지가는 명년 재고시할 예정이다

金敬煥교수출판기념회

본회 추대회원인 金敏煥교수 (이화여자대학교)가 지은 〈梨花의 뒤안길에서〉의 출판기념회가 5월7일 오후 6시부터 하이야트호텔 볼륨에서 열렸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30여년 몸담고 있으면서 이화 내의 대부분의 건물(대 강당·기숙사·이학관·도서관·새집 등)을 설계·건설. 감리까지 한 金敏煥 교수의 출판기념회에는 건축계 인사 와 이화재단의 교수진들이 참석하였 으며, 본회에서도 與炊會회장을 비롯 하여 이사진들이 참석하여 뜻깊은 시 간을 함께 했다.

《梨花의 뒤안길에서》는 1981년도까지의 이화학당 산하 주요건물의 여러가지 자료를 한테 묶은 것으로서 사진·도면과 함께 건축과정에서 저자가 겪고 느낀 이야기들로 엮셨다.

住宅자금需要저조

 수택자금용자대상을 확대하고 戸當용

 자한도액을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경기의 침체로 수택자금수요가 작년 수준보다 떨어지고 있다.

주택은행에 의하면 올 I·4분기중 플러나간 주택자급은 총 473억9천700만 원으로 I·4분기 대출계획액 853억 원의 55%에불과하고 연간목표 4천 430억원의 10.7%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個人賦金加入者들이 대부분 -용자받고 있는 형편으로 사원용 주택 ` 건설용자와 분양건설자금, 분양구입자 금들은 거의 없다시피한 실정이다.

건설업자들의 運転資金貸出도 지난해 同期에는 32억 4 천만원에 달했으나올 1·4 분기에는 4억6 천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에너지절약 심포지움 한국 · 덴마크 공동주최

한국-덴마아크 에너지節約 및 地 域暖房 심포지움이 지난 11일 서울하 얏트호텔에서 개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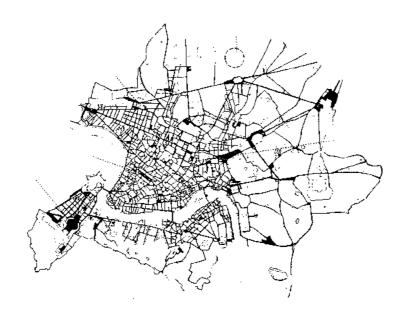
에너지 관리공단과 덴마크지역난방 위원회가 공동주최한 이날 심포지움 에는 동자부 李宣基장관과 덴마아크 에너지성 폴 니엘손장관이 참석,인사 말을 했다.

이날 심포지용의 제목은 "한국의에 너지 사정과 熱併合 發電에 의한 지 역난방"으로 金容德(에너지 관리공단) 씨가 주제 발표를 했다.

주요내용은 그동안 4차에 전친 경제개발로 에너지 수요가 크게 증가했으며, 국가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전제하고 대도시 아파트 단지에서 중앙집중식 열공급이 실시되고 있으나 그 효율이 낮으므로 열병함 발전방식에 의한 지역난방을 연구 검토한바, 경제성, 효율이 양호한 것으로나타났다는 것이다. 이에 상세한 조사사업과 제도적 장치마련을 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그밖에 연사로는 덴마아크의 레나트 라손, H·C모덴스, 모언스라슨, 알란 데스트룹 G·S핀로씨등이 주제 발표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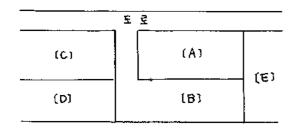
건축행정 / 질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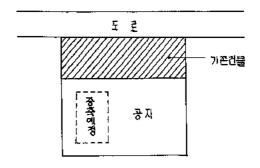
문 건축법 시행령 제 140조의 2(도로 모퉁이의 건축선) 의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법 시행 이전의 종전 규정에 의한 폭이 8m미만으로 교차되는 2개의 도로중 1개의 도로가 동시행령 제 138조 규정에 적합한 폭 3m의 막다른 도로인 경우 현행법 규정상 이를 (3m도로) 직법한 도로로 보며 사람이 보행할 수 있고 차량 통행이 가능 또는 불가능(계단등 시설이 있는)하더라도 무방하므로 이경우 [8m도로와 3m도로가 교차될 경우] 동 시행령 제 140조의 2 규정에 의한 건축선 지정은 불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귀견여하?

답 폭 8 m인 도로와 폭 3 m인 막다른 도로가 교차하는 귀절의상 도로의 교차 부분은 건축법 시행령 제 140조의 2 규정에 의거 건축선을 정하고 가자전제를 하여야 할 교차도로의 기준폭에 미달되므로 동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 합니다.

문 그림의 지저도와 같은 대지(B)에 전축하고자 할 경우 지적도상의 1m 목으로서는 도로의 폭이 부족하며 동대 지는 1차분한을 한 대지이나 다시 폭 3m 도로로 분할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대지 [A]에 전축할 때 건축선만 후퇴하여 소요폭을 확보 하여도 되는지의 여부?



답 권 전의상의 대지[B]는 도로에서 2m 이상 접하지아 니하였으므로 건축법 제27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할 수 없는 대지이며 등 대지로 통하는 통로가 대지의 일부라면 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11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대지안의 통로인바 (A) 대지에 건축할 때 동통로의 중심선에서 통로 소요폭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거리를 후퇴할 의무가 없는 것이며(B) 대지 소유자가 적법한소요폭의 통로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건설부)문 제 2종 미관지구내의 건축물로서 그림과 같은 여견의 경우 미관심의를 거쳐 준공한 건물에 증축고자 할 때 미관심의를 거쳐야 하는가의 여부와 주거지역 건페율에 의한 건축면적의 증축가능여부?



■ 귀 질의와 같은 경우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내지가 구역·지역 또는 지구의 내외에 결칠때의 조치)의 법 취지로 보아 전 대지에 대하여 미관지구내의 건축제한(건축법 시행령 제145조)을 받아야 하는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미관지구 건축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문 건축물을 감정함에 있어 건축사법상 건축사로서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대한 건축사 협회 정회원에 한하여 건축물 구조 및 기타 감정업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한국 건축가 협회에서도 등 감정업무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답 건축물의 감정업무는 건축사법 제19조(업무내용) 제 2 항 제 1 호 및 같은법 제23조(등록)에 의거 건설부장판의 면허를 받은 건축사로서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자에 한하여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에 판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인바. 대한 전축사 협회 정회원이 아닌 한국건축가 협회 회원은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아 업무를 행할 수 없읍니다.

문 건축법 시행규칙 제10조(토지의 굴착 부분에 대한 정리) 제1항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구조안전의 점검(구조계산등) 선계에 의해 응벽축조허가를 받아 시공한 철근 콘크리트 응벽으로 조성된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위 규정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귀견여하?

답 건축법 시행규칙 제10조 제 1 항 제 4 호의 규정은 석축으로 된 옹벽의 연단으로 부터 건축물의 외벽면까지의 거리에 대한 규정이며 귀 질외와 같이 구조계산에 의하여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한 경우는 동규칙 제10조 제 1 항 제 4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합니다. (건설부)

思 개발제한 구역내에서 해당관청으로 부터 수출공장 및 토지형질변경 중인을 득하여 현재 중인면적의 약60%정도 건축을 하여 사용중 중인면적 법위 내에서 공장 부족건물로서 종업원 복지회관 또는 종업원용 종교 건축물을 건축코자 하는바 이는 공업지역 내에서 단독으로 진축하는 것이 아닌 공장 부족건물로서 위 용도의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귀견여하?

[1]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적법하게 증축승인을 받은 공장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 내에서는 공장과 공장에 부족되는 필요불가피한 창고 보석당 등의 중업원 복지시설의 건축은 가능한 것입니다. (건설부) 문 기존 건축물(여판 및 대충목욕탕 용 5층건물)에 굴뚝(지상 16~17m정도)을 건물 벽채에 붙여 신설코자 함에 있어서 공작물로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와 건축법 시행령 제 175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높이 6 m를 넘는 굴뚝이라면 건축물 옥상에서 6 m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지상에서 6 m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굴뚝설치 방향이 정당향일때 건축법 시행령 제 167조 제 2 항의 규정을 적용하는지의 여부?

답 높이 6 m를 넘는 굴뚝을 설치할때는 건축법 제49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며 높이산정은 지면에서부터의 높이로 하여야 하고 이경우 굴뚝에 대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읍니다.

(思) 건축법 시행형 제 135조의 규정에 의하면 연면적 100m²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전화국선이 인입되도록 배관, 배선 및 단자함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그 기준은 체신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동일대지내에 관리실이 별동으로 있고 용도상 전화가설을 필요로 하지

않는 100m² 이상의 창고 등을 별동으로 건축하는 경우의 전화국선의 인입 배관 및 단자함의 설치여부?

답 본 전축물과 별동으로 건축되고 전화가설을 필요로 하지 않는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창고등에 관하는 여는 전화국선의 인입 및 배관시설의 설치는 그 필요가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건물에 전화가 입철약 또는 전화기설치 장소 변경 청구가 있을 때에는이에 응할 수 없는 〈전신전화규정 제224조 및 제225조〉 것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채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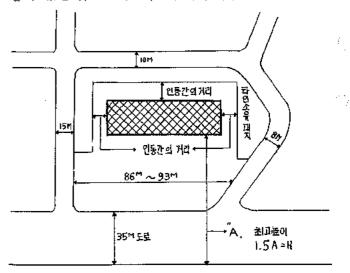
문 도시계획 구역내의 농지전용에 관한 질의로서 농지일 : 경우라도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역내에 있는 농지는 도시계획으로 허용하는 용도로 전용할 수 있는 것으로 사 로되는바이의 여부?

註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대상지는 동법 제 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 제 2조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구역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견과 같이 도시계획법 제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의 실시구역은 그 복적용도에 전용할 수 있습니다.

圕 공유지분 등기된 대지일 경우라도 기히 공유지분 소유 자간에 경계가 확정되어 지적협회에서 가 분할되고 아울 러 인근 공유지분 소유권자의 위치 확인 동의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이 의 여부?

官 공유지분 대지상에 있어서의 진축허가는 관련토지 공유자 전원의 통의가 있고 토지의 상황을 보아 지분에 상당하는 대지의 범위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경우에 한하여 이를 행할 수 있을 것임 (건설부) 문 건축법 제41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

문 건축법 제41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하여 아래 배치도의 경우와 같이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진면도로폭에 의한 높이 제한은 남축폭원 35M도로의 높이 제한만이 적용되고 기타 양측면(동서면)과 후면(북면)은 인동간의 거리에 의한 높이 제한을 적용건축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의 여부?



 間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161조 제 1항의 규 경에 의거 남쪽도로 이외에도 양측면 후면 도로에 의한 높이 제한을 받아야 한 것임
 (건설부)

건축자재해설

電氣 本本 자재의 종류와 시공법

□ 電気資材

(1) 単相捲 鉄心型 変压器

標準示方

(水) 容量(KVA): 5, 7, 10, 15, 20, 30, 50, 75, 100

(내) 一定규정전압(V): 6300/3150

智 **矩** (V):6,900, 6,600, 6,000, 5,700, 3,450, 3,300, 3,000, 2,850

3,450, 3,500, 5,000, 2

(대) 二次 定格 전압(V): 210/105, 460/230

(리) 주파수 (H₂) : 60

(中) 極性:減極性

(2) 一端 接地 変压器

標準示方

(注) 容量(KVA): 5、7、5、10、15、20、30、50、75、100

(H) 一次 定格電压 V

① 12,600V (22,900 V-Y)

昭電压(V): 13,800, 13,200, 12,000, 11,400

② 6,300 V (11,400 V-Y)

財電压(V):6,900、6,600、6,000、5,700

(中) 二次定格電压(V): 210/105, 460/230

(라) 주파수(H₂) ; 60

(中) 極性:減極性

; (3) 特高压 柱上 変压器

標準示方

(水) 容量(KVA): 10, 20, 30, 50, 75

(中) 一次 定格電圧(V):21,500 V

電電压(V): 24,000, 22,800, 21,500,20,300, 19,000

(F) 二次 定格電压(V):210/105

(B) 周波數(H2):60

(四) 極性:減極性

, (4) 直流OI- < 熔接機

標準示方

(外) 容量(A):100,150,200,300,400,500,600

(4) 電压(V): A, C 200, 220, 380, 440 등

(F) 相数(ø):三相

(라) 주파수(H₂):50, 60

(叫) 絶縁階級: 日種

(5) 高压 進相 컨덴서

[장 점]

(개) 電特性, 耐電圧특성이 우수한 플라스틱 필름과 우수한 컨텐서용 絶縁紙를 사용하였음.

(나) 小型, 경량입.

(CI) 우수한 플라스틱 필름을 병용하여 손실이 타제품 에 비해 적다.

(라) 절연 신뢰도가 높음,

예 温度上昇이 낮음.

[규격 및 性能]

(개) 설치장소:屋内外 兼用

(나) 주위 온도: -20~+40℃

(대) 최고사용전압: 定格電压의 115% 이내

최대사용전류:고주파를 포함할 경우 135%의 過 電流까지 허용.

용량 허용차 : 定格値에 대하여 -- 5~+10%

손 실: 10~30 KVA 0.3% 이하.

- 온도상승 : 25 deg 이하.

(6) 低压進相 컨덴서

単器전면서 1 습로는 부족한 大容量 부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으로 屋内・屋外용으로 구분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표준으로 放電장치, 直列 Reactor 를 조합하여 No Fuse Breaker를 取付하므로 電源만 접촉하면가능.

[규격 및 性能]

(개) 설치장소:屋内

(나) 주위온도: -20~+40℃ (24시간, 平均 35℃ 이하)

(대) 성 농

최대허용 과전압:定格電压의 11%

" 과전류:

" 130%

최대허용 용량(VA) : 定格용량(VA)의 D5% 용량 허용차: 定格値에 대하여 - 5~+10%

(7) 高周波 誘導爐用 컨덴서

高周波 誘導爐의 加熱効率을 향상시키고 爐의 力率을 개선시켜 電源의 合理化를 꾀한 製品으로 損失 絶縁耐力이 우수한 폴리 프로필렌 필름과 良質의 컨텐서紙를 유전체로 併用하고 특별 정제된 鑛物油를 含浸시킨 제품이다.

[규격 및 성능]

(개) 설치 장소 : 옥내

(내) 주위온도: -10~+40℃

(대) 성 능

최고사용전압: 定格電压의 110% 이하

허용過負荷: 定格 容量의 121%

용량허용차 : ±10% 이내

절연저항:端子一括 케이스間 1000M 이상.

(8) 소켓巨類

CA 1061 키소켓(6 A300 V), CA 1017 키레스 소켓(6 A 300 V), CA 1010 보턴소켓(코오드용), CA 1020 보턴소켓(파이프용)(3 A 300 V), CA 1102 라디오 키소켓(6 A 150 V), CA 1207분기소켓(1 등 2차) 6 A 150 V, 램프용리셉터쿨(수지)

(9) 콘센트類

CB 2104콘센트(원형), CB 2123콘센트(원형접지), CB 2132콘센트 - 字접지, 콘센트(자형), 콘센트 2, 3 극, 콘센트 자형 2 구, 3 구, T형, 콘센트 매입 - 字접지, 접지 2 구 콘센트 4 극.

(10) 퓰러그類

굦임플러그 3극, T형, 一字접지형, 환차, 2극.

옥내외 전기배선 장치에 부착되는 배선 기구류로서 장소 및 용도에 따라 매입형 노출형 등 각양 용량의 제품이다양하다.

[규격 및 성능]

1 A - 500 A 정 격용량의 다양한 종류와 100 V - 300 용량 와 KS 규격에 의한 2500 V 내전압 시험을 거친 제품이 우 수하다.

관련 규격서로는 KSC 8302 소켓류, KSC 8305 콘센트 및 플러그류, KSC 8309 옥내용 소형 스위치류, KSC 8311카버나이프 스위치류, KSC 8315 로젯류, KSC 8316 방수소켓류와 기타 제품으로는 호명기구류와 고리 표우 즈류가 있다.

(11) 電磁開閉器

각종 모타의 원격제어, 자동제어용의 제품이다, 표준모 타 容量別로 機種이 갖추어져 있으며 箱入型과 開放型이 구비되어 있다.

(12) 電磁接觸器

모타의 계어와 저항회로 등 자동 제어에는 최적한 스위 치임. 적용 용량별로 機種을 갖추고 있다.

(13) 補助 継電器、 州어멀 継電器

각종 스펜스 제어용으로 電圧 및 接點 構成別로 여러가지 기종을 가지고 있다. 써어벌 継電器는 各種 모타의 過 負荷 및 単相運転에 따른 無損을 완전히 보호할 수 있는 고도로 정밀한 過電流 보호 계전기로서 주로 電磁開閉器 와 조합하여 사용한다.

(14) 自動스타 - 델타 始動器. 휴조

전자접촉기, 써어멀 계전기, ATM 2 型 타이머를 조합한 自動 減電压 始動器로서 펌프, 송풍기, 工作기계 등의 시동기로서 널리 사용된다. 220 V, 440 V 回路用으로 각각 5 KW~55 KW의 기종이 있다. 휴즈는 차단용량 100 KA의 밀폐용 低压限流휴 - 프로서 최고급형이다. 取付面積이 적고 휴 - 즈溶断 표시가 되며 溶断特性의 均一, 정확한 설계 등이 특징이다.

(I5) 자동 차 단기, 안전 차단기

分電盤 分岐 回路用과 配線用으로 区分되어 있으며 30 A~600 A FRAME까지 각종 규격이 있다. 안전차단기는 가정의 分電 回路에 사용하여 전기로 인한 사고후 안전하게 回路量 보호할 수 있는 小型의 경제적 차단기이다.

(16) 보통 전력량계

광범위한 電力量計로서 負荷변동에도 오차없이 사용할 수 있다. 相別, 電压, 電流容量에 따라 여러가지 기종이 있으며 埋込型도 있다.

(17) 누름보턴 스위치, 절환스위치, 표시등

공작기계, 산업용 기계를 비롯하여 각종 제어판에 사용된다. 용도에 따라 25¢, 30¢의 2種을 갖추고 있으며接點 및 보틴 色等에 따라 여러가지 機種이 있다.

(18) 라마트 스위치, 온-오프 보턴 쇼위치, 타이머

전자 개폐기 조작용과 모터류의 起動用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특수한 接點의 사용으로 전기적, 기계적 수명이 길고 定格 容量이 크다. 타이머는 모타 타이머, 싸이 리스트 타이머, 뉴마틱 타이머의 3種이 있으며 용도에 따라 모타 타이머는 단시간부터 장시간까지 널리 사용되며 싸이 리스트 타이머는 短時間, 商精度의 특징이 있으며, 뉴마틱 타이머는 공기의 이동을 이용한 타이머로 각 기종별로 表面型과 埋込型이 있다.

(19) 極小 油入料단기、配電盤、分電盤

특수한 消孤方式을 채택하여 차단성능이 우수하고 小型、軽量으로서 2단 적재하여 배전반이 収納되는 특징이 있다. 配電盤은 자동제어용 기기와 차단성능이 우수한 국소 油入차단기 등 高压機器도 있다.

□ 美裝材

(1) 판넬 후로링 블록

나무로된 마루바닥은 「아스타일」이나「인조연마석」에 🗇 비해 위생적이며 무늬색상이 우아하고 미려하며 시공 및 보수가 용이하다. 판넬 후로링 불록은 일단 시공완료 후 시멘트 볼탈이 완전 양생되기까지 건드려서는 안되며 판소 별 후로링 블록은 人工乾製된 木材이므로 비를 맞히거나 물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용도로는 학교교실, 주택용 응접실, 교회, 호텔 등이다. 시공방법으로는 콘크리트 바 닥에서 25mm 높이로 수평줄을 띄우고 기존 콘크리트 표면 에, 물탈 바탕처리(시멘트 가루를 뿌림)를 충분하게 한다 시벤트와 모래가 1:3비율로 配合된 몰탈을 한쪽 모세 리 벽면에서부터 수평줄 높이 (25mm)에 기준하여 평행으 로 깐다. 동시에 몰탈 시에 판넬 후로링 블록의 "지지구" 가 충분히 박히도록 저그시 누르고 적당히 나무망치로 가 볍게 두드려 수평이 되도록 고착시킨다. 시공 후에는 몰. 탈이 충분히 양생된(약 7주일 후) 후에 표면 연마 후 도 색한다.

(2) 코아파넬

밥라이트, 티-크합판, 하드보드板, 일반 合板 등으로 제작한다. 특징은 防音, 防熱이 잘되며 특수 볼팅과 접착 제를 사용하여 고압으로 압가공한 것이므로 힘이나 비틀 밥이 없다. 또한 시공이 간편하고 美麗하다.

(3) 집섬 평보드

대표적인 小燃 内裝材로서 벽, 천정, 칸막이 등에 최 적하다. 다른 집성보드 제품의 기본재료로 사용도 되며 주원료는 石膏이다. 두장의 강인한 특수원지 사이에 석 고가 안정된 결정 상태로 응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축, 변 형, 처짐이 없어 施工 후 평활한 면을 유지해 준다.

(4) 집섬 테파트드트

건식공법의 결점인 이음새 처리를 완전 해결한 새로운 正法「조인트 월·일매이음」 공법용으로 開発한 보드이다.) 집섬 평보드의 길이 방향의 양단을 경사지게 하여 이음새 가 보이지 않는 벽, 천정을 빠르고 경제적으로 시공할 수 있다.

(5) 집톤

집성보드의 表面에 특수한 기술로 무늬를 프레스하여 흰 페인트로 마감한 天井用 不燃 內裝材로서 모든 건물의 천 정에 널리 사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품이다. 방화 천정 재 중 가장 값이 싸고, 방화, 차음, 단열성이 가장 우수 하다,

(6) 파라이트

화산이 많은 日本 등지에서 산출되는 화성암 중 진주암 또는 흙요암을 적당한 입도로 분쇄하여 1350℃의 高編에서 급속히 加熱 팽창시킨 것으로서 기밀성의 수많은 소포기가 초자질의 被膜에 둘러 싸여서 백색의 매우 가벼운 粒子로 形成된 것이다. 이렇게 생산된 파라이트는 당연히 경량이고 耐火性, 断熱性이 크고 흡음성이 뛰어난다. 最近 建築資材로서 각광을 받는 이유는 外的으로 우아한 색상과 부드려운 질감, 내적으로는 軽量, 耐火、保湿, 保治, 경로방지 败音 등에 우수한 効果를 가질 수 있다.

(7) 폴리우레탄 바닥 美裝材

耐磨耗性, 耐引裂性이 우수하여 Non-slip性, seamless 의 바닥 형성에 적합하다.

(8) 自然石 나스톤 타일

전국에 散在한 鑛山에서 폐기 처분된 廃石을 粉砕한 것을 主材料로 하는 內外裝材로서 全国 各地方의 특정한場所에서만 発見되는 天然石을 사용한다. 製品은 壁紙 스프레이 방식 內外裝材로 石圃등이 다양하며 色相은 염료 등 어떠한 化學물감으로도 모방할 수 없는 天然 그대로의 자연색이므로 現代 都市건축에 부드러운 자연미를 살려줄뿐 아니라 砕石粒子의 크기도 다양하여 자연의 중후함과 부드러움을 주며 표면은 완전 防水코-팅 처리하여 수명을 장기간 보장. 洗滌이 용이하고 제품의 청결을 유지할 수 있다.

(9) 비엠 人造化粧石

建物 內外裝은 물론 문기둥, 현관담장, 응접실, 점포, 사무실 등에사용, 접착이 잘되게 특수한 재료를 넣어 製造하여 吸収力이 강하고 接着이 잘되어 施工이 간편하며 합판이나 木材계통에도 시공이 가능하다.

(10) 珪素 코-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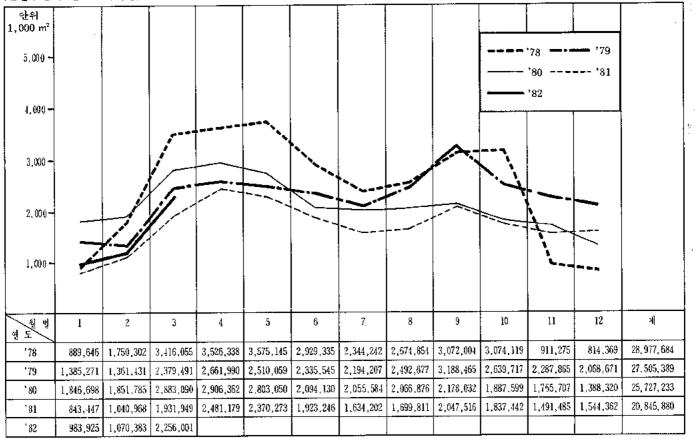
雲母를 主材로 한 防火材로서 0.2m/m 정도의 塗膜으로 防火力이 우수하고 色彩는 회망에 따라 調合되며 濕潤面 凸凹面에도 시공되며 保温, 保冷의 효과가 크며 반영구 적이다. 施工은 소형 콤푸렛샤로 吸付工法에 외한다.

(11) 뮨르-코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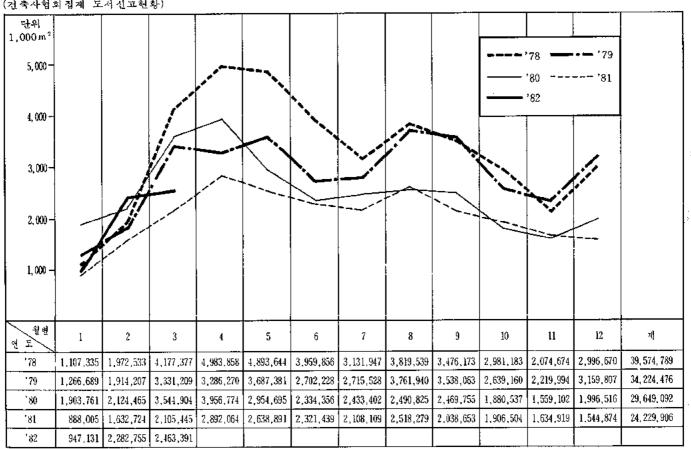
內外裝用 아크릴系에 마 - 르존형 特殊樹脂이다. 각종 천연석의 骨材를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고 天然石의 美를 살린 아름다운 壁面이 간단히 시공된다. 접착력이 특히 우수하고 耐候性. 耐水性에 強하여 內·外裝材로의 사용 이 可能하며 耐알카리성에 강하므로 下地 시멘트에 대한 아쿠(베어나오는 현상)의 영향력이 전연 없다.

건축허가 (도서신고) 면적 변동추세

(건설부집제 건축허가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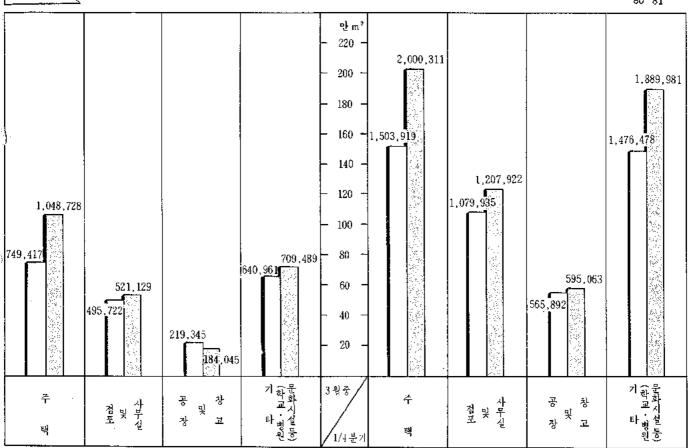
(건축사협회집계 도서신고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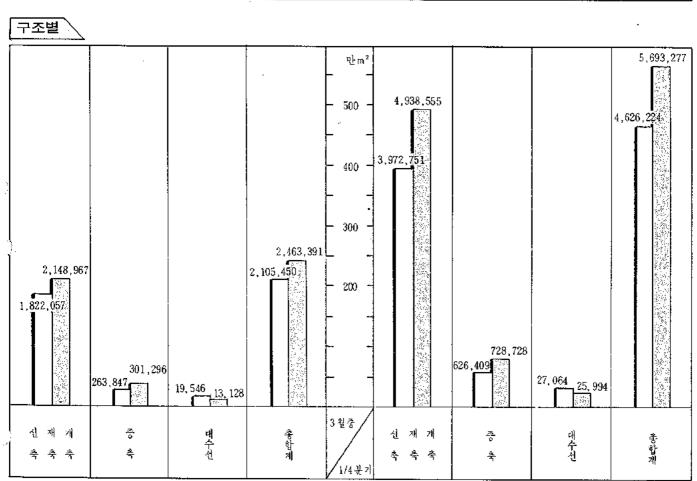


도서신고현황(전년대비)









会員動静

□충북지부 = △박재만회원 / 현대건축설계사무소 / 청주시 북문로 2 가92 - 7 / 전화 2 - 5730

전체 □ 서울지부 = △신형범회원 / 전체 삼성・벽산건축 / 동작구사당동708 - 103 / 3월11일△이관영회원 / 한안건축 / 종로구신교동31 / 3월23일

□ 부산지부=△허신행회원/ 영식결혼/3월11일12시/아 리랑관광호텔△천일창회원/영애결혼 /4월12일13시/서면부전예식장

□경북지부=△양병모회원/2 남결 혼/4월 I 일/구미명성예식장

□ 대구지부=△김대룡회원/차녀결혼 / 4월17일△방한수회원 / 차남결혼 / 4월25일△임삼록회원 / 3남결혼 / 5월 1일

□서뮯지부: 김관중회원 / 본인결혼 / 안천 정우상호신용급고 강당 / 4월 4일13시 △박영식회원 / 동생결혼 / 영등포 신한예식장 / 4월19일12시 △조동호회원 / 장남결혼 / 영빈예식장 / 4월23일12시 △한종언회원 / 동생결혼 / 로타리예식장 / 4월30일14시

□부산지부=△김규래회원 / 부인병환 / 3월29일 / 메리놀 병원에 입원

□ 경북지부=△손재수지부장/모친 별세 / 4월 6일

□ 대구지부=△윤자균회원 / 간경화 로 입원 / 대학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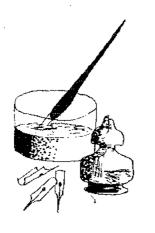
지 등 □ 경북지부=△양임수회원/ 4월 1일

□충북지부=△연관홈회원 / 모친화는 갑 / 4월19일 / 자택 △정진억회원 / 부인회갑 / 4월21일 / 자택△오수복회원 / 부친회갑 / 4월24일 / 서울우이동 삽정장

□ 원유택회원 / 모친회갑/대전시중 구 변동 / 4 월28일

□ 서울지부: 감무중화원/모친수연 /장안동 자택/4월2일 △ 한정기화 원/모친수연/신라회관/4월17일17 시

◆編輯後記◆



□근래에 준공된 教会자품만을 모아 특집을 마련하고, 김해서 종교진축에 관한 논문을 함께 다뤘다. 예전에는 지붕위에 십자가만 덜렁한 허름한 교회건물들이 요즘은 웅장한 모습으로 곳곳에 자리잡고 있다. 분명 주님의 은총이 온누리에 넘치리라.〈用〉

□어머니, 언제나 추울 수 있는 것은 당신 마음입니다. 언제나 벼랑 위에 서있고 싶은 욕망을 가슴에 얹고속으로만 한숨쉬며 후회스런 삶을 줄기시는 당신은 차라리 자식에겐 집이십니다. 어머니, 杞憂로서 白髮이 되신 당신의 어리석읍을 자식은 모르옵니다. 그러나 먼지로 찌든 出常에서들아가 울 수 있는 곳은 당신의 마음뿐이라는 절 자식은 압니다. 어머니, 이젠 오월의 꽃처럼 화사하게 웃어 보세요. 당신의 생활이 날마다 오월이기를 자식들은 뻔뻔스럽게도 잘망합니다. 어느 하루, 몇번만——〈京〉

□ 5月은 여러모로 행사가 많은 달이다. 크고작은 행사로 모든 것이 바삐 돌아가고 있는듯 하다.

바쁜 5月처럼 또 신록의 5月처럼 바쁘고 푸르트고 싶다.〈宙〉

□ 창밖으로 노닥거리는 도시의 소 음과 연혼처럼 깔려오는 어둠의 냄새 가 스며들어 온다. 태양은 조용히 뼈

나가고, 어둡고 구수한 지녁냄새를풍 기는 골목길을 걸어가며 두손을 축 늘 어뜨린 무기력한 상념, 俗物 / 우리 는 이말을 자주 입에 담는다. 어떤 때 는 자학의 뜻으로, 어떤 때는 생활의 슬픔을 나타내려고, 그러나 슬픈척하 는 소시민같은, 티스푼으로 하루하루 를 재는 백번이나 망설이고 백번이나 결정하는 그런 인간만 되지 않는다면 속물이라도 좋을 것 같다. 때로는 한 숨이고 때로는 침묵속에 빈 가슴 물 빚이고 싶더라도, 어느날 아침 문득, 어디론가 떠나야겠다는 생각은 갖지 말자. 질서 찾기운동이 한창이다. 빠른 눈치로 급행버스에 먼저 오르려는 사 람들에게는 한발자국 물리서서 양보 를 하자. 〈基〉

□회원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보다 충실한 회지제작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애독하시는 회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욱 훌륭한 회지제작에 노력할 것을 다짐드린다.